

束草文化

1993/第9號

束草文化院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것을 다짐합니다.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長
韓丙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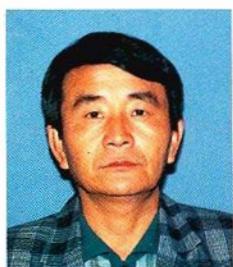
代表理事 社長
崔澤琳



■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가운데 흰눈이 쌓인곳이 설악산 대청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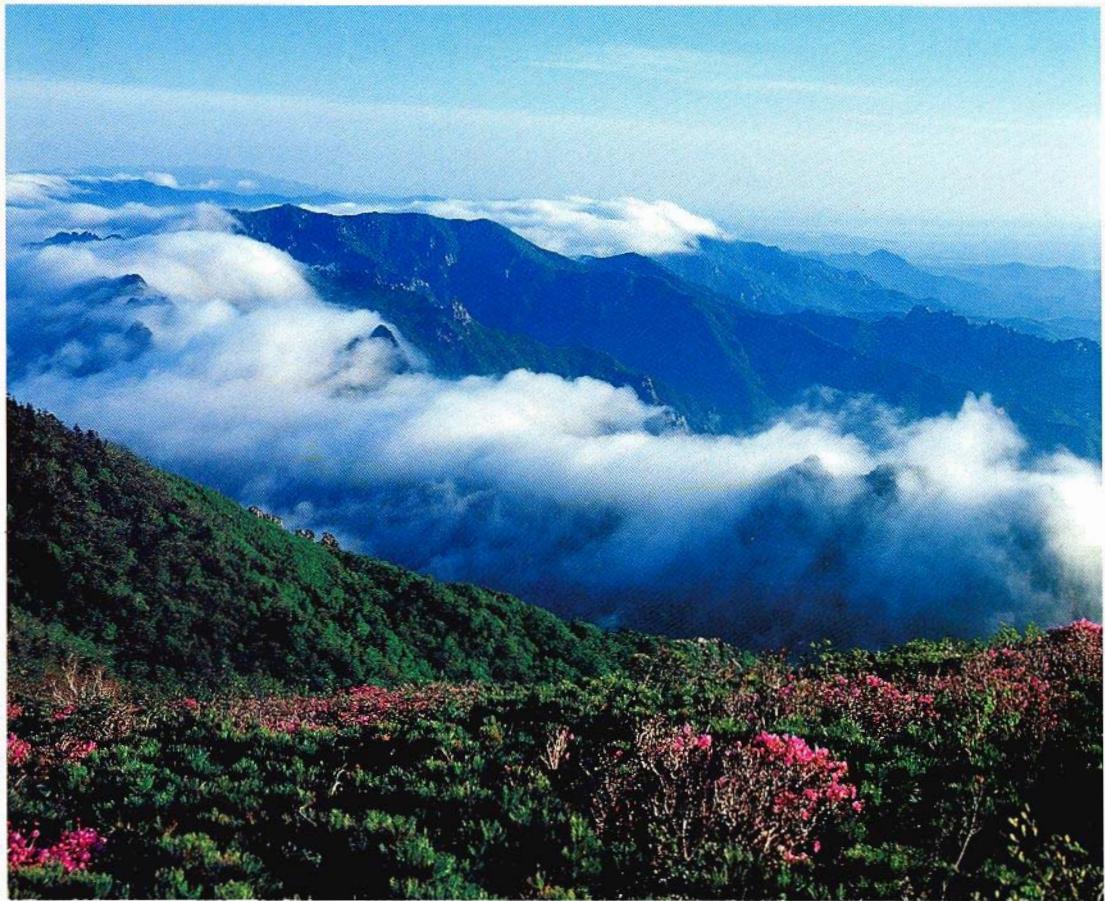
사진작가 崔 春 永
<속초시청 근무>



칠성봉



공룡능선의 운해



설악산의 운해



공룡능선



용아장성



천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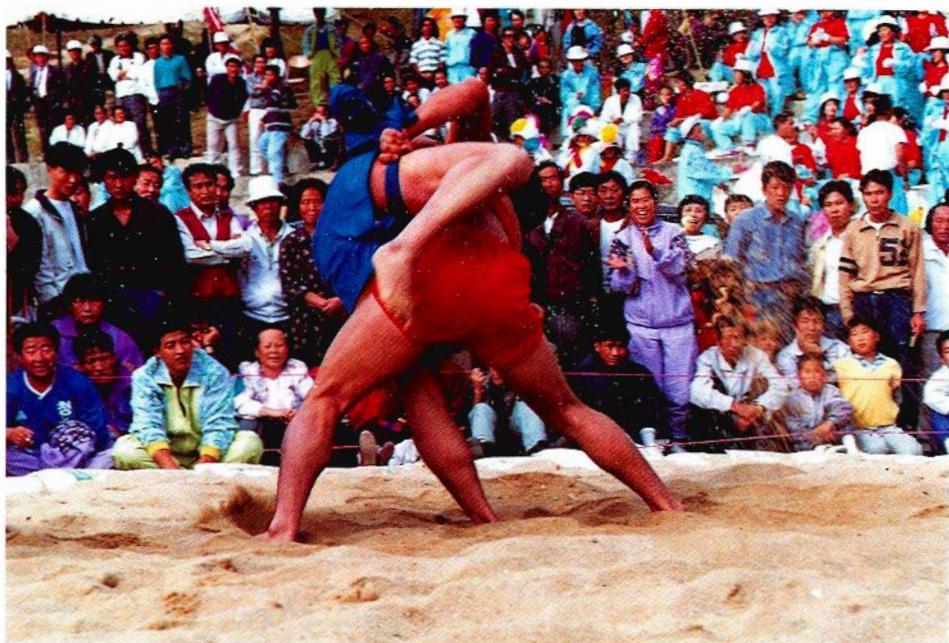
제28회 설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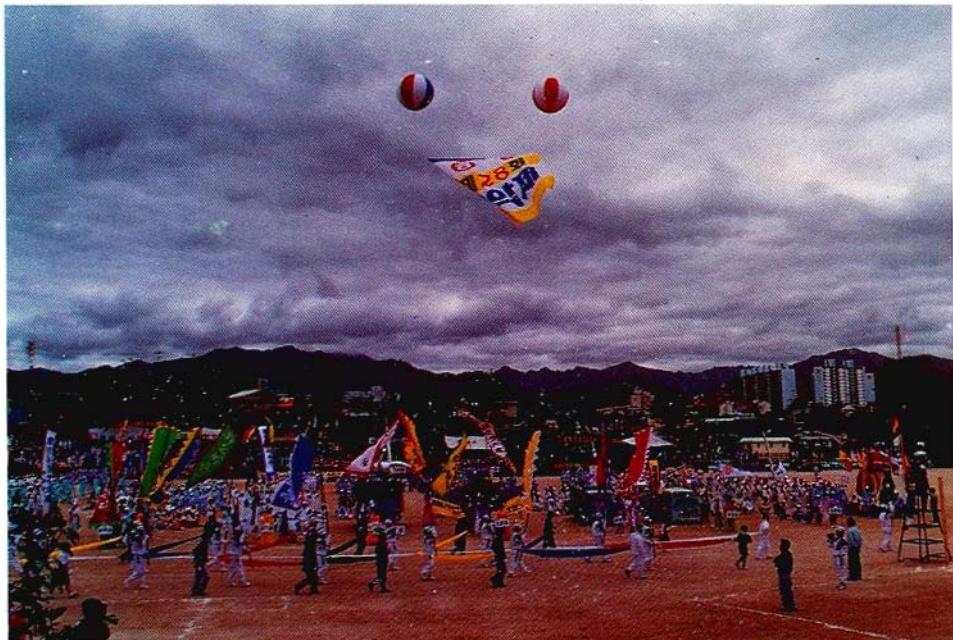
제28회 설악제



제28회 설악제 축사하는 金光容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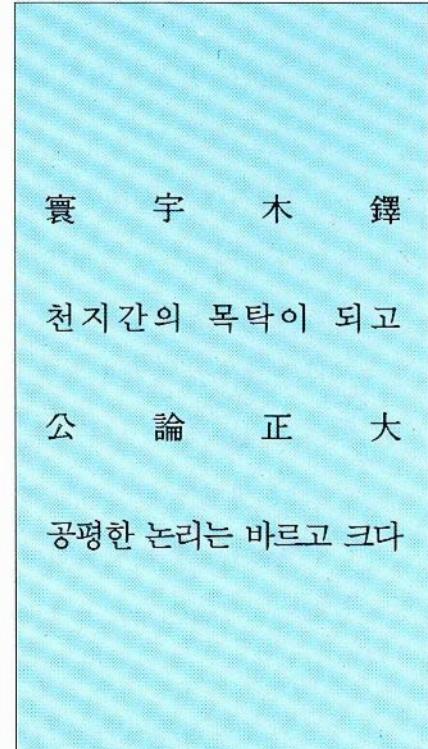
제28회 설악제



제28회 설악제



제28회 설악제



雪嶽書藝學院長
霽山池應準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차례

東菴文化

1993 / 第九號

■ 속표지/설악의 비경	사진/최춘영 · 1
■ 화보/설악제	편집부 · 8
■ 휘호	지응준 · 11
■ 문예중흥선언	· 12
■ 권두사/향토문화의 국제화	최용문 · 14
■ 축간사/새가치관의 정립	정재철 · 16
■ 축간사/향토문화의 자긍심 보존을 위하여	김광용 · 18
■ 권두시/마타리 꽃	이성선 · 19
■ 한시/四時	이원식 · 20
■ 특집/관광산업현황과 발전전망	황돈태 · 22
■ 특집/수산물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윤의구 · 30
■ 특집/‘화해와 용서’ 보여준 뜨거운 무대	김윤철 · 43
■ 논단/속초문화와 속초사랑의 길	이기일 · 51
■ 논단/남북통일의 지름길과 우리의 자세	동문성 · 66
■ 국립공원 설악산(9)	박의훈 · 71
■ 학교순례/동우전문대	편집부 · 74
■ 학교순례/속초고등학교	편집부 · 83
■ 학교순례/속초여자고등학교	편집부 · 86
■ 학교순례/속초상업고등학교	편집부 · 90
■ 창작시/가을에 핀 진달래	송현정 · 94
■ 창작시/달팽이	김승기 · 95
■ 창작시/바느질	최명선 · 96
■ 창작시/송지호 연가	이선국 · 97
■ 창작시/아버지의 짊음	김영남 · 98
■ 창작시/20세기를 보내며	이용구 · 99
■ 故 池一權문화원장 영전에	사무국 · 100
■ 탐방/일산장학회를 찾아서	사무국 · 101
■ 속초문화원 업무소개	사무국 · 103
■ 속초문화원 93定總	사무국 · 110
■ 北青사자놀음 기능보유자 金壽石옹 위문	사무국 · 111
■ 예총 속초지부 93활동사항	예총사무국 · 112
■ 제4회 청소년 백일장/산문	노우영外 10人 · 121
■ 제4회 청소년 백일장/시	김미경外 11人 · 132
■ 속초도서관의 발자취	김경해 · 144
■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정영래 · 148
■ 백제문화권 탐방기	김호웅 · 151
■ 금강산과 文學	이성선 · 161
■ 수필/수탉알	권오진 · 172
■ 표지화 작가	정광섭 · 174

『鄉土文化의 國際化』



崔 龍 文
속초문화원장

鄉土文化의 國際化

우리는 傳統文化를 계승 발전시킬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곱게 보전하고 간직한 전통문화를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급류처럼 몰아치는 격류속에서도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독특한 향기와 빛을 발산하는 우리문화가 확고한 제자리를 잡을때는 조상의 열과 슬기를 제대로 이어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엽전의식을 버리고 세계속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文化를 왜 국제화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①우리문화를 국제속에 진입시킴으로써 국제 간의 선린 우호관계가 공고해지면서 인정받고 연구과제를 던져주어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바지하고 ②우리문화는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문화를 접목시켜야 얻은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한 국학 연구붐이 크게 일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그 열기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조처로 우리문화에 대한 대외 소개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시점에 이른것으로 본다. ③요즘의 국제 추세는 자유 민주주의 기반위에 경제가 문화의 색채와 영향을 많이 받아 상대 국의 수요 충족에 나서고 있으므로 수출산업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④94년은 한국방문의 해 이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진수를 선보여 정말 유구한 역사속에서 독창적인 멋과 품위, 순수성

“

지역문화의 뿌리가 되는 전통문화를 더 세련미를
가해 해외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향토문화로 승화
시켜 이고장 발전과 연관성을 이룩해 나가자.

”

을 간직한 문화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세계 열강들과
동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⑤東草문화의 진원지는
농업보다 어업(수산업)에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선시대는 양반들의 관혼상제용 제물과 미식을 위
한 생선공급에 시달려 왔고 왜정때는 日本人에게 잡은고
기를 모두 수탈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광복이후는 북한 공
산당의 강압정치에 모든것을 다 빼앗기고 얻는것이 없는
눈물의 시대를 살아온 것이 東草시민들이다. 이와같이 한
과 설움이 범벽이된 시대에도 주민들에게는 무속의 굿과
남사당 놀음, 명절놀음등에서 민권의 신장을 제창하는 풍
자극들이 꾸준히 성장해 인본주의 사상을 잘 표현하면서
그액을 이어왔다. 그속에서 활짝 편것이 雪岳祝祭이다. 이
제는 雪岳祭를 단순한 지역행사로 뮤어 둘것이 아니라 시
골풍의 딱지를 떼어 버리고 넓은 세상에 분출시켜 국제성
이 부각된 새딱지를 같이 부치는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본
다. 東草문화의 뿌리는 허기진 배를 응켜잡고 구박과 설움
의 한이 서려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이므로 해외에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부터 공감대를 얻어 굳건한 민족이
라는 말을 들을수 있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곧 이루어질 해로와 공로의 교통이 잘 개척될때
는 이고장에도 국제화의 흐름이 밀어 닥칠 것이므로 그때
를 예측하여 東草문화에 세련성과 전통성을 더 부각시켜
세계속에 응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진다.

『새價值觀의 定立』



鄭 在 哲
國 議 院 員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한민족으로 一體性을 갖는 것도 民族的 矜持와 自負心을 갖는 것도 悠久한 歷史를 통해 꽂고 繼承해 온 우리 文化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地域은 秀麗한 山勢, 수많은 名勝地, 그리고 由緒깊은 史蹟地와 遺物이 어느 地域보다 많은 傳統文化의 고장입니다. 이렇듯 悠久한 歷史에 비추어 볼때 우리 地域 文化藝術의 발굴과 계승을 통해 鄉土愛와 主人意識을 함양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文化藝術暢達의 요람 『東草文化院』과 “東草文化”誌는 독창적인 文化的 꽃을 피워 우리 傳統文化를 더욱 풍요롭고 값지게 하였으며, 人間의 참된 自由와 삶의 質을 향상시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地域의 文化도 크게 변하고 많은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近世에 들어서도 文學, 美術, 音樂 등 여러 文化藝術 분야에서 우리 고장이 낳은 많은 文化人과 藝術家들은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곳곳에서 文化祝祭가 열리고 展示會와 公演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文化活動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라는 先進國으로의 跳躍을 위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國際的으로는 거센 開放壓力으로 인해 競爭力이 취약한 여러 產業分野가 위협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과거 不正과 不條理가 만연하던 시절의 타성과 관행을 불식하고 다시 한번 하면 된다는 國民적 自覺心과 社會

“
 바로 이러한 時期에 우리 文化人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意識을 先導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文
化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

改革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하는 의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들 다음 世代에게 文化主義의 높은 理想을 담은 참된 모습을 전하여 그들이 밝은 未來를 열어가게 해야 합니다. 特質的 發展에 걸맞는 價值觀을 세우고 先進國民의 文化意識을 함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文化藝術人 여러분들이야 말로 가장 소중한 이 시대의 사명을 실천해 주는 분들이며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큩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나눌수록 커지는 것은 文化藝術이라고 합니다.

歷史의 進歩와 나라의 發展은 文化傳統의 창조적인 계승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나라의 文化水準이나 發展이 그나라의 國力を 재는 重要한 尺度가 되고 있으며 진정한 先進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文化傳統은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의源泉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社會는 物質的으로 풍요를 누릴뿐 아니라, 삶에 보람과 즐거움을 주며, 文化的 價值가 具現되는 社會입니다.

우리 地域의 밝은 앞날과 文化暢達을 위해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고 계신 文化藝術人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東草文化』誌의 지속적인 發展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鄉土文化의 자긍심 보존을 위하여



김 광 용
束 草 市 長

사회환경의 변화로 문화적 양태도 대단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餘暇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觀光休養都市로서 國民餘暇地帶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수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도회지의 고급스런 관광객들이 휴양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문화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토양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중앙의 고급한 문화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향토에 대한 강한 애정과 향토 문화에 대한 궁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 도회지문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냉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지역의 정신적 근거를 잃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의 강화는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고 정신적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속초문화원은 오래전부터 혼신의 정열을 다해 향토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 책 '束草文化'가 바로 최일선에서 향토문화의 자긍심을 보존하고 중앙의 고급문화를 여과해 전파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속초문화' 제9호도 이런 지역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지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믿으며 축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두시 ■

마타리꽃

가름한 목 하늘로 빼올리고
수줍어 웃는 마타리꽃

곁에서 너를 바라보고 서 있으면
멀리 떠나간 그리운 사람 앞에
돌아와 서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너와 함께 들킬을 걸어가면
하늘의 물소리가 들린다
별들과도 이야기한다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리고
송아지가 운다
낮달이 하느님처럼 어깨너머 다정하다

구름의 손짓을 느끼며
옛사람을 생각하는 마타리꽃

—이젠 사랑하리라
기다림을 넘어서 기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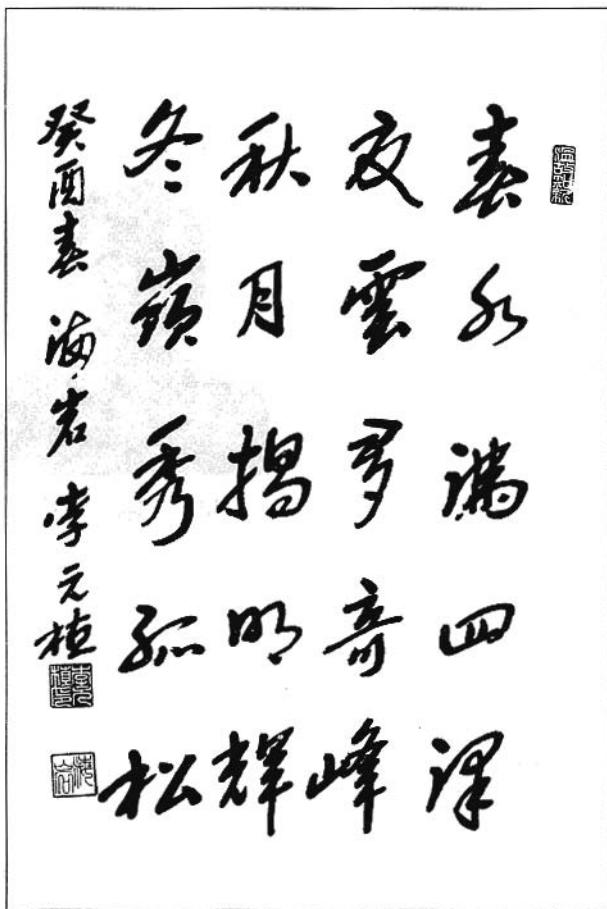
너의 등뒤에 황혼이 붉게 깔리고
별이 뜬다

더 많은 별이 뜨면 나와
물을 건너 너의 나라로 가리라.



이 성 선

□ 漢詩 □



李 元 植
(東草市青湖洞長)

陶淵明의 詩

四 時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

봄 물은 못마다 가득 찼고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도 많을시고
가을 달은 밝은 빛을 발하고
겨울 산마루엔 외로운 소나무 빼어났어라.

특집

관광산업현황과 발전전망 수산물의 유통현황및 개선방안 '화해와 용서' 보여준 뜨거운 무대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I. 머리말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속에 살고 있다.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서양분체제가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상호보완·협력체제로 재편되면서 중국과 '구'소련등 사회주의 국가가 문호를 개방,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유럽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등 지구촌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경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각 국가는 국민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관광여행이나 레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내여행에 국한되었던 것이 불거리가 많고 안락하며 접근 교통망이 없으면 국외로 관광을 떠나는 이른바 관광의 세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관광여행위원회(WTTC)의 와튼계량연구소(WEFA)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여행업이 고용, 부가가치면에서 단일 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이 되고 있으며, 관광여행업이 '9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9명 중

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생산, 가장 큰 단일산업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세계관광의 호황전망과 함께 중국의 개방정책과 주변관광여건이 성숙된 이유로 선호관광지 흐름도가 동북아로 바뀌고 있는 마당에서 설악산과 동해바다, 호수, 온천 등 한 곳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모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중국, 북한,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관광루트로서의 연결고리 역할로 지리적 여건이 적합한 우리 고장이 당연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 국제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국과 교통연결루트를 확충 개발하는 방안,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금강산과 연계한 개발계획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제반관광시설의 국제화,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접근 교통망의 확충과 시민을 관광요원화시키는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 방향을 찾고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지역자본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에게 관광실질수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으며 향토기업육성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黃 墉 泰

東草副市長

II. 관광개발여건

1. 자연환경

국토분단으로 남한지역의 최동북단 변방에 위치하고 산악지역으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설악산과 동해바다, 호수, 온천 등 지형적 여건이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교통시설의 개선으로 현재의 지형적 제약성이 개선되면 산지 등 한계자원의 가치가 높아져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하겠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겨울이 길고 눈이 많아 겨울 휴양지로서 개발에 유리하여 이 지역 여름기후는 20°C가 넘는 고온다습으로 해수욕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2. 인문 사회적 여건

1993년 현재 속초시 인구는 75,774명이고 인구밀도는 722명/km²로서 인구의 성별구조는 남자가 49.76%를 차지, 여자보다 256명이 적으며 6·25이후 수복된 수복지구의 유일한 시로서 실향민이 많고 오정어 등 수산물의 성어기에 유입인구가 많아 지역정주의식이 미흡한 편이다.

전국 및 지역차원의 계획에서 산업개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기간산업이 미약한 상태이며 주요 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 5시간의 거리에 위치하고 접근체계는 양호하지 못해 성수기에는 도로의 체증이 극심하며 관광지 주변은 운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고속전철 및 고속도로의 건설 등 접근로를 확충하면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 가능하며 고속전철 자체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끌수 있다.

3. 관광환경

권역내 관광지는 해수욕장과 산악형 위주의 자연환경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정지역 및 특정시기에 집중이용으로 인한 극도의 혼잡과 수용력 한계의 초과로 자원 파괴가 심화되고 있으며, 콘도 등 특정시설의 특정지역과도 집중개발과 전문운영인력의 부족, 서비스의 질적수준 저조로 선진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나 설악산권은 숙박시설이 주류를 이룸으로서 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단위 청초호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등 주변지역으로 분산효과를 고양시키고 있어 관광사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4. 경제적 여건

속초시의 산업구조는 제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구성비가 18.4% : 5.4% : 76.2%로 전국산업구조 18.3% : 27.3% : 54.4%에 비해 2차산업 비중이 낮고 3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표적 발전 추진적 산업이 적어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확충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자본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수익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어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여건 변화와 지역의 위상 전망

1. 여건변화 전망

가. 개발여건 성숙

북방교역증대와 두만강 3각지대(소련, 북한, 중국)개발의 실현으로 북방지역과 근거리에 입지하여 북방교역 전진기지화가 될 전망이며, EC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아세아 지역에서는 동해권 경제블럭화(일본, 남·북한, '구'소련, 중국)가 이루어져 이 지역이 국제무역의 기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남북 통일 여건이 성숙되면 국토공간의 일체성 회복과 금강산-설악산 공동개발의 실현으로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 산업입지 여건개선

산업구조가 경량, 소량의 첨단산업으로 개편되어 산업입지가 수송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간 접근성 불량으로 산업입지가 제약되었던 개발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그린라운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와 무공해 농수산물의 선호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공해식품인 농수산물 관련산업의 활

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 지방화 시대 도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의식이 성숙했고 국토개발정책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변화되고 전국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균형화되어 잠재자원이 개발촉진될 것이다.

라. 가치관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이 물적 경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곳에서 문화적 자연을 선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노년 인구의 증가로 설비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지역의 발전을 한층 증가시킬 것이다.

마. 여가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관광개발 촉진

모든 국가가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여유가 놀厕 활동과 관광으로 이어져 볼거리가 많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떠날 수 있는 관광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수익을 위해서 개발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2. 21C를 향한 지역 위상

가. 풍요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교통통신의 발달로 최대장애요소인 접근성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자연과 인공환경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생활편익 시설이 완비되고 첨단산업등의 입지로 고용기회가 증대되어 풍요한 생활공간화가 될 것이다.

나. 국민적 국제적 관광휴양공간

우리 고장을 관광위락시설공간으로 금강산

과 연계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청초호 개발이 이뤄지면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민간투자자원의 유치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및 남북 교류의 전위 지역

두만강 삼각지대의 개발과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럭화로 북방교역 및 국제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남북통일이 실현되면 분단된 기능의 회복과 남북경제 및 인적교류의 전위기지가 될 것이다.

IV. 개발구상

1. 지역 내적 방향

가. 시설의 국제화

국제화시대의 관광거점도시로서 관광단지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설악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증가로 점차 축소될 것이므로 집단시설지구내의 관광시설은 주변의 배후도시를 기반으로 조성된 인위적인 관광단지내로 이전되어야만 한다. 관광단지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설악산 국립공원의 보전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개발된 단지내에 갖가지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휴양시설 등을 유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비수기가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종합휴양지 조성도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기존 관광자원들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모노레일등으로 연계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설악산 국립공원내의 숙박시설은 아주 제한된 인원(청소년, 노인, 근로자등)만을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방문객은 설악산

관광후 관광단지 내에서 숙박하게 된다.

둘째, 관광단지는 가능한한 배후도시의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기존도시의 각종 시설 및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렇게 개발된 관광단지는 앞으로 실현될 남북관광교류의 전진기지로서 금강산과 연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일본,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관광의 전위지역으로써 기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청초호 유원지조성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그리고 영랑호 유원지 조성건이라 할 수 있다.

○ 먼저 청초호 유원지 개발안을 보면 교동과 조양동 일원의 512,000m²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57,291백만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단위 위락시설단지 조성사업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도 청초호 유원지와 연계성을 유지, 조양동과 대포동 일원의 348,900m² 면적에 '92년부터 '97년까지 131,367백만원(공공 9,294백만원, 민간자본 122,073백만원)을 들여 숙박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뉘시 및 수영편의시설을 위한 개발사업이 발주단계에 있다.

○ 또한, 영랑유원지를 동명동 영금정 일원에 19,300m² 면적으로 '93~'94까지 3,209백만원을 들여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완공되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게 될 것이다.

나. 시설의 고급화

○ 관광도로의 개방

기존 간선도로를 우회할 수 있고 경관이 수려한 호수변, 해변, 계곡, 산악경관지 등에

개설할 수 있는 관광도로는 주요경관을 조망 할 수 있는 지점에 전망휴게시설, 화장실,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스낵바, 주유소등을 설치한다. 자원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을 여러지점에 설치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이 지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관광도로 개발에 직접 참여한 후 이용객에게 도로사용료를 적정 징수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야 한다.

○ 관광 종합 터미널 설치

관광객을 위한 전용 교통수단, 숙박시설 예약실태등 제반 관광정보 및 안내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기존 교통 터미널등에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증진시켜야 하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 업종중 자동차 정류장 시설업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터미널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육성 및 관광이용편의시설 개선을 도모해야겠다.

○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자가용 이용 관광객의 급증으로 설악산 국립공원내 주차시설이 한계에 도달하여 설악산 진입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노레일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설치시 환경오염 저감, 교통소통을 완화시킴은 물론 관광 명물화뿐 아니라 자동차 매연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며 MONO RAIL을 이용한 소통이 오히려 산악내 체류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어 사람에 의한 자연훼손등을 최소화하여 오히려 설악산 보존에 기여할 것이다.

○ 소형항공기, 관광헬기의 도입

관광 인구의 고급화 추세로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없는 경비행기나 관광헬기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관광 셔틀 버스 운행

거점도시, 관광지, 관광자원간을 운행하는 관광전용 셔틀버스를 도입, 주변지역을 순회하도록 한다.(종합이용 쿠폰제 채택등)

다. 관광시설의 다양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관광지는 단기적이고 거점적인 시설로 지역의 특수성 및 욕구를 충분히 고려치 못함으로써 관광시설이 갖는 관광지 특화 관광객 만족도 제고 등의 기능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시설의 다양화가 시급하며 그 방향은

첫 째, 권역 특성에 맞는 관광시설의 도입

둘 째, 시장별로 시설도입기준을 차별화시킴으로써 각계의 관광객 욕구충족을 구체화하며

셋 째, 시설의 권역내 편중도를 지양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넷 째, 예측되는 미래의 관광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지역 어느곳을 가거나 똑같이 숙박음식 시설뿐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곳곳마다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각각 다르고 특색이 있어야 설악권을 골고루 가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오래 체류하게 함으로써 소득면에서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 주제공원(Theme Park)

주제공원은 기개발된 휴양, 관광시설과는 달리 여가, 위락, 문화, 교육, 연구경험 등의 다기능, 다용도 시설들이 복합된 종합휴양위락 레크레이션 시설로서 모든 이용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관광 위락시설로 개발하여야 한다.

○ 해변 휴양지

기존의 숙박시설위주의 단조로운 해변 휴양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광시설과 전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활동 프로그램의 운용 및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특색있는 해변 휴양지로 개조 개발하여야 한다.

○ 종합 교양 문화 스포츠 시설

주제 공원, 해변 휴양지등 놀이, 위락 시설 지로 보완할 수 있으면서 4계절 전천후 체류형 관광지역이 가능토록 교양, 문화, 스포츠 등 제관광 휴양활동에 대한 경험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계획 대상지역내 도입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유형과 규모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모, 시설, 서비스, 부대시설 등에 있어 선진국의 관광 숙박시설 개발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주요시설별 개발 기본방향에 맞춰 관광거점 지역을 편중시키지 않고 설악산지역은 주관광코스지역으로 속초해수욕장은 낚시와 수영 그리고 해변 휴양지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조성하여야 하며 청초호 유원지는 숙박, 문화, 교양, 스포츠등 종합레저단지로 영랑 유원지는 숙박과 위락시설 위주로 특성을 살려 개발하여야 한다.

라. 소득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로 관광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산업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상당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타산업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국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관광시설이 개발되고 도로망이 개선되어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실질소득

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설악권지역을 포함한 우리지역내 운영되고 있는 5,146동(객실)의 Condo와 건축 또는 허가증인 콘도 4,840동(객실)등 1만동의 콘도와 오피스텔, 각종 연수원의 내방객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통부에서 밝힌 이 지역의 관광객 지출에 의한 관광수입액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지역 총생산 파급효과는 1996년 6,500,643백만원으로 2001년 9,899,553백만원으로 예상하였으며, 관광수입으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는 2001년을 기준으로 볼때 관광업 자체부문 3,734,569백만원, 1차산업 173,904백만원, 2차산업 1,782,659백만원, 기타 3차산업 645,513백만원, 도소매업 159,706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관광수입으로 인한 고용 파급효과는 1996년 150,618명 2001년 229,369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관광수입으로 인한 고용 파급효과는 1996년 150,618명 2001년 229,369명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지역은 외지자본의 유입으로 실제 관광수입이 지역주민의 소득화에는 미흡한 면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지원
- 합동 개발 방식의 유도
- 관광사업 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지원
- 지역자원 우선 활용 보장 방안
-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소득조정 사업의 추진(관광어촌개발, 국도및 지방도 노면 휴게소 설치의 양성호, 지역별 특산품 및 전통음식의 지정 및 판매 촉진, 관광농수산물 개발)으로 지역 관광수입이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소득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마. 시민의 관광요원화

지역민의 관광요원화는 지역민에게 관광지

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자신의 친절이 미치는 관광객 증대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주부, 직장인, 퇴직인, 택시운전사, 일반상가의 종사원 등으로 구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학 생

학습하는 과정속에서 방문객, 관광객에게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관광자원의 현황을 교육시킨다.

○ 주 부

교재는 반상회를 통해 주로 배포하고 관광지에서의 봉사 가능 활동 내용의 제공으로 자발적 봉사를 유도하며 주요 관광자원과 교통망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전달한다.

○ 직장인

각급 직장이나 조직에 정기적으로 지역 관광정보 및 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우송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며 올바른 관광행태의 소개로 관광수준의 질적 개선을 유도시킨다.

○ 퇴직인

노인대학이나 노인정등에서 전문요원이 출장교육을 통해 그 지역 관광에 대한 설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전문퇴직인을 관광요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 택시운전기사

관광객과 가장 접하기 쉬운 계층으로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며 자신의 친절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면서 관광자원에 대한 위치, 접근도로망 등의 지식을 교육시킨다.

○ 전문관광 안내 체계 개선

우리지역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주로 관광회사에서 단체 안내에 의한 방법이 고작이며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오고 싶어도 언어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단체 아닌 개별관광객이 마음놓

고 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상점, 식당의 종사원

관광객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계층으로서 정기적 교육이 절대 필요하며 친절의 생활화,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위생교육의 실시로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역 외적 방향

가. 접근 도로망 개선

• 강릉~속초간 도로 확충(70.0km)

기존도로가 비좁아 속초로 유입되는 관광인구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춘천~속초간 도로 확충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하여 국도 45번 노선이 많이 수불되어 서울과 설악권을 잇는 최단거리 연결 루트가 필요하다.

• 속초~고성간 도로 확충(56.5km)

현재 일부구간이 공사중이며 이를 구간이 완료되면 접근 교통망은 크게 확충 될 것이다.

나. 철도개설

• 동서고속전철 신설

동서고속전철의 신설과 청초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내부접근로가 개설되고 영동국제공항 등과 광역체계를 이뤄 북방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남북철도의 복원

남북통일과 남북 교류에 대비하여 강릉~원산간 철도를 복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강릉~속초간 철도가 복원되어야 한다.

다. 해운 및 공항 신설

• 항만시설(해운) 「속초~원산, 속초~



훈춘간, 속초~울릉도」 동해안 경제 블럭화 추세로 수송 수요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며 설악산~금강산 공동개발이 성사되면 속초 항을 중심으로 원산간 해운 계획을 성사시켜야 하며, 현재 속초~훈춘간 카페리호 운행 협상중에 있다.

• 영동 국제 공항 신설

항공수요의 대중화, 국제화, 다변화 추세에 맞춰 영동 국제 공항이 속초 인근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

V. 맺음말

관광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역의 소득, 산업구조, 고용,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외에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에서 이

러한 효과는 특히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측면이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이란 국민여가 생활의 향상 및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의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관광개발은 조경사업을 통하여 환경을 미화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 오기도 하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정서순화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 퇴폐, 향락문화의 만연, 과밀, 지역주민과 외지인과 위화감 조성,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이러한 제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잉개발로 인한 귀중한 자연환경의 해손, 이용객에 의한 쓰레기,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우려됨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 및 지역개발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환경파괴가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水產物의 流通現況 및 改善方案

I. 序 論

水產物은 인류가 部族이나 國家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주요 식량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稻作文明의 도입에 따라 쌀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어 食事文明을 傳承發展하여 오고 있다.

원시적인 漁撈에서부터 현대의 水產業이 이루어지기 까지에는 農業이나 畜產業의 發展課程보다 더 다양하고 획기적이며 모험적인 과정을 거쳐 發展되어 왔다. 그 流通 또한 水產物이 지닌 特性上 복잡한 과정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世界人們의 꾸준한 水產物 선호도 증대 및 經濟成長과 함께 우리나라 國民들의 수산물 消費增大 추세가 현저하게 상승해 가는 지금 水產物에 대한 食品原料로서의 効率을 높이기 위한 流通問題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은 수산자원의 점차적인 減少에 대응한 측면에서도 水產物의 양식 확대와 함께 活潑한 研究와 실천이 전개되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1. 水產物의 特性

水產物의 生產은 不確實性을 항상 동반하고 있어 流通 및 消費性向에 걸쳐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수산물은 海域別, 漁場別, 季節別로 주산물이 生產되고 있기는 하나 海流 및 어장환경의 變化로 어군의 발생 및 회유시기가 일정치 않아 일정한 季節이나 시기에 일정한 量의 生產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어획으로 그 魚種의 生產時期를 넘긴다든가 당년생산이 없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多年周期의 變化로 수년 혹은 수십년간 生產이 中斷되는 魚種도 있다.

또한 生產方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魚種別, 時期別, 漁場別로 어구 및 어법이 각각 달라 生產 직후부터 어획물의 선도 관리 방법과 보관, 입상, 운반방법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水產業은 주로 바다를 대상으로 한 產業이어서 自然的 제한을 극심하게 받는 산업이다. 기상상태의 변화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어구의 준비와 어군의 탐색으로 어로 가능해역의 魚群回遊를 적시에 포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항해를 위한 어선의 정비와 적정한 漁撈 技術人力이 항상 확보되



尹 義 求

《약력》

- 64.11.11 水產漁業
協同組合入社
 - 76. 3.26 高城郡
水產協同組合 常務
 - 76. 6.11 束草市
水產業協同組合 常務
 - 81. 3. 2 襄陽郡
水產業協同組合 專務
 - 83. 5.16 高城郡
水產業協同組合 專務
 - 85. 3.21 漢州郡
- 水產物協同組合 專務
- 91. 9.11 漢州郡 水
產業協同組合 退職
 - 現在 韓國農畜水產流
通研究院 江原道 農
畜水產 流通研究所
研究委員, 束草地域開
發研究所 財務理事
 - 59. 3. 春川高等
學校 卒業
 - 61. 5. 成均館大學
校 獨語獨文學科 中退

어야 한다.

특히 근년들어 어로인구의 점차적인 감소 현상으로 어로 기술인력의 확보는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生產手段의 機械化 및 자동화에 대한 지속적인 研究를 필요로 하고 있다.

水產物은 강한 부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鮮度管理를 위해 어획된 시점부터 상장과 입상, 包裝 및 운반과 판매, 가공에 걸쳐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流通段階별로 Cold - Chain을 적절히 利用하여야 한다. 또한 生產地와 消費地가 대개 海岸地域과 內陸地, 都市地域間의 원거리에 위치한 關係로 集荷, 搬出, 分散, 消費등의 제 과정이 극히 복잡한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다양성, 자연적 제한성, 강한 부패성등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때 수산물의 流通은 農產物이나 畜產物에 비하여 더 많은 問題가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

2. 韓國水產의 위치

우리나라의 水產物 生產은 60년대 말까지는 주로 沿岸漁業에 의존하여 왔으나 1968년부터 遠洋漁業의 진출 확대와 남서해안의 해

조류양식의 급격한 확산으로 水產物의 증산을 이루어 세계 유수의 水產國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近年의 水產物 生產動向을 보면 77년 총생산 2,421천M/T에서 85~87년 3개년 평균 3,364천M/T로 약 10년사이 943천 M/T의 增產으로 28%의 신장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近年의 漁業別 生產動向은 <표1>과 같다.

<표1> 어업별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 천 M/T)

연도 구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5/7 3개년평균	1988
계	2,793	2,909	3,102	3,659	3,332	3,364	3,209
연근해어업	2,131	2,201	2,282	2,673	2,392	2,449	2,399
원양어업	615	658	767	929	883	859	774
내수면어업	47	50	53	57	57	56	36

한편 우리나라의 水產物 輸出은 1957년부터 高價의 輸出加工製品인 冷凍水產物의 對美輸出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작되어 農水產物의 輸出振興과 農漁民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71. 1. 18에 제정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시책」에 따른 지원과 어민 및 輸出

商社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76년 世界 16 위의 水產物 輸出國에서 82년부터 85년까지는 1,384백만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4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3. 강원수산의 위치

강원도의 수산업은 他道에 비교하여 漁業의 種類나 漁法의 가지수가 비교적 단순하다. 해면어업에서의 주어종은 명태, 오징어, 쥐치, 꽁치를 들 수 있으며, 해조류는 화폭(미역)과 다시마가 있고 기타 水產物로는 성게를 들 수 있다.

명태는 6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수요량의 거의 전량을 강원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68년이후 다량 반입되고 있는 遠洋명태로 인해 부가가치성을 상실하여 강원도 水產業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오징어 또한 70년대로부터 다량 반입되고 있는 遠洋오징어와 沿岸漁場의 원격화로 부가가치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국내적인 量產으로 국내의 流通과 魚價에 가중된 영향을 주고 있다.

강원도 地先어민의 춘궁기에 주요 수익원이던 자연산 화포는 68년부터 南海岸 養殖미역의 過剩生產으로 經濟性을 상실, 계속 생산성을 잃고 사장되어 있다.

해면어업의 流通 魚種이 단순하여 휴어기가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출하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 인구가 동해안으로 많이 이동되는 夏節期에는 휴어기를 겪으므로 현지에서의 消費物量 총족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內水面 養殖은 송어와 향어양식의 성업이 특기할만 하고, 해면양식은 우렁쉥이와 광어 양식이 다소 행해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經濟性은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강원도의 水產物 생산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1988년도의 생산현황을 전국현황과 비교해보면 <표2> 와

같다. 강원도는 연안 총생산 2,434,895M/T 중 83,398M/T를 생산, 3.42%를 차지하여 각 도 중 최소량을 기록하고 있다. 어류별로는 해조류가 1.29%로 최소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기타 수산동물이 10.55%를 점유, 어류별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2> 88年 漁業別 總生產量(전국대비)

(단위 : M/T)

어류별 구분	합 계	어 류	갑각류	연 체 동 물	해조류	기타수 산동물
전국(연안)	2,434,895	1,193,012	100,175	625,657	483,051	34,000
강 원 도	83,398	49,074	6,611	17,871	6,254	3,588
점 유 율	3.42%	4.11%	6.59%	28.5%	12.9%	10.55%
원양어업	774,240	567,379	2211	203,650		
총 生 산	3,209,135	1,760,391	102,386	829,307	483,051	34,000

II. 水產物의 流通現況과 當面 課題

國民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으로 國民所得이 增大되면서 食生活의 變化와 함께 水產物의 消費가 급증하고 있으나 生產은 이에 부응할 만큼 큰폭으로 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高度成長과 함께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한 기존도시의 대형화와 신도시 및 공업도시의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農水產物의 流通이 大量化, 廣域化 되어 소비지의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짐에 따라 더욱 발달된 유통시설과 수단을 必要로 하고 있으나 水產物 流通의 構造 및 經路의 개발이 소비지의 확대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流通의 역할은 生產者로부터 最終 消費者에 이르기까지의 需要와 供給을 원활하게 하여 生產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水產物은 그 特性上 일시 다회이나 기대외어종의 출현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情報傳達이 어려워 生產과 동시

에 식품원료로서의 價值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통방법의 改善이나 유통단계축소 등의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水產物의 生產과 유통상 特性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바 있으나 수산물의 유통경로 및 구조의 현황, 그리고 消費地域의 消費性向 등을 살펴 봄으로써 수산물 유통의 당면과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水產物 流通經路

水產物의 유통은 제도권 「市場流通」과 제도권 都賣市場을 경유하지 않는 「場外流通」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流通機能을 수행하는 水產物市場도 연안(산지)시장과 내륙지(소비지)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안시장은 전국 연안어항 176개소(회원수 협회판장 173개소, 수협중앙회회원수 협회판장 2개소, 공동어시장 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내륙지 시장은 22개소(수협공판장 9개소, 수산물도매 시장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전국 내륙지 수협공판장 및 水產物都賣市場의 現況은 <표3>과 같다.

강원도의 수산물 시장은 연안시장이 6개소, 내륙지시장이 1개소가 있다. 연안시장에 상장된 物量은 대부분이 수도권 시장으로 搬出되

<표3> 전국 내륙지 수협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 水協共販場

공판장	소재지	개장년월일	경매장(평)	'87 거래실적 물량(톤)	'87 거래실적 금액(백만원)
서울	서울 동대문 용두동	78. 2. 1	850	52,221	23,114
가락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	85. 6. 10	600	15,492	13,628
춘천	춘천 효자동	79.12.29	203	1,843	1,322
청주	청주 사직동	80. 5. 22	204	5,053	3,399
대전	대전 중구 오류동	80.12.17	203	2,767	2,852
전주	전주 금암동	80.10.30	218	4,180	3,219
광주	광주 북구 신암동	80.12.16	200	4,198	3,958
대구	대구 동구 신암동	65.12.31	845	12,187	5,446
진주	진주 인시동	79.12.27	203	2,987	2,103

○ 水產物 都賣市場

시장	소재지	개장년월일	경매장(평)	'87 거래실적	
				물량(톤)	금액(백만원)
노량진수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5. 4. 1	3,586	129,665	123,658
강동수산	서울 송파구 가락동	85. 6. 19	1,400	72,412	60,149
서울건해산물	"	85. 6. 14	1,000	36,571	110,062
대구건해산물	대구 북구 칠성동	87. 3. 25	500	1,874	3,526
광주수산	광주 서구 양동	61.12.12	215	10,458	6,357
대전수산	대전 동구 오정동	87.11. 2	599	12,847	7,315
충주수산	충주 성서동	67. 4. 1	72	638	485
전주수산	전주 전동	63. 6. 13	167	1,409	1,372
이리수산	이리 인화동	58. 4. 23	152	1,028	966
울산중앙수산	울산 중구 학산동	64. 3. 17	217	1,904	1,900
울산건해산물	"	70. 8. 12	78	329	830
포항수산	포항 죽도동	68. 9. 20	152	2,139	2,469
경주수산	경주 성진동	63. 9. 6	600	2,932	2,710

고 있으며 강원도내 내륙지시장(수협 춘천공판장, 춘천시 효자동)은 강원도 수산물보다 남·서해안 및 원양어획물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도내 生產魚種의 단순성과 영서지방의 기호도, 遠洋漁獲物의 低單價(연안어종대비) 등에 기인된다고 보겠다. 강원도내의 연안시장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강원도 연안(산지)시장 현황

수협별	위판장명	소재지	위판고 '88		
			물량 (톤)	금액 (백만원)	주어종
고성군수협	거진항 [대진항 아야진항]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1,202	10,227	명태
속초시수협	속초항 [대포항 동명항]	속초시 중앙동	9,946	12,241	오징어
양양군수협	남애항 [동산항 기산문항]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	3,298	3,000	잡어
명주군수협	주문진항 [사천진항]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9,379	9,731	오징어
동해시수협	북호항 [삼척항 임원항]	동해시 북호동 삼척시	9,200	9,809	오징어
	6개소		11,991	5,654	잡어

특집

우리나라의 水產物 유통경로는 전국 176개 소의 연안(產地)시장에서 강제상징제로 위탁, 경매방법으로 위판되어(수산업법 제48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내륙지(消費地)市場으로 搬出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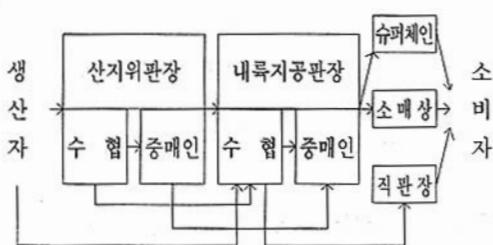
內陸地市場의 구조는 水產物 都賣市場과 수협 공판장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연안위판장에서 강제상장 競買된 水產物은 內陸地市場으로 옮겨와 임의상장제, 委託競買를 거쳐 산매되고 있어 결국 형식경매에 의해 2차가격이 재형성된다고 보겠다. 그 流通段階는 <그림1>과 같이 4~7단계로 형성된다.

으로 78년 서울, 79년 춘천으로 확대, 현재에는 전국 주요도시에 9개소의 市場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수산시장과의 競爭 및 역할상충으로 많은 부작용이 發生하였으며, 설립 초기에 기대했던 流通改善의 시범적 선도역 할을 얼마나 수행하였느냐 하는 기여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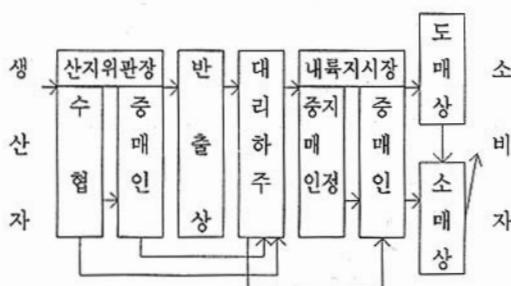
그 개선점으로는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개선,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세분화하여 소비자와 더욱 가까운 거리까지 流通經路가 도달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共販場의 黑字經營도 實現하여 공판장 주위의 위성시장 확대를 위한 원동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1> 水產物出荷經路

A : 수협 계통출하



B : 일반 출하



水協의 계통출하사업은 生產地와 消費地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중간이윤 감소효과로 生產者와 소비자를 동시에 保護할 目的으로 65년 대구공판장을 시작

2. 수산물 유통관련제도 및 유통성향

우리나라의 水產物 流通制度를 살펴보면 우선 流通關聯 行政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다. 행정조직별로 關聯業務를 分類해보면 아래와 같다.

經濟企劃院 : 물가공정거래

商工部 : 유통산업육성

保社部 : 위생보건

農林水產部 : 생산, 유통(생산자이익)

商工部 : 수출, 수입

國稅廳 : 부가가치세

또한 수협조직의 역할로 產地流通은 유통부, 소비자유통은 販賣事業部로 나뉘어 執行되고 있어 유통개선에 제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물 도매시장을 開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고 지점도매인으로 하여금 運營케되어 있으며(농림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협장이 產地와 內陸地의 共販場을 開設할 경우는 市地域內는 水產廳長의 승인을, 시지역외는 수협중앙회장의 承認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消費地의 제도

권시장은 水產物都賣市場과 水協共販場이 있으나, 都賣市場으로 許可를 받지 않고 소매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유사도매시장 20개소가 편법 운영되고 있어 제도권시장의 公正競爭力이 약화되고 있다. 그 원인 중 稅制問題가 가장 크다고 사료된다.

<표5> 指定仲買人과 類似都賣商과의 유통세제 비교

구 分	중 매 인	유사도매상
업 태	도매 또는 서비스	도매 또는 소매업
세무 보고	수매 전액보고	비 노출, 은폐
부가가치세	수입액의 3.5%~10%	-

제도권시장도 일반 水產物都賣市場의 상장료가 5.5%로, 수협공판장의 3.7%보다 1.8%가 높아 제도권시장간의 경쟁이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표6> 水產物 가격안정사업 내역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별	'87년도		'88년도		'89년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01,931	88,612	251,222	97,541	217,255	106,066
정부비축	3,753	13,692	7,702	18,971	5,800	23,666
민간가격안정	198,178	53,150	243,520	55,600	211,455	57,900
출하조절	29,109	10,000	38,000	10,000	21,760	8,000
냉동보관	110,392	21,000	124,140	23,000	96,440	24,000
가공판매	31,475	9,200	49,250	10,400	54,520	11,500
수출촉진	27,202	12,950	32,130	12,200	38,735	14,400
출하촉진등		21,770		22,970		24,500

政府의 價格安定業은 農水產物 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수산물 중 도매물가 가중치가 크고 단경기가 분명하며 취급관리가 용이한 김, 간미역, 건멸치, 冷凍 오징어, 건오징어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87년도에는 886억 원의 자금으로 202천M/T을 수매조절하였으며, 88년도에는 97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6>.

水產物 가격안정사업은 강원도 주요 生產物 중 오징어流通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속 확대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수산물의 소비성향

우리나라 食糧消費構造는 아직은 穀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國民所得水準向上과 함께 '70년대초부터 穀物消費量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수산물消費量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量的, 質의 변화가 점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통 및 저온유통의 발달과 함께 염장, 건어물의 需要 비중이 감소하면서 선어의 流通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공기술의 발달과 유통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활어와 加工食品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수산물需給動向을 보면 <표7>과 같다.

<표7> 연도별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년도별	'70	'80	'83	'84	'85	'86	'87	'88 (전망)
총공급량	935	2,451	2,859	2,994	3,194	3,387	3,759	3,930
공급	생산	935	2,410	2,793	2,910	3,103	3,660	3,332 3,300
	수입	-	41	66	84	91	127	427 630
수요	수출	158	696	699	764	867	1,236	1,335 1,400
	내수	777	1,755	2,160	2,230	2,327	2,551	2,424 2,530
인당연	계	17.3	27.0	38.1	37.6	37.2	41.8	40.5 41.0
간소비	어폐류	14.7	22.5	31.5	31.0	20.7	32.7	33.6 33.9
량(kg)	해조류	2.6	4.5	6.6	6.6	6.5	9.1	6.9 7.1
일본	어폐류	31.6	34.8	35.5	35.7	35.8	35.8	
	(kg)							

88년도 水協中央會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거 消費地의 購入행태 및 소비성향을 分析해보면, 水產物의 기호도에 있어 좋아한다 69.9%, 싫어한다 1.3%이고, 기호이유는 가족들의 기호 28.8%, 영양가 높음 27.0%, 成人病豫防 등 健康食品 25.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食品과는 비교한 기호도는 가장 좋아하는 식품으로는 과일류가 30.8%로 가장 높고, 이어 菜蔬類 27.9%, 水產物 21.5%, 畜產物 19.8% 순으로 나타나 수산물 嗜好度가 畜產物보다 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8> 수산물 기호정도

계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	아주싫어한다
454	82	236	131	5	1
(%)	18.0	51.9	28.8	1.1	0.2
100.0	(69.9)		(1.3)		

<표9> 수산물 비교기호

계	축산물	수산물	채소류	과일류
445	90	98	127	140
100.0%	19.8	21.5	27.9	30.8

또한 좋아하는 水產物의 種類別 순위는 鮮魚類가 50.8%로 전체의 반이상을 점유하고 海藻類(22.6%), 乾魚類(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鮮魚類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해조류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0>.

<표10> 수산물 종류별 기호도

계	선어류	건어류	해조류	젓갈류	패류	수산가공물
454	231	44	103	14	27	35
(%)100.0	50.8	9.7	22.6	3.1	5.9	7.7

<표11> 가족별 수산물 기호정도

계	부	모	남편	주부	자녀
452	30	28	196	99	99
(%)100.0	6.6	6.2	43.1	21.8	21.8

가구의 構成員(가족)別 水產物 기호정도는 남편이 43.1%로 가장 높으며, 이어 주부와 자녀가 각각 21.8%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嗜好程度 構成比가 높아지고 주부의 구성비는 낮아지며, 주부의 學歷이 낮을수록 자녀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1>.

魚種別 選好順序를 보면 오징어가 최고점수 2,275점 대비 1,201점으로 1위이며 조기, 김, 갈치, 꽃게, 고등어 順으로 이어지며, 階層別로 볼때 대부분의 계층에서 오징어가 1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國卒以上 주부들에게는 김, 직장을 다니는 주부에서는 갈치, 그리고 所得 100만원 이상의 가정에서는 조기가 1위로 나타나고 있다<표12>.

<표12> 어종별 기호순위

어 종	점 수	순 위	어 종	점 수	순 위
고등어	537	6	꽃 게	647	5
갈 치	854	4	홍 어	171	12
오징어	1,201	1	굴	279	9
조 기	892	2	파조개	47	14
명 태	275	10	낙 지	318	8
가자미	135	13	김	878	3
새 우	356	7	미 역	226	11

(최고점수 : 2,275)

上記 魚種別 선호도를 보면 강원도 主產物인 오징어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명태가 10번째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水產物 구입선을 보면 일반시장이 53.6%로 가장 높고, 이어 슈퍼마켓 및 直賣場이 26.8%, 都賣市場이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시장의 利用構成比가 커지며, 學歷이 높을수록 슈퍼마켓 및 직매장의 이용 구성비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主購入線이 일반시장인 이유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家族數

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價格이 저렴한 것을 추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新鮮度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水產物의 品質管理

水產物은 부패성이 강하여 品質管理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水產業의 2,3차산업 수행단계보다 1차산업 수행단계에서의 品質 management가 더욱 중요하다.

政府에서는 수산물의 鮮度 및 規格 management를 위해 「水產物包裝 및 容器에 관한 規則(農水產部令)」에 의거 어상자, 굴, 홍합, 우렁쉥이의 容器, 바지락의 포장 등의 취급방법을 정해 지도(水產行政, 水協) 및 감독(수산물검사소, 수산물위탁검사원)하고 있다. 水協에서는 수산물의 包裝改善과 標準去來單位 정착을 위해 매년 「규격포장재 출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행정 및 수협의 指導力 미흡과 仲買人의 개선의욕 부족, 특히 어민들의 보수성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13> '89수협별 규격포장재 출하조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협별	금액	지원대상 어종별	비고
옹진군수협	490,000	새우젓 100,000 굴 44,000 꽃게 346,000	재원 : 농안기금 금리 : 연리 3% *소요자금의 60%
신안군수협	300,000	새우젓	
강화군수협	300,000	새우젓	
여수수협	966,000	마른멸치	
완도군수협	181,000	마른멸치	
양산군수협	72,000	멸치젓	
삼천포수협	73,000	마른멸치	
기선권형맹수협	805,000	마른멸치	
굴수하식수협	241,000	굴	
계	3,428,000		

1989년도 水協別 규격포장재 출하조절 지원내역은 <표13>과 같다.

遠洋漁業은 低溫施設과 船上加工施設등 品質管理 수준이 國제적인 水準에 도달해 있으나, 연안어업이나 소형어선 어업일수록 미흡하다. 유통경로 및 유통시설 면에서는 우선產地의 揚陸 및 판매시설이 미흡하고 作造施設이 前近代의 이어서 생선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양육항구의 水質汚染度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產地와 消費地 특히 場外 거래 및 유사도매시장의 변창으로 선도 및 위생처리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유통 최종단계에서 分散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소매상의 저온시설기능이 아직은 많이 미흡한 단계에 있다.

수산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品種이라 하더라도 規格과 품질이 달라 去來單位나 용기를 標準化, 規格화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公正去來秩序를 위해 꾸준히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容器나 包裝材로는 木材魚箱子, 골판지 合成樹脂, 절재통, 스치로풀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종류별로 일정한 規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어물류나 海藻類, 鹽藏類 등은 加工過程에서 많은 불순물과 접하게 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대개 상인들 임의대로 P.P마대나 크라프트지 등에 넣는 등 品質管理와 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다.

거래단위 또한 상자, 팬, 짹, 쇠, 통, 드럼, 속, 축, 판, kg, 마리, 급(두름) 등 복잡다양하여 품질관리상의 문제와 함께 消費者的 혼란으로 인한 信賴度 상실로 구매의욕을 저하시켜 상품성 제고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주어종의 流通을 살펴보면 오징어는 선동의 경우 냉동팬으로 상장, 냉장고에의 저장을 거쳐 出荷되며 일부가 P.E필름에 포장, 골판지 상자에 넣어 출하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物量이 非包裝狀態로 消費地 小賣商까지 流通 販賣되고 있어 鮮度 및 衛生管理가 문제시되며, 팬 規格은 8kg으로 통일되고 있으나, 大(L), 中(M), 小(S), 小小(SS)로 구분하는 魚體別 크기 選別은 生產時期마다 각각 基準이 다르게 冷凍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선어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급(두름)당으로 거래되며, 활어의 경우는 계절과 생산량의 다소에 따라 급(두름), kg, 미(尾)등이 혼용 거래되고 있다.

천오징어의 경우 측으로 流通되고 있으며, 상인의 임의대로 규격이 구분되어 P.P대로 포장 거래되어 品質管理와 위생상의 問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遠洋(뉴질랜드, 포크랜드)오징어와의 混合과 건조 가공형태의 위장등으로 消費者의 혼란과 不信을 동반하고 있다.

III. 江原道 水產物의 流通現況 및 改善方向

1. 강원도 水產物의 流通現況

강원도의 流通 水產物은 도내에서 生產되는 수산물(연근해어업, 내수면양식)과 외지에서 반입되어 산간(대관령, 진부령) 및 동해안 지역에서 가공 반출되는 원양어획물(명태, 오징어)로 대별된다.

遠洋漁獲物의 搬入加工은 강원도의 自然條件과 加工技術人力 보유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진출과 함께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流通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원양어획물이 반입되는 한은 계속해서 활발한 加工流通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遠洋漁獲物 加工水產物은 國內需要뿐만 아니라 輸出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지반입 가공 유통수산물에 대하여는 다음기회에 考察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沿岸水產物을 중심으로 한 流通現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道內 沿岸水產物은 대부분 產地市場인 수협공판장을 통해 상장되어 內陸地市場으로 出荷, 일반 수산물도매시장과 수협공판장을 경유하는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장외(유사도매시장)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產地에서 주로 場外流通되는 어종은 조개류와 기타 수산동물(해삼, 성게, 우렁쉥이)을 들 수 있으며 이중 성게는 전량이 輸出되고 있다.

도내 산지제도시장(수협위판장)을 통해 위판 유통되는 沿近海水產物은 '88년의 경우 총 55,019M/T에 50,665백만원이며 이중 물량으로는 어류가 38,336M/T(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軟體動物이 26,135백만원(51%)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總生產中 명태가 17%(9,124M/T), 오징어가 23%(12,886M/T)를 차지하여 주어종이 되고 있으며, 반입가공되는 원양어획물 또한 北洋명태와 원양오징어로 강원도의 주수산물 및 特產物은 명태와 오징어라 하겠다.

강원도의 주어종인 명태와 오징어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이나 國民經濟의 急成長으로 消費地 및 消費者들의 住居環境과 飲食文化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생산 및 유통 형태는 수십년간 根本的인 변화(發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명태는 자망과 연승어법으로 어획, 급당 및 kg당으로 위판되어 선어는 나무상자에 입상 출하되며, 일부는 할복 덕장(건조장)에서 건조되어 쾨와짝(30 쾨)으로 出荷되고 내장은 명란과 창란점으로 가공 출하된다. 오징어는 대부분 船上에서 8kg의 팬으로 냉동되어 상장 위판, 냉동팬으로 Cold-Chain을 통해 수요의 탄력에 對應하며 出荷되고, 일부가 乾

<표14> 1988년 강원도 수산물계통 판매고
(생산지 시장)

(단위 : 톤, 백만원)

월별 구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계
1 수량	4,114	129	1,371	6	5,620
	금액	2,960	235	2,448	4,721
2 수량	3,562	72	1,241	2	4,877
	금액	2,462	266	2,313	5,050
3 수량	3,158	190	1,307	2	4,657
	금액	2,160	376	2,297	4,844
4 수량	2,533	97	300	3	2,933
	금액	1,232	248	425	1,914
5 수량	4,862	215	540	4	5,624
	금액	1,685	245	852	2,808
6 수량	3,027	204	598	8.8	3,837.8
	금액	1,229	174	852	2,395
7 수량	1,072	163	685	5	1,925
	금액	762	164	910	1,869
8 수량	1,640	210	1,992	5	3,847
	금액	747	159	2,768	3,681
9 수량	2,322	123	2,928		5,373
	금액	857	112	4,811	5,780
10 수량	3,515	144	1,769	0.2	5,428.2
	금액	1,774	163	3,167	5,111
11 수량	4,252	38	350	1	4,641
	금액	1,780	80	807	2,689
12 수량	4,276	170	1,802	8	6,256
	금액	4,108	198	4,485	8,803
계 수량	38,336	1,755	14,883	45	55,019
계 금액	21,756	2,420	26,135	354	50,665

燥場에서 乾燥되어 축 단위로 유통되고 있다.

도내 주어종에 대하여는 消費地의 핵가족화와 고급 가공품 선호경향에 맞추어 유통단위와 1차가공방법의 지속적 개발로 상품성을 제고하여流通의 質的隔差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產地의 場外流通水產物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88년의 경우 道內 수산물 總生產 83,398M/T 중 55,019M/T이 계통판매되고 28,379M/T이 場外流通되고 있다. 연안에 산재되어 있는 소항포구에서 잡어류가 연중 장외유통되고 있으며, 전량 수출되는 성게의 장외유통은 固着化 되어 있는 상태로 제도의 적용이 절실하며, 패류 또한 전량 불법채취되어 장외유통되는데, 이는 어업허가를 양성화하여 정상유통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2. 강원도 수산물의 流通改善方案

水產物의 流通改善를 生산지와 소비지를 망라한 제반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水產物 流通關聯制度 改善, 소비자제도시장 확대, 유통경로 개발, 유통단계 축소, 포장개선 및 품질관리, 消費性向 分析適用, 저온보관운반 판매시설 확충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問題點을 도출, 多角的이고도 長·短期的인 分析檢討,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 수산물의 流通改善方案을 살펴본 후, 강원도 수산물 유통을 產地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기초적인 範委內에서 개선방안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流通構造의 확충으로 水產物의 分散機能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권시장은 水協共販場 9개소와 水產物都賣市場 13개소로,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全國的인 分散機能이 미약한데다 근래에 신도시 및 工業都市들이 급속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우선 新都市와 전국 중위권 都市까지 제도권시장을 확대, 水產物의 분산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도매시장의 확대와 함께 핵가족화에서 비롯되는 소비자들의 소량다회(小量多回) 및 단거리 구매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매장 내지 小賣商의 확대가 Cold-Chain화

와 병행, 住居地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직매장 내지 소매상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단거리에서基礎調理가 가미되는 수산음식문화를 발전시켜 수산물 보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流通效果를 제고하여야 하겠다.

수산물은 생산자로부터 4~7단계를 거쳐消費者에게 도달되고 있으며, 유통단계별 중간마진과 선도저하(商品性低下)율이 가중됨은 물론이다. 유통단계의 단축은 流通構造의 확대 및 개선과 병행·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나 우선 短期的으로 수협계통출하를 확대細分化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다획어종에 대하여는 產地水協에서 일반 내륙지도 매시장의 대리하주나 都賣商을 상대로 한 직접판매도 과감하게 확대 시행, 양적인 유통단계 축소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통관련제도를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運營하고, 적절치 못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제도적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流通行政組職이 단순화되어 市場開設 및 運營에 있어 제도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제도권시장의 공정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陽性化 내지 整備를 위해서는 制度를 強하게 적용, 유통행정 指導力を 제고시키고 정상유통분위기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水產物 價格安定事業은 계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水產物의 불확실성 및 일시다획성을 감안, 현실적인 計劃과迅速한 업무운용으로 적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그 效果를 極大化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년에 크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遠洋漁獲物과 沿岸水產物과의 상충관계는 수산물 輸入開放과 함께 국내의 水產物流通에

많은 문제를 부여하고 있는 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長期的이고 根本의 研究가 필요하며 短期的으로는 수산물 價格安定事業의 적절한 확대적용이 効果的일 것이다.

넷째, 多角的인 품질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수산물의 品質管理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획에서 產地市場의 상장과 出荷段階이므로 산지위판장의 시설미흡이 보강되어야 하겠고, 어종별 경매방법도 품질관리를 우선과제로 개선해나가야 하겠다.

특히 어민과 산지 및 소비자 공히 유통조사자들의 品質高級化 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산행정이나 水協의 지도형태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바, 專門教育制度를 도입, 어민 및 유통조사자들의 水產物 취급의식 고급화를 實現, 水產物需要의增加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生產地부터 消費地까지의 저온보관운반시설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근래 생산지 消費地 공히 冷凍 및 냉장보관시설이 대규모 단위로 보급되고 있으나 유통최종단계에서는 백화점이나 슈퍼체인을 제외하고는 냉동쇼케이스 보급이 미흡하여 선도관리 및 衛生管理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정책적인 측면에서 小賣商의 냉동쇼케이스 보급 확대 方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產地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水產物의 유통개선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產地水產物의 場外流通 縮小

강원도 水產物 總生產 83,398M/T 중 34.3% (28,379M/T)가 비계통으로 流通되고 있으며, 이중 海藻類(100%, 6,254M/T)와 기타 水產動物(98.75%, 3,543M/T)은 거의 全量이 場外流通되고 있다.

產地委販을 담당하고 있는 水協의 역할을

<표15> 어류별위판율

(단위 : M/T)

구 분	합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수산물
생산량	83,398	49,074	6,611	17,871	6,254	3,588
계 통	55,019	38,336	1,755	14,883	—	45
비계통	28,379	10,738	4,856	2,988	6,254	3,543
위판율(%)	65.97	78.12	26.54	83.28	—	1.23

強化하기 위해 부족한 유통종사인력을 보강하여 중소항포구의 위판율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타수산물의 주비계통 어종인 성게는 객주의 전도금을 통한 去來形態로 수집, 수출상사에 집하되어 수출되고 있다. 성게의 場外流通形態는 全漁村에 오랫동안 固着化되어 오고 있어 정상유통화하는데 따르는 난제와 부작용이 클 것이지만, 유통秩序 확립을 통한 장기적인 漁民所得增大效果도 크게 기대되는 바, 水協은 물론 水協行政指導도 強化하여 施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냉동냉장시설 확장

강원도 산지 및 가공지역의 냉동및 냉장보관시설 용량은 도내 수산물과 원양어획물(명태, 오징어)의 수용용량에 크게 未達하고 있어 일시다획 어종이 발생할 경우 냉동가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동오징어의 경우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수도권 지역의 보관시설을 사용하기도 하며 원양어획물은 대부분 국내 반입항인 부산에 보관, 陸路를 통해 수시 반입되어 운송비로 인한 원가가중과 선도저하의 損失을 보고 있다.

냉동냉장시설의 확장구성조건은 자금과 부지이다. 政府의 農漁村活性化方案으로 매년 施設資金이 支援('89년 : 3건, 2,880백만원)되고 있으나 資金規模가 확대되어야 하겠고, 부지의 용도허용도 農漁村活性化 측면에서 완화·적용하여 냉동냉장보관시설의 시설의욕을

고취시키고 水產流通施設의 기본구조 확대를 기하여 沿岸水產物의 流通緩衝役割은 물론 원양어획물 揚陸指定港인 주문진 및 묵호항을 통해 도내에 직접 반입케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통단위 小型化와 품질개선

道內 生산 및 加工水產物은 自然產을 주로 하고 있으며, 流通單位 및 加工形態의 변화가 嗜好度의 變化에 적응치 못하는 유통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어종인 명태, 오징어의 유통 단위는 선어, 乾製品 공히 소비자의 小量多回 구매성향에 맞추어 小包裝化해야 할 것이다.

생명태는 현재의 나무상자 입상유통에서 백화점 및 슈퍼체인 판매용으로 진공포장을 통한 미(尾)당 포장단위까지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건명태는 「쾌」의 유통단위 概念에서 탈피, 미당 概念으로 變化시켜야 하며, 건명태체도 산지에서 加工 소포장(병, PE필름등)하여 반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어종 乾燥加工品의 연질화가 계속開發되어야 하겠다.

消費地의 加工水產物에 대한 嗜好性向은 경질에서 연질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향후 더 확산될 전망이다. 명태의 연질가공화는 '87년 속초지역에서부터 시도된 바 있다. 명태를 반건조(수율 : 선어대비 50~60%), 냉동, 포장을 高級化(글판지상자 포장)하여 消費地로 반출, 快速分散시키는 방법이다. 이 形態의 流通이 시도되자 소비지의 좋은 반응을 얻게되어 고성 및 주문진지역으로 가공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행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品質 및 衛生管理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수산물의 품질개선과 特產化를 통한 유통개선을 위해 도내수산물의 食品開發을 전문으로 研究하는 研究機關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강원도 東海出張所와 國立水產進興院 주문진수산연구소가 연안에 死藏되어 있

는 自然產 海藻類를 경제성화하기 위해 자원 조사와 수출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水產食品開發 전문기관의 개설에 앞서 도내 각 대학교의 식품공학부서에 도내 수산물의 식품개발 연구를 의뢰, 장려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수협연쇄점의 활성화

수협연쇄점은 어민의 생활용품 공급과 수산물 직매장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수협의 재무구조 취약, 인력부족 및 개발의지 부족으로 일부組合을 제외하고는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협연쇄점의 수산물직매장 역할은 消費者들의 선택구매상 碩路가 되고 있는 수산물의規格, 鮮度, 呈質의 판단상 혼란과 불신의 배제 및去來方法상 신용을 수반할 수 있는長點이 있고, 국미들의 레저생활 확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生產地 방문구매의욕을 充足시킬 수 있는 여건 및 소비자와의 우편거래등 거래방법의 다양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도내수협중 水產物直賣場의 정상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속초시수협의 연쇄점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86~'88 3개년간 전오징어 59,626축, 냉동오징어 73,710팬을 소매하여 特產品의 分散普及에 効果를 거두었으며, 87년부

터 실시한 消費地의 우편주문판매는 87년에 2,124축, '88년에 5,624축을 판매, 264%의 신장률을 보여 產地와 消費地간의 직접유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표16>

<표16> 속초시 수협 수산물 직매장 판매 실적

(단위: 축, 팬 금액: 천원)

년도별 구분	'86		'87		'88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 오징 어 (축)	11,986	131,678	17,172	207,291	30,468	318,456	59,626	657,425
냉동오징 어 (팬)	20,737	330,880	16,074	240,988	36,899	515,194	73,710	1,087,082
기 타 수산물		21,677		17,379		19,936		58,992
계	484,235		465,658		853,586		1,803,479	
우편주문판매 (전오징어:축)			2,124	37,487	5,624	90,459	7,748	127,946

道內 수산물 유통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수협이 지닌 난제에도 불구하고 수협연쇄점은 정상운영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우편판매제도등去來方法의開發로 산지와消費地間의 직접유통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특집 ■

‘화해와 용서’ 보여준 뜨거운 무대

— 제17회 서울연극제 총평 —

김 윤 철

세종대 교수·연극평론가

1993년도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의 공연이 지난 10월10일자로 막을 내렸다. 한국연극계의 최대잔치인 이 연극제는 올해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연극계의 여론에 따라 회곡심사 위주로 참가작을 선정하던 종전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실연심사의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7편의 참가작 가운데 <남사당의 하늘>, <백마강 달밤에>, <박사를 찾아서>, <탈속>등 네 편이 실연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상화와 상화>,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춤추는 시간여행>등 회곡심사를 통과한 작품의 수보다 오히려 한 편이 많았다. 이는 주최측이 딱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울연극제의 성격이 경연대회로부터 대동잔치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년의 서울연극제가 지난 어느해보다도 평이 일반적인 평가일진대 이 연극제의 방향 전환은 일단 긍적으로 가늠된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위상에 따라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이니셔티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연극제의 국제연극제화를 적극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는 연극계 일각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마당에 실연심사 통한 초청공연의 축제형식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실연심사제도의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무대만들기가 진일보한 고른 수준을 보인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번 연극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제면에서 발견된다. 문민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유난히 강조되는 용서와 화해의 외침 때문일까. 일곱 편 가운데 <백마강 달밤에>, <상화와 상화>,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춤추는 시간여행>등 네 편이 한국사의 불행한 이정표들, 이를테면 백제의 멸망, 일제의 지배, 6·25, 광주민주화항쟁 등을 직접 소재로 취하거나 국의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방법을 연극적으로 모색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에 거울을 들이대는 연극의 본질적인 사명과 기능을 우리의 연극인들이 충실히 섬겼다는 반증이 되겠다.

주제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네 작품 모두 정치·이념적 대립의 가능성이 놓후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메시지 중심의 직접

적인 호소보다는 연극적 구성을 통한 예술적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연극예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무척 다행스런 접근법이었다.

<박사를 찾아서>는 위의 네 작품들과는 달리 조직의 폭력과 개인의 희생이라는 몹시 사회적인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고, 나머지 두 작품, 즉 <남사당의 하늘>과 <탈속>은 예술가와 종교인의 구도를 그린 극이었는데, 이는 최근 정치·이념극의 퇴조를 타고 우리 연극계에 자주 등장하는 주체라고 하겠다.

뚜렷한 수작은 없지만 불거리가 제법 풍성했던 '93서울연극제, 먼저 용서와 화해의 방법 찾기를 시도했던 작품부터 뒤돌아본다. 참고로 <남사당의 하늘>과 <상화와 상화>에 대한 평은 필자가 한국일보에 6월23일자 및 9월14일자로 기고한 연극평을 다소 보완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목화의 <백마강 달밤에>

근자에 글쓰기와 무대만들기에서 충청도의 언어와 문화를 민족정서의 중심 기호로 연극화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태석은 이 극에서 충청도의 한 마을이 벌이고 있는 대동제의 형식을 빌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킨다.

극은 대동굿을 주제하는 박수무당 영덕(정진각)과 노무당(정은표)의 양녀 순단(정은영)이 당집 병풍에 그려진 산신(손병호)과 천신(이상희)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망국의 한을 품고 중국명부를 혜매고 있는 백제 최후의 의자왕과 백제 조신 및 장군을 만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이야기다.

명부의 장면에서 순단은 금화라는 전쟁의 신으로, 영덕은 백제 장군의 신으로 의자왕 일행을 만나서 해원과 화해를 중재하므로 얼

핏 극의 화해 찾기가 과거에 머무는 듯 싶지만 역으로 금화와 백제 장군은 각각 오늘의 순단과 영덕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의 화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금화는 합리와 민주를 바탕삼는 오늘의 사관으로 백제 멸망을 자초한 의자왕의 어리석음, 유교적 사상을 펴뜨려 국민의 정기를 죽게 만든 성충의 대역, 죄 없고 힘 없고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계백의 잘못된 용기 등을 질타하는데, 이로써 극이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극단 목화의 「백마강 달밤에」

와 현재의 진정한 만남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의 현재적 시의성은 순단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이국의 명부를 혜매고 있는 원귀들을 모셔다가 당집에 들이고서 정성껏 제사를 들여줌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번영을 축원하는 대동제를 벌이는 극의 틀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 이승과 저승을 유머러스하고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오태석의 풍요한 상상력과, 정진각·정원중·손병호·정은표·이용구·이명호·홍원기등 오태석 연극학교의 문법을 깊이 있게 소화해 내고 있는 광대패들의 여백이 많은 여유작작한 연기, 단순하지만 상징과 해학이 풍부했던 정은표의 무대미술, 극장주의적 무대개념을 심분

살린 아이카와마사아키의 조명디자인, 양악으로 우리의 정서를 효과있게 뒷받쳐준 김영덕의 음악 등이 이 극의 무대만들기를 빛나게 해주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명부와 마을의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대동제의 기능이 극의 틀짜기에 한정되었던 점이다. 명부원귀들의 거울적인 등장인물들이 마을 사람들 안에 구현이 되었다면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반영하면서 극의 목표하는 화해를 연극적으로 보다 실팽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중의 <상화와 상화>

제목이 특이한 이 극은 1920년대의 불행한 시대를 배경으로 민족시인 이상화가 현실도피적 탐미주의자로부터 현실참여를 부르짖는 혁명시인으로 마침내는 탐미와 현실을 조화시킨 서정적 저항시인으로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상화(想華)와 상화(尙火)는 모두 이상화가 실제로 사용했던 호다.

극에서 상화(想華, 송승환)는 일제치하 민족의 불행을 온 몸으로 맞서 싸우고자 했던 혁명가로서의 시인을 대변한다. 한 예술가의 내면적 균열을 드러내는 작가 최현묵의 분신기법이 독특하다.

민족의 수난을 철저히 외면하는 비겁한 상

화(想華)에게 상화(尙火)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고, 정치적 이념을 내세워 사랑까지도 묻어버리는 상화(尙火)에게는 상화(想華)가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호소하게 한다. 작가는 또 두 상화에게 서로를 위한 해설자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극의 흐름을 유연하게 한다. 사회적 풍경으로서의 시적 함축미가 풍부한 장면구성, 인물들의 성격에 적합한 언어 등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고 있다.

극이 후반부에 이르면 글씨기에 문제가 드러난다. 상화(想華)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달리 상화(尙火)가 중심이 되는 후반부는 인물창조와 사건의 구성이 행동화되지 않고 관념에 머물러 극의 진행이 산만하고 완만해진다. 그 결과 상화와 상화가 함께 사랑했던 유보화(김현정)의 죽음으로 두 자아가 화해하는 마지막 장면에 정서적인 설득력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극은 한 분열된 개인의 화해를 넘어서는 사회적 의미를 띤다. 즉 상화(想華)는 순수예술주의를, 그리고 상화(尙火)는 참여예술주의를 각각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은 대립되는 사회적 가치의 상호수용을 통한 화해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극단이 서울연극제의 공식참가작으로 공연하고 있는 이 연극에서 박계배의 연출력이 단연 돋보였다. 그는 코러스를 적절히 사용하여 각 장면의 사회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특히 코러스들로 타블로(정지된 그림)를 구성하여 역사적 상황과 주인공의 내면갈등을 절묘하게 연관시켰다. 무엇보다 두 상화의 복잡한 심리적 관계들을 높이와 길이,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한 공간배치로 시각화함으로써 심리를 시각화하는 연출의 기본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회전무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잊은 장면 변화를 무리없이 수용하면서 역동적인 무대 그림을 가능케 한 최상철의 장치디자인, 극장



극단 민중의 「상화와 상화」

주의적 연출개념을 잘 섭긴 최형오의 다이내믹한 조명디자인, 장면의 정서를 강한 서정으로 끌어 올린 강선희의 음악이 인상적이다. 상화(想華)역의 이찬우가 편협한 자기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강하고 진실한 역창조를 이룩한 것도 이 가능성 많은 배우를 위해 서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통연희의 훈련이 부족한 배우들의 어설픈 춤, 뮤지컬 연극에서 코러스, 특히 주연급 배우들이 보인 한심한 가창력, 상화(尙火)로서 혁명가적 냉혈성과 기상을 뿜지 못한 송승환의 유약한 성격창조 등은 무대만들기의 취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신시의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6·25를 소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남파북의 이념대립과 그로인한 인간파괴에 초점을 두지만, 김상렬이 쓰고 연출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는 북쪽 출신들 끼리의 배반과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물론 작가는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작품의 모티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을 단순히 정치이념으로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잔해를 상징하는 폐차장을 배경으로 삼아 현대인의 흥악한 물질주의를 고발하고 과거에 저지를 죄는 진실하게 참회하고 고백함으로써만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화해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작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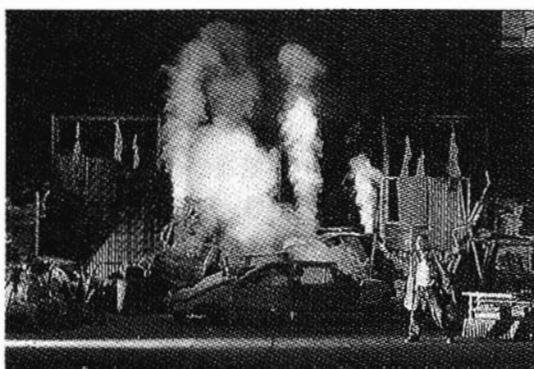
그러나 극에서 폐차장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시절 사상전향한 친구 백민우(김길호)의 동생을 죽창으로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안갑(윤주상)이 죄 깊은 과거를 은폐하고 오로지 부의 축적만을 꾀하는 장소로서 사왕되기보다는 순결한 신세대 준기(권범택)와 소영(나자명)의 아름다운 밀애의 장소로써 더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노린 바 물질주의에 대한 통시적 비판이 작품의 중심주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극은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안갑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 민우와, 과거를 잊고 ‘현재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두칠(양재성), 그리고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젊은 연인들 앞에서 자신의 극악했던 죄상을 고백함으로써 용서받는다는 화해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었다.

구조로만 가능한다면 비극적 가능성마저도 엿볼 수 있을 만한데 작가가 몇 가지 치명적인 악수를 범했기 때문에 연극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첫째, 신세대들을 부끄러운 역사에 끌어들여 역사에 참여케 한다는 발상은 좋았으나 준기와 소영이 살아있는 등장인물로서 극의 메인 플롯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작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한정되었다. 안갑과 준기의 의사 부자관계가 강화되었더라면 안갑이 자신의 끔찍했던 죄상을 고백하는 자리에 준기가 있어야 할 당위성이 보다 분명하게 마련되었을 것이다.

둘째, 극의 설명부가 너무 길어서 극진행이 완만하고 지루했다. 예를 들어 민우가 무슨 이유로 안갑에게 복수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민우가 약장사 두칠을 만났을 때 처음 암시되었다가, 두칠이 안갑을 찾아가 몸조심



극단 신시의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할 것을 경고할 때 다시 설명되고, 또 민우와 안갑 단둘이 대면할 때 세 번째로 자세히 진술된다. 이처럼 관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을 등장인물들이 뒤늦게 육화하는 상황이 극중에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연극에 필수적인 긴장감이 좀체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세째, 작가가 지나친 감상을 보였다. 안갑의 죽창에 찔려 죽었던 민철의 아내 숙경(박승태)이 그동안 안갑과 재혼하여 동거해 왔다는 설정도 자못신파적인 테다가, 그녀와 민철의 사이에 있었던 상수라는 갓난 아들이 40년이 지난뒤 삼촌 민우로부터 어머니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는 설정은 신파의 차원을 넘어 논센스에 가깝다. 또 상수를 스스로 고아원에 버렸던 숙경이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고 쓰러져 죽는다는 설정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차라리 그녀를 살려 둔 채 안갑이 그녀와 민우 앞에서 민철을 죽였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더라면 참회의 진실성을 홍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성 싶다.

김길호·양재성·박승태의 진솔한 역창조가 돋보인 반면, 윤주상의 연기는 매너리즘을 보였다. 작가가 스스로 연출한 이 극의 진행이 완만했던 것은 글쓰기 탓도 있었겠지만, 무대 만들기의 과정에서 강조와 종속을 적절히 배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강조하려는 자작연출의 함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춘추의 <춤추는 시간여행>

앞의 세 공연파는 다르게 이경식의 <춤추는 시간여행>만이 화해의 방법 찾기에 실패하는 과정을 담는다. 극은 13년 전 광주에서 진압군에 의해 가정을 파괴당한 한 연극 연출가(허현호)가 당시 그의 아내를 능욕했다고 믿어지는 남자(임규)를 납치하여 아내(안수빈)와 함께 그 폭력의 장면을 재연하는 이



극단 춘추의 「춤추는 시간여행」

야기다.

얼핏 일방적인 흑백논리가 극을 지배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임규가 연출가에 의해 납치당한 열두번째 남자라는 사실은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은 암시하는 한편 남자가 바뀔 때마다 아내는 그 치욕의 순간을 반복 상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강요하는 연출가의 가학성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다.

어쨌든 피해자인 연출가는 남자로부터 진정한, 그래서 감동적인 참회의 장면을 끌어내어 용서하고 화해 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연출가는 남자를 죽이고 새로운 배우사냥에 나선다. 존 파울즈의 <콜렉터>를 연상케 하는 극구성이다.

작가의 메시지가 연극언어로 전환되지 않아 인물들이 살아있게 창조되지 않은 점, 연극과 무대 만들기에 대한 토론이 너무 잦아 극진행이 방해받은 것, 똑같은 대사의 계속되는 반복 등은 이경식의 글쓰기가 갖는 문제점들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극의 가장 큰 결함은 마지막 장면의 처리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연출가가 새로 나타난 남자(임규)와 간이매점의 주인(정아미)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로 규정되는데, 이는 피해자로서의 연출가를 설명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극의

순환구조가 증거하는 바 그동안 많은 남자들과 아내를 희생시켜 온 가해자로서의 연출가의 정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순을 낳는다. 송관우의 미술, 박종찬의 조명은 극의 분위기를 잘 섬겨주었고, 임규·안수빈·정아미 등이 단순한 연기로 주인공을 성실히 보필했지만 정작 허현호는 연출가의 역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감한 시의성 있는 문제를 연극인들이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은 평가받을 만하다.

미추의 <남사당의 하늘>

극단 미추는 1년에 한편 꿀로 공연하는 과작의 단체다. 얼핏 생산성이 낮은 극단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그 한편에 쏟는 열정과 정성을 미루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완성도 높은 연극을 추구하는 치열한 장인정신이야 말로 이 극단의 최대 자산이다. 날렵연극이 적지 않은 우리 연극계에 귀감이 되기에 축하다.

연극을 종교처럼 섬기는 연출가 손진채과, 연극의 사회적 책임을 남달리 강조하는 극작가 윤대성이 <남사당의 하늘>로 이 시대의 혼탁한 세기말적 예술윤리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극은 여자로서 남사당패에서 줄을 탔던 바우덕이(김성녀)가 일제치하 신극의 유행으로



극단 미추의 「남사당의 하늘」

시세없어진 남사당패의 꼽두쇠가 되고 끝내 줄을 타다 낙상하여 죽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비록 구걸하지 않으면 놀이판과 끼니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멸시와 천대가 자심했음에도 하늘을 본향으로 삼아 천부의 재주를 지키며 역경을 꾃꼿하게 견뎌낸 안성 먹뱅이 남사당패들의 예술혼이 웅장한 스케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여기에 바우덕이의 몸을 끈질기게 탐내는 양반(윤주일)계급과 그에 기생하면서 하층민의 수탈을 돋는 중산층(송인현)에 대한 사회비판이 가해지고, 바우덕이를 가운데 놓고 그녀가 오라버니로 삼았던 배근과 양반집 도련님(이명수)이 벌이는 애정의 삼각관계가 흥미를 돋우고, 곰뱅이쇠(윤문식)의 결죽한 농과 사나운 입심이 유머를 더한다. 특히 장마 때문에 놀이판을 잊어버려 오래 깊주린 이들에게 양반이 두둑한 몸값으로 바우덕이의 몸을 요구해 올때 ‘재주는 팔되 몸은 팔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는 김노인(김종엽)을 밀어내고 나머지 사당패들이 그녀를 팔아넘기는 장면은 가히 압권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비극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남사당의 하늘>은 장엄과 숭고로써 비극을 소생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다. 바우덕이의 영웅적인 죽음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미추의 남사당패들이 한판 신명나는 풍물로 그녀를 배웅하는 마지막 놀이가 바로 그 증거다.

정파 동, 완파 급을 적절히 구사한 손진채의 선굵은 연출, 김종엽·김성녀·윤문식등 미추의 덧평대들의 중후한 연기와 40여명에 달하는 출연진들의 전문적인 기예, 기능과 미학을 겸비한 윤정섭의 무대 등은 좋은 불거리로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인간 바우덕이를 충분히 살리지 않고 예술가 바우덕이의 모습만을 확대투사하여 그녀가 부르짖는 예술정신에 믿음이 실리지

못한 것은 이 국의 가장 큰 결함이다. 간간이 남사당패라는 주어진 상황을 이탈한 언어, 회전무대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사용하는 블로킹, 애정 삼각관계의 평면적인 전개로 인한 극적갈등의 취약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극단 민예의 <탈속>

김영무가 쓰고 강영걸이 연출한 <탈속>은 인간적인 욕망이 지극히 강했던 무봉이라는 스님의 환속을 통한 탈속을 추리극의 형식에 담은 종교극이다. 극은 3중구조로 엮어져 있다. 종교신문의 한부장(최재영)과 박기자(오민애)가 특종기사를 찾아 채운사의 법통을 이어받을 재목으로 무봉 스님(최승일)을 주목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극의 틀, 즉 곁의 구조다. 속 구조는 둘로 나뉘는데, 한쪽에선 무봉과 일우 큰 스님(유영환)과의 선문답을 통해 도를 깨우치는 과정이 펼쳐지고, 다른 한 편에선 무봉을 사모하는 안수란이라는 여인(이미경)과의 만남과 해어짐이 전개된다.

이 복잡한 3중구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채운사와 속세를 오가며 무봉 스님을 추적하는 한부장과 박기자의 동기가 연극적인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해서 행동의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극은

이 곁 구조에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한부장이 무봉 스님을 표적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문기자의 기사 찾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한부장과 함께 일하는 박기자는 국에서 아무런 기능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존재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등장인물에 불과했다. 차라리 한부장과 박기자의 관계로 하여금 무봉과 수란의 관계를 반영하거나 대조토록 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더라면 국의 내면적 의미가 보다 짜임새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봄의 초연 때와 비교해서 각 장면의 시적 압축미가 강화되고 산만했던 음악극적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정리되면서 한결 세련된 무대만들기를 보여주었으며, 유영환과 최승일의 깊고 힘있는 역창조, 승의열과 손종학의 유머러스한 변신 등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극 구성상의 근본적인 결함을 상쇄하기에는 미흡했다.

불교적 진리를 주제삼는 극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는 스님들을 등장시켜 상투적인 통파의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세속인들을 중심기호로 종교적 주제를 접근해봄이 어떨지 제안하는 바다. 환속을 통한 탈속보다 탈속을 통한 환속이 더 연극적일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인극장의 <박사를 찾아서>

조원석 작 강유정 연출의 <박사를 찾아서>는 이번의 연극제 참가작 가운데 사실주의의 틀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작품이다. 언제나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적선적으로 비판해온 작가 조원석이 아마 김형욱의 실종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쓴 것 같은데 극은 조직의 폭력에 의한 개인의 회생에 초점을 맞춘다. 얼핏 우리는 관습적으로 ‘조직=악, 개인=선’



극단 민예의 「탈속」



여인극장의 「박사를 찾아서」

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떠올리겠지만, 이극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한 사람인 윤정섭(김재건)이 뗃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심판 내리기가 간단치 않다.

극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인물들 가운데 정신병자가 없고 오히려 바깥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타협을 못해 고생하는 정신과 의사 김박사(박지일)는 교통사고로 기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윤정섭(김재건)의 기억을 되살려 주기 위해 그의 삶을 추적하던 중 윤정섭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몸담았던 정보조직의 비리를 알게 되어 스스로도 위험에 빠진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어서 마침내는 폭력을 동원해 김박사를 정신병자가 되게 만든다.

극은 이렇게 한 인간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헌신이 폭력적인 조직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을 그려 보이고 있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로 마감되는 이 역전구조는 대단히 극적인 발상이었지만, 시작

에서 끝에 이르는 과정의 글쓰기가 너무 도식적이어서 극의 진행이 충분히 예측되었기 때문에 결말의 충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특히 안기부와 시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일반적인 국민정서일진대, 조직과 개인을 흑백논리로 양단하는 지난 어두웠던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 시대를 초상함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관객들의 수용미학을 수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

어딘지 썰렁하고 궁색한 무대장치(강경렬)는 미학적인 선택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유태균·박지일·김재건·정경순·김하균 등의 중심 배우들이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긴 했지만, 역과 역 사이의 전기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무대의 생동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주요 무대에 자주 서는 박지일은 내면적 주의집중을 통해서 육체적 긴장 없이 감정을 행동화하고 역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훈련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의 서울연극제는 뚜렷한 수작은 내지 못했지만 무대만들기에서 고른 수준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감한 현안문제들을 다름에 있어서 연극인들이 메시지를 생경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연극적으로 승화시키고 재창조하는데 역점을 두는 성숙한 사회의식을 증명해 보인 것도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더욱 성숙된 모습의 내년도 서울연극제를 벌써부터 기대해 본다.

■ 논 단 ■

東草文化와 속초 사랑의 길

李 氣 乙

- 경영학박사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동우전문대학 명예교수

■ 목 차 ■

1. 속초문화
2. 雪岳祭
3. 속초와 漁撈文化
4. 설악산과 登山文化
5. 지역경제와 鄉土開發株式會社
6. 설악권과 觀光文化
7. 속초 사랑의 길

1. 속초문화

속초문화원에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고, 東草文化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문화란 무엇인가.

文化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價值觀과 신념, 理念과 관습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巨視的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원의 行動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소이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행동과 社會體系를 형성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人生을 부드럽게 하는 總合要素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個人文化 개인문화는 개인의 인격과 결부된 教養과 같은 것이며, 살아 있는 인간이 文化財產을 이용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 생기고, 그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物質文化 이것은 개인과 관계없이 개개의 生命을 초월하여 존속하는 文化財를 뜻한다.

制度文化 제도문화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法規 제도 조직 등으로부터 형성된다. 이들은 憲法 법령 教理 社規 조합정관 등과 같이 객관화되어 있어, 인간이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지시해 준다.

精神文化 위의 제도적인 것에 구애되지 않는 모든 觀念的인 문화재산을 정신문화라고 한다. 따라서 理想 가치관 志向 등에 있어서의 모든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鄉土文化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지역의 鄉土文化라고 할 때에는, 위에서 말한 物質文化 제도문화 정신문화를 합한 전체를 뜻함과 동시에, 그 地域住民의 개인문화의 外延과 특성도 아울러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東草文化라는 것은 속초라는 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鄉土文化이며, 이것은 물질문화 제도문화 정신문화 등 客觀的文化 전체를 뜻함과 동시에, 속초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個人文化의 외연과 特性도 아울러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초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발전 계승된 문화를 東草文化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속초문화는 속초에 사는 住民 각자의 개성이, 같은 風土의 환경과 같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공동의 集團生活을 영위하는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활과 思考方式에 대한 공동한 마음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속초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옛날부터 이곳에서 代代로 터전을 잡고 살아오면서 문화를 전수받은 이들이 아니고, 當代의 격심한 사회변동 특히 6·25동란으로 갑자기 유입된 새로운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속초에서는 고유의 傳統文化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지 못하고, 다소 혼합적인 文化樣相을 보인다.

예컨대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 北青사자놀음도, 속초에 살던 피난민들에 의해 재현된 것이 우리나라 북청사자놀음의 효시이다.

漁民들의 조업방식이나 선박 건조방식도 북한지방의 것이 도입되었고, 어촌 민요도 거의 북한지방의 것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 속초의 漁撈文化는 독특한 향토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 또한 북한지방의 方言이 속초지방의 재래 방언과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어, 속초문화에는 이질적이고 혼합형식의 文化類型이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속초의 鄉土文化, 즉 속초문화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혼합적인 성격이라는 데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發展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2. 雪岳祭

오늘날 속초에는 8만명의 常住人口와 연 500만명의 관광객이 共存하고 있다(표1, 표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민의 力量을 한데 모으고, 우리와 觀光客을 신나게 부추겨 주는 東草文化라고 특징지을 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매년 10월 1일 東草市民의 날에 개최되는 설악제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기는 하나, 아직 문화로서의 제구실을 함에는 未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雪岳祭의 뜻을 되새겨 보면, 단풍으로 곱게 물든 국립공원 雪岳山을 내외에 과시하여 국제적인 觀光團地로 조성해 속초시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악제를 통하여 바다와 산악에서 발생하는 災難을 방지하고, 풍년과 豊漁의 기쁨을 안겨주면서 傳統民俗의 발굴, 격조 높은 市民相을 정립하여 市民和合에 이바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설악제는 1966년에 시작되어 벌써 28회를 맞이했다.

향토축제로서의 설악제는 前夜祭인 제등행렬 행상선박불꽃놀이 폭죽놀이를 시작으로 설악산에서 산신강림을 비는 山神祭를 지내고, 속초시내로 내려와 봉안제 대제 굿마당을 펼친다. 이 외에도 민속행사 체육행사 시민운동회 문화예술행사를 겸하고 있어, 市民의 날

축제로서 정착되고 있다.

雪岳祭委員會의 노력과 1984년에 창간된 「束草文化」에 힘입어, 그간 각지에서 모여든 속초시민의 마음을 집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속초는 적은 수의 原住民이 있고, 이에 6·25동란 후 失鄉民이 모여들어 再構成되는 과정에서, 유년시절의 文化的 체험이 서로 달라 傳統文化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설악제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鄉土祝祭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한없이 前進과 발전을 헌구하고 있다. 이것이 束草市民에게 용솟음치는 活氣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觀光客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지름길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傳統文化가 정립되기 어렵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여, 漁撈文化 등산문화 그리고 觀光文化의 특성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으로 보아, 이에 알맞는 鄉土文化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3. 속초와 漁撈文化

우리는 오늘 「束草文化」의 편집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속초문화의 編輯目標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편집하는 「속초문화」가 특징있는 향토문화의 創出을 위하여 노력하고, 속초시민의 求心点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편집 목표는 의해 束草文化의 창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속초문화의 창출이라는 編輯目標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어떠한 基本方針의 설정이 필요한 것인가. 무릇 문화의暢達은 경제의 성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地域經濟의 활성화는 향토문화의 창출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行動基準으로

서의 기본방침은 地域經濟를 활성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편집목표와 기본방침이 설정되었으면, 세째로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編輯計劃이 작성되게 마련이다. 속초문화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로문화 등산문화 관광문화의 총합체로 본다면, 이들의 각각에 대한 편집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①編輯目標(속초문화의 창출)

②基本方針(지역경제의 활성화)

③部門計劃(어로문화, 등산문화, 관광문화)

원래 속초는 옛부터 漁港으로부터 출발하여, 1942년에 束草邑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의 속초항은 동해안 최북단의 海運開港이다. 이로 말미암아 속초의 향토문화로서는 첫째로 어로문화(해양문화)를 생각할 수 있다.

바다의 수산물을 잡는 漁撈는 원시시대부터 인류의 중요한 生業의 하나이었고, 현재도 과학화된 방법으로 어획하고 있다.

속초는 天惠의 지세와 潮流로 말미암아 그 연안에 많은 魚族이 서식하였다. 이리하여 예로부터 속초는 漁村이었던 것이다. 1887년의 인구는 256명이었고, 1925년의 인구는 1,058명에 戶數는 189호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명태와 목장어가 많이 잡혀 주민의 대부분이 漁業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해 왔었다.

1931년 日帝가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무렵부터 정어리가 많이 잡혀, 海岸 곳곳에 정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정어리 기름을 짜는 工場도 생겼다. 이리하여 1937년에 양양군 道川面이던 속초리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도천면을 束草面이라 개칭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42년에는 인구가 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束草邑으로 승격하였다. 1944년의 인구는 12,450명에 戶數는 2,440호이었다(朝鮮總督府, 人口調查結果報告, 1944, P. 79).

논단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에 속하게 된 속초는 공산치하에 들어간다. 6·25동란 때 國軍이 북진함에 따라, 1951년 8월 속초는 수복되어 軍政이 실시됨으로써 다시 읍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중 1954년 5월에 邑長과 피난민 대표 등이 항수를 달래기 위하여 收復記念塔을 동명동에 건립하기에 이른다.

1954년 11월에 수복지구의 행정위양으로 民政이 실시됨으로써, 속초는 완전히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북에서 내려온 失鄉民의 유입으로, 인구가 1955년에는 23,679명(호수 5,350)으로 늘어났다. 1958년에는 속초읍의 인구가 31,435명에 이르고,

<표1>

속초시의 人口推移

연도	인구수	연도	인구수
1963	55,619명	1978	71,737명
1964	58,508	1979	71,940
1965	60,316	1980	65,798
1966	63,200	1981	68,523
1967	67,079	1982	69,248
1968	71,033	1983	72,324
1969	73,023	1984	73,002
1970	73,096	1985	69,595
1971	72,694	1986	71,211
1972	74,485	1987	71,913
1973	75,968	1988	72,006
1974	75,490	1989	73,424
1975	71,475	1990	73,796
1976	72,042	1991	74,905
1977	72,771	1992	74,798

(자료) 속초시, 束草年鑑(1991年版), 1992, P. 62

1960년에는 9,412호에 45,70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어업인구는 19,597명으로서 농업인구(5,425명)의 3.6배, 총인구의 43%에 달함으로써 명실공히 漁村 도시를 방불케 한 것이다.

1962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시행됨으로 어업조합을 束草漁業協同組合으로 발족시키고, 수산업의 指定港이 되면서 동해안에서 중요 漁港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1963년에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초 인구가 55,619명에 이르게 되어 市로 승격한다. 1965년에는 인구가 6만명을 돌파하고, 1968년에 7만명에 이른후, 오늘날까지 적은 폭의 加減이 있었으나, 1992년 현재 속초 인구는 74,798명이다.

1991년 현재 속초시의 산업구조는 제1차산업이 18.4%이고, 제2차산업이 5.4%, 제3차산업이 76.2%이다. 이중 제1차산업은 주로 수산업과 농업이며, 농가수는 993호에 견지면적 1,117ha이다. 이에 대하여 어가수는 1,855호이며, 동력어선 569척(23,866톤)과 무동력어선 83척(78톤)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 현재도 속초 인구의 10%가 어업인구이며, 1980년만 하더라도 전체의 23%가 어업인구이었다. 중요수산물은 오징어 노가리 명태 꽁치 멸치 등이며, 1991년도 수산물의 생산실적은 25,426톤으로서 강원도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금액은 실로 357억원에 달한다.

<표2>

속초시의 漁業家口 및 인구수

연도	속초시		어업		대비(%)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1980	14,452	65,798	3,066	15,223	21	23
1985	17,486	69,594	3,028	12,099	17	17
1990	19,825	73,796	2,877	10,343	15	14
1991	21,012	74,905	1,855	7,379	9	10

(자료) 속초시, 束草年鑑, 1992, P. 411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漁撈에 종사하는 어민에게는 풍랑 등 재난의 위험이 있게 마

련이다. 따라서 어민은 자연히 인간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힘의 實在를 찾게 되며, 그 超越的 능력의 실재와의 信仰의 관계를 가진다.

속초 어민에게도 그들의 安全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옛부터 음력 1월 대보름 날에는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龍王祭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士氣를 북돋다 주고 삶을 부드럽게 하는 文化를 형성함은 물론이다.

그뿐 아니라 속초를 대표하는 바다굿으로는 청호동에서 행하는 龍王위령굿과 외옹치의 고풀이굿을 들수 있다. 용왕위령굿은 속초 시내 13개동 중 어민이 가장 많은 어촌마을인 청호동에서, 어부가 어로 중 바다에서 희생된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굿이다. 그리고 외옹치의 고풀이굿은 3월과 9월에 時祭를 지내고, 3년에 한번씩 가을철에 용왕굿을 하여 어부의 혼을 위로한다.

또 東明港에서는 단오를 맞아 풍어와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단오굿이 음력 5월 5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펼쳐지며, 전국 각지에서 무속인이 초빙되어 온다.

최근에는 설악제의 前夜祭로서 해상선박불꽃놀이가 거행되고 있다. 이것은 오징어잡이 船團들이 10월 1일 전날 밤에 集魚燈을 동시에 켜고, 동명향과 청초호를 선회하는 행사이다.

이리하여 「東草文化」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로나 해양에 관한 編輯計劃이 있어야 하겠다. 아니 漁撈文化에 관한 고정칼럼이 필요하다.

4. 설악산과 登山文化

속초라고 하면 雪岳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설악산의 배후도시가 속초인 것이다. 설악산은 國立公園으로서 우리나라

제일가는 登山코스가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초의 향토문화로서 登山文化를 들 수 있다.

설악산은 太白山脈의 일부로서 그 북북서방 약 70km되는 곳에는 유명한 金剛山(해발 1638m)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설악산 주봉인 大青峰(해발 1708m)은 태백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금강산보다 70m가 더 높다. 다만 그 주위의 산악이 광범하지 못하여 금강산에 뒤지나, 景觀에 있어서는 권금성 올산바위 토왕성폭포 천당폭포 비선대 금강굴 등 남한에서 최고이다.

설악산은 1970년에 國立公園으로 지정되었는데, 설악산맥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을 內雪岳, 동쪽은 外설악이라고 부르며, 外雪岳 중 오색리 계곡 남쪽을 南雪岳이라고도 한다.

설악산은 8·15해방 직후에는 北韓에 속했었으나, 6·25동란 이후에 수복되었다. 1955년 8월에 처음으로 설악산의 등반이 시작된 후, 1960년에는 江原山岳會에서 설악산에 登山案內標示板 100개를 설치하여 등반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65년에는 全國學生山岳會 회원 132명이 설악산을 등반, 1966년 5월에 강원산 악회와 赤十字社春川支社에서 달마봉(635m) 대청봉 마등령(1327m) 천불동계곡 권금성(860m) 등에 등산안전표시판 400개를 설치함으로써, 登山路가 본격적으로 개통하게 되었다.

1966년 10월에는 제1회 雪岳祭가 속초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중요행사의 하나로 全國登山大會가 있었다. 이와 함께 雪岳王 선발대회도 실시되었다. 제1회에서 제6회까지는 百潭寺에서 오세암을 경유하여 馬登嶺을 통과하는 코스를 택하였으며, 제7회부터는 五色에서 대청봉을 경유 飛仙台를 거쳐 설악동 정고평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활용했다. 현재도 대체로 이 코스가 이용되고 있다. 설악산에는

논단

이들 외에도 神仙峰(1183m) 황철봉(1318m) 화채봉(1253m) 그리고 點鳳山(1424m) 등의 등산코스가 있어 매우 다양하다.

본래 登山이라 함은 지상에 초연히 솟아있는 산을 人間이 이상의 대상으로 하고, 높은 山에 올라가는 행동으로, 곧 征服心 불요불굴의 정신을 단련하여 思索의 범위를 넓히는 수양방법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都市生活의 번잡을 피하여 소풍격으로 산에 오르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적인 경향으로 흘렀고, 다시 스포츠적 登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10월의 단풍이 물든 설악산등반대회는 매해 개최되어,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설악산은 가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겨울에도 景致가 좋다. 이리하여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표3>에서와 같이 1992년에는 302만명에 달했으며, 속초에서 들어가는 설악동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표3>

설악산 國立公園 입장현황

연도	입장객 (만 명)					입장료수입 (백만원)
	계	설악동	오색	장수대	백담	
1988	263	207	36	10	10	865
1989	277	228	32	8	9	911
1990	287	222	28	6	31	964
1991	254	215	22	5	12	993
1992	302	242	30	7	23	1440

(자료) 國立公園管理公團 설악산관리사무소

이들의 계절적변동은 <표4>와 같이 봄(4, 5, 6월) 여름(7, 8월) 그리고 가을(9, 10월), 특히 10월의 단풍계절에는 하루 5,6만명의 人波가 몰리고 있다. 따라서 등산대회는 가을의 1회로 끝일 것이 아니라 季節에 따라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설악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山岳祭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속초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鄉土祝祭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大自然 특히 험준한 산악과 계곡은 숭고하면서도 무서운 것이다. 그동안 많은 山岳人の 희생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옛부터 산에는 산을 주관하는 山神靈이 있다고 생각하여 登山에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66년의 설악제에서는 산행의 절차로 간소하게 山神祭를 지내고, 그후 설악산등반대회를 시작하였다.

요즘에는 10월 1일에 설악산 權金城에서 격식에 맞는 山神祭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제단에서 설악산신의 降神을 빌고 초현관

<표4>

월별 雪岳山 입장현황

(單位 : 천명)

	계	설악동	오색	내설악
1992년	3,020	2,419	306	295
1월	146	130	12	4
2월	95	87	6	2
3월	134	124	8	2
4월	251	226	17	8
5월	326	283	22	21
6월	252	198	26	28
7월	219	154	27	38
8월	447	319	52	76
9월	223	172	25	26
10월	621	458	87	76
11월	185	157	17	11
12월	121	111	7	3

(자료) 國立公園管理公團 설악산관리사무소

亞獻官 종현관 등의 제관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등산객과 속초시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이들이 登山文化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東草文化」를 속초문화 창출의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登山이나 산악에 관한 編輯計劃이 있어야 하겠다. 아니 登山文化에 관한 고정칼럼이 필요하다.

5. 지역경제와 鄉土開發株式會社

文化 발전의 힘이 되는 것은 經濟이다. 그 것은 먹고 배가 불러야 비로소 생각될 수 있는 문제이고, 生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의 보장없이 不道德과 불법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地域經濟의 활성화는 향토문화의 창출과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서의 基本方針은 속초주민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地域經濟를 활성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거하면 漁撈 등산 관광 등의 부문적인 編輯計劃이, 속초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되게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작성되어 지는 것이다.

강원도의 總生產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에 61,621억원으로서 전체의 3%이고, 우리나라 市道 중 12위에 속한다. 따라서 一人當道內總生產은 <표6>과 같이 1991년에 402만원(5,484弗)이며, 우리나라 평균수준의 84%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뿐 아니라 속초의 經濟力은 <표7>에서와 같이 預金에 있어서 강원도 전체의 7%(1,282/18,888억원), 貸出金에 있어서는 4%(678/16,2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표5>

시도별 總生產 및 구성비

시도별	總生產(억원)		1991년 構成比(%)	1991년 順位
	1985년	1991년		
서울	194,242	511,024	24.6	1
釜山	63,171	157,620	7.6	4
大邱	31,566	84,904	4.1	8
仁川	36,794	100,899	4.9	7
光州	—	48,595	2.3	14
大田	—	50,240	2.4	13
江原	29,594	61,621	3.0	12
京畿	102,614	336,987	16.3	2
忠北	24,782	65,255	3.2	11
忠南	48,455	74,591	3.6	10
全北	31,728	77,127	3.7	9
全南	57,776	108,198	5.2	6
慶北	60,572	145,941	7.0	5
慶南	93,693	230,087	11.1	3
濟州	7,362	20,882	1.0	15
計	782,349	2,073,971	100.0	

(자료) 統計廳, 道內總生產推計結果, 1993, P. 9

<표6>

一人當道內總生產

시도별	1985년		1991년		1991년 水準指數
	万원	美弗	万원	美弗	
서울	200	2,294	482	6,573	100.6
釜山	177	2,035	417	5,679	86.9
大邱	154	1,771	382	5,201	79.6
仁川	258	2,966	547	7,458	114.1
光州	—	—	427	5,818	89.0
大田	—	—	477	6,504	99.5
江原	170	1,954	402	5,484	83.9
京畿	213	2,450	530	7,221	110.5
忠北	177	2,028	476	6,481	99.2
忠南	160	1,838	377	5,134	78.6
全北	143	1,640	384	5,227	80.0
全南	153	1,755	446	6,072	92.9
慶北	199	2,290	524	7,139	109.3
慶南	266	3,050	632	8,611	131.8
濟州	149	1,716	409	5,577	85.4
平均	192	2,202	479	6,534	100.0

(자료) 統計廳, 道內總生產推計結果, 1993, P. 21

<표7>

預金銀行의 與受信 推移

(單位 : 억원)

연말	預 金		貸 出 金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1988	9,160	573	7,433	320
1989	11,397	789	8,919	368
1990	15,409	980	10,999	482
1991	17,375	1,080	13,235	591
1992	18,888	1,282	16,250	678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3-2, P. 55
 한국은행, 영동·태백지역 경제동향,
 1992-12, P.6

오늘날 국민들의 요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역간의 隔差를 해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 면에서는高度成長을 이룩했다고 보겠으나, 지방과 중앙과의 所得隔差 즉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 주요원인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편중된 開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落伍된 지역에서도 스스로 內發的 상향적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지금까지의 雪岳祭가 어로산업이나 동산문화와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地域經濟를 촉진하는데 미흡했으며, 또 군소 관광업자와도 유기적 系列化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이 오랜 歲月에 걸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여러 誘因策에도 불구하고, 組織化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地域經濟의 활성화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地緣產業을 계열화함으로써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초지역의 산업은 호텔이나 콘도 부문에 서울資本이 과도하게 편중되

어 있어, 지역주민의所得向上에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로문화와 동산문화를 觀光產業과 계열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며, 이것은 中小企業의 육성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體制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行政에서 탈피하여 民間主導로 스스로의 지역발전을 이룩하자는 住民意識의 혁신을 뜻하며, 이것은 地域經濟가 발전할 수 있는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기회와 소득증가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開發潛在力을 길러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개발에는 막대한 投資가 필요한데, 그 資本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표5, 6, 7).

영세한 자본을 집결하여 地域開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 즉 鄉土開發株式會社의 설립이 필요하다. 제1섹터는 官, 제2섹터는 민간기업이고, 제3섹터는 民官合作體이다.

제3섹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출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公私合同企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은 주식비율에 따른 투자자로서 株主일뿐, 관리경영기관은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된다. 바꾸어 말하면 民官이 일체화되어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3섹터는 官이 정책적으로 관여하되, 자본이 있고 發想의 탄력성이 풍부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民間企業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업의 公共性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기능에 있다.

지금까지 설악권의 개발이 하향식 개발, 外發의 개발, 불균형 거점개발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결점을 보완하는 상향

식개발 内發的 개발 균형개발방식이 중시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추진은 東草市와 속초향토개발주식회사가 서로協議하는 방향에서 조화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안의 영세한 地域資本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기관 어민단체 농민단체 및 상공단체 등이 제3섹터를 설립하고, 기능별 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지역자본의 영세성을 극복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사업으로 얻어진 지역 소득의 流出問題, 지역간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문제 등의 부정적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설악권과 觀光文化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勞動時間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觀光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으로 정착하기 시작하고, 정부도 관광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雪岳山은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계곡, 기암 절벽이 어울린 응장한 山勢,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울창한 삼림의 變態, 그 품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의 조화로운 생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복합적인 景觀을 이룬다. 그뿐 아니라 속초는 그 산자락에 펴져있는 호수와 溫泉 등 무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속초의 氣候는 서울에 비하여 온화한 편이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따라서 가을의 단풍계절과 여름의 해수욕계절뿐만 아니라, 봄 겨울 四季節의 관광에 적합하다.

바꾸어 말하면 영동지방의 宗山인 설악의 한 지맥이 동으로 뻗어 미륵봉 금강굴 울산 바위 달마봉을 이루었고, 여기서 다시 兩脈으로 갈라져 한맥은 속초시의 서남부를 따라 주봉산 청대산 대포항이 되어 東海에 연했다. 또 다른 支脈은 동북으로 뻗어 학사평을 거쳐 永郎湖 그리고 영금정에 이른다. 그 여맥은 다시 해저로 뻗쳐 해안 4km 떨어진 海上에서 두각을 드러내, 이를 鳥島라 한다.

河川으로는 설악산을 기원으로 동해로 흐르는 16km의 雙川이 양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쌍천유역을 중심으로 道門平野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青草湖에 이르는 12km의 소야천이 속초시를 가로질러 흐른다.

이와같은 지형으로 되어 있는 속초는,山水가 좋고 생활환경이 우수하여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주변환경은 觀光資源으로 빼어나 있다.

이리하여 1969년에는 우선 雪岳山이 교통부에 의해 觀光地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 전설부로부터 설악산國立公園으로 지정된 후 관광지로서 정상적인 成長軌道에 돌입하였다.

1971년 7월에는 雪嶽觀光株式會社가 국립공원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가설함으로써 새로운 名物이 등장하게 되고, 1974년에는 설악산觀光호텔이 준공하기에 이른다.

1977년 尺山溫泉에서는 시추가 성공하여 지하 300m에서 40℃의 온천수가 솟아 나왔고, 1978년에는 永郎湖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하였다.

1981년에는 고급숙박시설로서 설악韓國콘도가 개관되고, 1985년에는 尺山溫泉의 휴양촌이 준공하기에 이른다.

그뿐 아니라 1982년에는 설악산의 일부가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世界生物圈保存地域으로 설정될 만큼, 자연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리하여 속초의 향토문화로서는 觀光文化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東草文化」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관한 글을 매번 게재하는 固定칼럼이 필요하다.

속초의 觀光特性으로는, 첫째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과 溪谷은 한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지이고, 둘째로 맑고 오염되지 않은 황금 모래 사장을 자랑하는 海水浴場과 바다의 경치 그리고 수산업의 漁獲物, 세째로 아름다운 청초호와 영랑호의 湖水觀光, 네째로 온천관광지로서의 尺山溫泉地帶, 다섯째로 골프장 스키장 챔버리수련장 등이 하나의 거대한 관광권역을 조화있게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자연관광자원에 여섯째로 문화관광자원인 新興寺 낙산사 백담사 등이 더욱 속초를 종합관광단지로 형성시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 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만 하더라도 529만명의 관광객이 속초를 찾았으며 그들이 쓰고간 觀光收入을 385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몰려오는 季節을 <표9>에서 보면 봄(4, 5, 6월) 여름(7, 8월) 가을(9, 10월)이며, 겨울에도 상당수의 관광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속초의 觀光客 현황

연 도	관 광 객	관광수입
1985	304만명	216억원
1986	295	210
1987	313	222
1988	347	246
1989	383	271
1990	376	267
1991	363	260
1992	529	385

(자료) 속초시, 東草年鑑(1991年版), 1992, P. 451

<표9>

속초 관광객의 季節的 變動

월 별	관광객수(만명)		관광수입(억원)	
	1991년	1992년	1991년	1992년
1월	19	31	14	19
2월	14	25	11	14
3월	17	22	13	13
4월	40	41	28	24
5월	51	52	36	44
6월	32	41	22	29
7월	29	37	20	27
8월	42	76	30	75
9월	22	51	16	34
10월	60	93	43	71
11월	24	32	17	20
12월	13	28	10	15
계	363	529	260	385

(자료) 속초시, 東草年鑑, 1992, P. 83

원래 觀光이란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風習 등을 구경 유람하는 것을 말하며, 觀光事業은 복합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회 文化 경제 종교 등 각 방면에 多角의인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련사업을 크게 관광시설 관광알선 관광선전 관광기구로 나누어 본다.

觀光施設 관광시설은 관광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이용하는 수단이며, 그것이 잘 정비되고 충실해야 觀光客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관광시설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宿泊施設과 교통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교양시설 위생시설 등이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附帶施設의 충실을 위하여 관광객을 오래도록 滞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숙박시설로서는 호텔 여관 콘도 여인숙 민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시설 경비 서비스 면에서 볼때, 종전에는 호텔과 여관이 主宗을 이루었다. 그런데 속초에는 최근 콘도와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다.

<표10>

宿泊業體의 현황

(1992년말 현재)

	호 텔		콘도미니엄		여관·기타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속초시	6	603	10	2,526	219	4,861
고성군	—	—	7	2,446	32	320
양양군	3	230	—	—	39	780
인제군	—	—	—	—	73	365
계	9	833	17	4,972	363	6,326

(자료) 속초상공회의소, 束草商工名鑑, 1993, P. 160

설악권의 숙박시설은 <표10>에서와 같이 1992년말 현재 호텔 9개업소(속초6, 낙산2, 오색1)에 객실수 833이고, 콘도미니엄은 17개 업소(속초10, 토성5, 삼포1, 진부령1)에 객실 수 4,972로서 현대적인 偉容을 자랑한다. 그리고 여관·기타는 363업체에서 6,326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숙박시설은 盛需期에는 부족하나, 평소에는 많은 시설이 남아 돌아간다.

觀光斡旋 이것은 관광객을 영접하는 정신과 態度를 말한다. 주로 旅行의 안내 유도 및 接客業者の 서비스, 경찰관의 태도 및 일반주민들이 관광객을 대하는 행태 등으로, 관광객에게 독특한 인상과 感銘을 주어 관광사업의 융성을 꾀할 수 있다. 강원도 사람은 性品이 우직하여 좋으나, 표정이 無表情하며 매우 거칠다. 이것으로는 현대사회의 觀光비지니스에는 적응하기 어렵다. 顧客은 왕이라는 말도 있다 싶이, 손님에게 인사하고 親切히 하여 속초의 印象을 좋게 하는 것이 관광객을 오래 滯留시키는 지름길이다. “人事합시다. 친절합시다.”

觀光宣傳 관광선전은 관광여론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나라 한 地方이 가지는 관광적 매력 즉 風景 문물이나 환경

된 觀光施設을 소재로 하여, 이것을 문서 繪畫 사진 신문 잡지 전파 등을 통하여 일반대중이나 特定人에게 알려서 그들의 관광의욕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은 PR시대이다. 관광선전을 잘하여 설악권의 모든 것을 內外 손님에게 두루 알리자.

觀光機構 이것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組織 및 단체를 말한다. 觀光事業은 복합적 사업인 만큼, 모든 조직이 유기적 일체가 되어 交通 運輸를 관장하고 외래객 유치의 직접적인 지도, 古蹟 國寶의 보존 및 산림보호, 관계업자의 계몽 등을 통하여 철저한指導를 담당하는 것이다. 속초로 관광오기 위하여 비행장이나 버스터미널에 내린 손님은 우선 어리둥절한다. 그것은 旅行案內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관광협회나 市廳의 관광활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아 손님이 不便을 느낀다.

원래 속초는 詩 소설 서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文學 藝術에 뛰어난 많은 文化人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束草文化」를 8호까지 이끌어 준 主役들이며, 그의 勞苦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설악제와 束草文化가 속초시민과 이 지역을 찾는 觀光客에게 기쁨과 꿈을 안겨주는 알찬 内容의 친근한 속초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文學시 연극 미술 사진 음악 무용 등 순수문화를 責任과 권한이 뚜렷한 實用的인 어로문화 등 산문화 觀光文化 등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향토문화를 정립하고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자.

7. 속초 사랑의 길

이제 설악산은 속초에 한해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 실제 설악산의 동쪽인 外雪岳의 토왕성폭포 비룡폭포 비선대 신흥사 척산은

천은 속초시에 속해 있으나, 남쪽인 南雪岳의 한계령(표고 920m) 오색계곡 낙산사 하조대 미천골계곡 자연휴양촌은 양양군에 속한다. 그리고 서쪽인 內雪岳의 백담사 수령동계곡 봉정암 12선여탕 장수대 등은 인제군에, 북쪽인 미시령(표고 767m) 신선봉 금강계곡 金剛山禾嚴寺 신평리캠버리장 진부령(표고 520m) 알프스스키장 건봉사 통일전망대 청간정 등은 고성군에 속해 있다.

이와같이 설악산은 東草市를 중심으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속초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부추겨 주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雪岳圈의 관광이 개발의 짧은 역사에 비하여 높은 인기를 얻고 관광대상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훌륭한 관광지와 連繫性이 좋아, 등산-계곡-온천·스포츠-바다-속초항-해수욕장 등을 무루 찾을 수 있어 더욱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찾는 觀光客의 편의를 도모하고 꿈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이에 참가하는 雪岳圈觀光協議會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한한 可能性을 배태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살고 있다. 東草文化가 속초시민과 설악권을 찾는 손님에게 不便함을 주지 않고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바탕을 둔 친절한 서비스精神으로 손님을 대해야 한다. 우리는 관광객과 共存共生의 관계에 있다. 즉 고객은 王이고 사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속초의 친절한 마음을 관광객에게 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人事합시다. 親切을 베풂시다”가 속초의 표어이어야 한다.

설악권을 중심으로 하는 鄉土文化로서는 위(3 속초와 어로문화, 4 설악산과 등산문화, 6 설악권과 관광문화)에서 지적한 것에 더하여 다음의 項目들이 보강됨으로서 속초 사랑

의 길이 될 것이다.

海水浴과 바다낚시 특히 여름철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有給休暇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휴가는 거의 여름에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여름이면 많은 都市人口가 바다 해수욕장 바캉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雪岳圈에는 속초해수욕장 백도해수욕장 삼포해수욕장 송지호해수욕장 화진포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등 좋은 해수욕장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海水浴이 가능한 것은 한여름 삼복 더위여서, 기간은 20일, 길어야 30일이 채 안되는 동안에 많은 인구가 바캉스를 즐기고자 하니, 해수욕 시즌의 혼잡은 극에 달한다.

그래서 모처럼의 휴가가 苦生길이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보다 느긋하게 또 알뜰하게 휴가를 즐기고, 海岸이나 섬의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해수욕장이 현재의 단순한 해수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운동과 휴식 등 다독적 효과를 얻도록 바다낚시와 遊船業의 전전한 연계를 모색하자.

그러므로 관광객의 욕구에도 부응하고 어촌·어민에게도 漁外所得을 높이고, 觀光開發을 지역사회의 개발로 연계시켜 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遊覽船과 해양스포츠 바다자원의 활용방법으로서 속초 앞바다에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자. 1993년 8월부터 태평양 관광유람선이 교동선착장을 출발하여 동명항을 거쳐 烏島를 오고 가며, 1시간 동안 속초항 주변의 해안을 관광시키고 있다. 속초항을 출발하여 인근해안의 絶景을 관광하는 유람선이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海上觀光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속초 앞바다만의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속초-대포-낙산-하조대까지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간정-송지호-화진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뿐 아니라 참여하고 즐기는 觀光商品의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 체류형 관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드셔핑 스쿠버다이빙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溫泉과 유원지 설악권에는 두 곳의 공식적인 온천이 있다. 하나는 尺山(속초)이고 다른 하나는 오색이다.

척산온촌은 알카리성온천($42\sim47^{\circ}\text{C}$)이며 1940년에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속초시의 외곽지대 여러 곳에서 온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五色溫泉은 단순천 알카리성온천(35°C)으로서 조선조 중엽부터 있었다고 한다.

水溫만으로 온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화학적 성분이나 泉質 수량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이들이 總合되어 기분전환이나 피로회복 그리고 소화불량 貧血 신경통 피부병 등 만성질환에 효과가 좋다.

온천은 가을 겨울의 계절성이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온천수의 과부족 문제는 都市化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온천관광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尺山이나 미시령에 이르는 土城地域에는 온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많이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지역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그러나 단조로운 온천관광은 食傷하기 쉬우므로, 既存의 프라자랜드 영랑호수공원 등 유원지와 골프장의 PR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포츠 오락 문화들이 등의 시설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골프와 스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례 觀光 레크리에이션이 증가하게 마련이다. 바다에서는 수영 낚시 그리고 육지에서는 골프와 스키가 있다.

넓은 들에 만들어진 코스에서 클럽으로 볼을 치는 골프는 짚은이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부녀자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이리하여 골프장의 이용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雪岳圈에는 설악프라자CC(18홀)와 한일레저CC(6홀) 그리고 알프스리조트 CC(6홀) 등이 있다. 골프장은 단일 목적지로 보다는 국민대중의 生活스포츠로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

알프스리조트 스키장은 슬로프 6코스의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춘 國際規模의 스키장으로, 고성군 간성읍 흘리 즉 陳富嶺에 인접한 해발 750m 의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알프스리조트는 스키장과 골프장 외에도, 호텔과 콘도(604실)의 시설도 대단하다.

이들의 오락스포츠시설은 그 시설의 매력으로 말미암아 觀光客의 왕래를 촉진하고, 관광객의 滯在를 장기화하며, 그로 인한 관광소비는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스포츠시설의 개발 및 운영이 觀光事業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大衆觀光의 보급과 함께 관광여행의 내용 및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스포츠시설의 설치를 통한 구조적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民俗祝祭와 향토음식 산과 바다 호수 등의 自然을 탐방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곳에서 문화에 접하고 그 문화 속에서 당분간 地方文化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그 지역의 歷史와 전통 그리고 과거의 생활상을 추적하고, 오늘날의 이곳 社會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속초는 新興都市이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를 억지로 꾸며내느니보다 새로이 觀光祝祭로 개발하여 지방문화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관광이 과거에는 보는 것 구경하는 것 靜的 관광이 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즐기는 동적 관광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審美的 문화관광이 주종을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觀光祝祭는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월의 설악제에서 山神祭와 굿마당이 있었고, 속초의 漁撈文化에서 용왕제(음력 1월) 단오굿(음력 5월) 고풀이굿(음력 9월) 등을 보았다. 이들의 풍속이나 祭禮들은 전통적인 우리네 본래의 잔치나 축제에 연결시킬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속초의 民俗文化行事는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에 펼쳐되어 있다. 보다 행사를 알차게 치르고 지방사람과 外來人이 함께 즐기고, 이 행사가 유익한 만남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四季節에 골고루 분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데 豊漁祭는 연초에 스키 등 겨울스포츠와 겹하도록 하고, 봄에는 용왕제와 北青사자놀이, 여름에는 해수욕과 8도假面假裝行列, 가을에는 등산과 단풍놀이(설악제)에 農樂隊를 결드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축제와 뗄 수 없는 것은 飲食이다. 속초는 산지와 바다를 끼고 있어 四季의 기후변화가 뚜렷하며, 지극히 지역성이 강한 토속적인 飲食과 요리솜씨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데 감자떡 도토리묵 막국수 함흥냉면 순대 순두부 생선회 회덮밥 생선초밥 전복죽 등이 그것이다.

그와 더불어 觀光客은 일반적으로 관광목적지에서 지방 특유의 鄉土飲食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 民俗祝祭에 참가하여 산과 바다를 즐기고, 그 고장의 음식으로 입맛을 돋운다는 것은 최고의 낭만이 아닐 수 없다.

便宜施設의 확충 국립공원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콘도 등 숙박시설에는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의 부족과 교통체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보다 편리한 상태로 관광을 즐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악권 내에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宿泊施設 음식점 정기관광버스 旅行案內所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체재기간을 연장케 하여 地域經濟의 성장을 촉진하게 한다.

첫째의 숙박시설에서 不滿인 것은 여관과 민박이다. <표10>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旅館의 수는 많으나, 서비스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관을 한국적인 특색, 즉 土俗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특색있는 숙박시설로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호텔이나 콘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맛 좋은 食事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이다.

民泊은 관광성수기인 여름과 가을에 正式 숙박시설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쾌적성 안전성 친절성 정보성이 따라야 하겠고, 地方性의 이미지가 살아난다면 더욱 좋겠다. 민박과 민박촌의 건설도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日本 등지에서의 값싸고 안전한 민박체계는, 매우 이국적인 情趣를 남기고 재방문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둘째로 관광편의시설에 관하여 속초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飲食文化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표1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가 각지에서 많이 開店하고 있다. 이와같이 數에 있어서는 풍부하나, 정작 安心하고 먹을만한 곳이 별로 없다. 우리는 흔히 관광객이 서울에서 먹을 것을 다 가져 온다고 不平한다. 프로페셔널하고 세련된 食店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겠는가.

都市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모처럼 가족과 더불어 휴양차 관광을 떠났으니,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들기를 원할 것이다. 가격 면에서 등급을 두어 각자의 처지에 알맞고 맛있는 飲食을 정성껏 차려 주자. 그럼으로써 富의 재분배에 의하여 속초에 돈이 떨어지도 록 함이 바람직하다.

<표11>

대중음식점의 현황

(1992년 말 현재)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계
한식	374	107	158	244	883
횟집	107	29	41	—	177
면옥	16	12	9	15	52
분식	43	—	—	9	52
중화요리	31	16	8	6	61
경양식	33	21	6	22	82
계	604	185	222	296	1,307

(자료) 속초상공회의소, 束草商工名鑑, 1993, P. 123

세째로 奎적한 大衆交通手段의 증설이 있어야 하겠다. 속초나 양양에 와서 먼저 氣分을 잡치는 것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택시의 어려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定期觀光버스와 렌터카의 體系를 확립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모텔코스 A,B,C 등으로 時間을 정하여 출발하고, 요금을 확정하자. 특히 설악산 입구에는 모노레일의 설치를 고려할 만 하다.

定期觀光버스를 일반운수회사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면, 속초시의 관광과 같은데서 市營으로 시작하고, 기반이 잡히면 私營으로 넘기는 것도 한 방편이다.

네째로 관광알선에서 부족한 것은 空港이나 버스터미널에 旅館案內所나 관광안내소가 없어 불편하다. 원래 관광사업은 여러 業種이 복합된 산업이므로, 각업체 간의 이해조절과 공통적 이익에 관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전체로서의 觀光產業이 융성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의 핵심인 觀光協會나 시의 관광과 같은 조직이 있어, 이들에 의해서 여관안내나 관광안내가 이루어져야 觀光客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이 補完될 경우,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설악권의 관광은 크게 변모할 것이다. 즉 속초 시민들은 관광업계의 부조리 정화와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행정의 능률화, 學界의 뒷받침, 시설투자 등으로 束草文化가 꽂되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속초의 地域經濟가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논 단 ■

南北統一의 지름길과 우리의 姿勢



董 文 星
속초재향군인회장

약력

- 東草中·高卒業(각3회)
- 中央大法科大行政學科卒(61년)
-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卒業(91년)
- 地域社會開發學專功
- 朝鮮日報記者역임
- 平統諮詢委員(5·6期)
- 江原道民防衛素養講師
- 東草市在鄉軍人會長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는 원고지 몇장으로서는 논술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편집자가 위의 제목을 제시하여 원고를 주문해 왔으므로 편집측의 요구에 따라 이 글을 쓰게 됨을 서두에 밝혀둔다.

「南北統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전제되는 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 南北韓은 지난 48년간을 인내·끈기·협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확실한 靑寫眞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통일의 지름길을 도출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머릿말

남북통일방안에 대해 南韓에서 合理的인 方法이라고 판단돼 그 방안을 제시해도 北韓이 거부하면 별도리가 없고 또 北韓이 理想的 方法이라고 생각, 南韓에 제시해도 南側에서 그것을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否定하면 그 통일방안은 쓸모가 없게 된다.

문제는 南과 北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제기해 왔을 때兩側은 그 안을 모두 수용하고 오랜시간 협상을 통해 토의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절충안을 도출하여 그것을 남과 북이 똑같이 수용하는 방안이 最善의 方案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지내온 諸會談의 經過를 보면 그것마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體驗한 統一論議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北韓問題를 연구하는 專門機關과

専門家, 그리고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딱 부러지게 그處方을 내놓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그 만큼 통일문제만은 변수가 많고 예측이 不確實하기 때문이다.

統一問題에 대한 專門家들의豫測位

헬무트 쿨 獨逸總理는 1988년(당시 서독총리) 어느 外國記者가 獨逸統一의 展望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내 생애에는 독일통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지난해에 작고한 빌리 브란트 전서독총리는 蘇聯體制가 한창 變革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면 1990년 여름에 한 독일문제 전문가와의 대담에서 독일통일의 전망을 「앞으로 10년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懷疑的인 답변으로 갈음한바 있다. 戰後 서 베를린 市長과 서독총리를 역임하면서 강력하게 「東方政策」을 추진했던 장본인인 그도 다음해 10월3일 西獨이 東獨을 吸收統一하게 되는 갑작스런 狀況이 닥쳐올 줄은 미처 감지하지 못한듯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南北會談의 南側 首席代表로 오랜기간 활동한 경력자로 남한에서는 「남북문제」에서는 最高의 權威者로 모두가

공인하는 明知大總長인 李榮德박사는 한국통일에 대해 「멀리서 보면 아주 가까이 와 있는것 같고,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깜깜한 먼곳에 있는것 같다」고 슬회한바 있었다.

독일통일문제에는 콜이나 브란트를 능가할 전문가는 드물었고 한국통일문제도 이영덕총장을 따라잡을 전문가는 별로 없음에도 「통일문제」에서만은 전문가들도 자신있게 所論을 펴지 못했거나 확고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南·北韓의 統一方案

그러면 南北統一에 대한 方法論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韓國政府가 제시하고 있는 統一方案이고, 다른 하나는 北韓側이 내놓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남측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제3공화국에서 維新時代를 거쳐 제5공화국이 내놓았던 통일방안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서는 제6공화국정부가 제시한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였고, 최근 金泳三 新政府가 내놓은 통일방안으로는 「三段階 三基調統一政策」이다.

이와는 또다른 통일방안으로는 北韓이 提示해온 통일방안이다. 北側의 통일방안은



보고도 갈수 없는 북녘땅 동해안 휴전선 바로 북쪽에 내려다보이는 高城郡外 金剛面 桂月里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의 낙타봉(일명 九仙峰)과 海金剛



金剛山전망대에서 건너다 보이는 북측지역 「일심단결」, 「주체사상」이라 쓴 현판이 보인다.

1960년 8월 14일 光復節기념식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이 그 효시가 된다. 북측은 이같은 통일방안을 그후 몇차례 修正을 거친 끝에 1980년 10월 10일 朝鮮勞動黨 제6차대회에서 金日成의 연설을 통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南과 北의 통일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韓國側 統一方案

1. 漢民族共同體 統一方案

1989년 9월 11일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①南北對話의 추진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해 가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하고, ②이 현장에 따라 남북이 聯合體制를 결성하여 共存共榮의 民族社會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의 형성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③南北代表간에 합의한 憲法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統一憲法으로 확정하고, ④이 헌법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單一國家인 統一民主共和國을 수립하자

는 것으로 돼 있다.

2 三段階 三基調 統一政策

그러나 金泳三 新政府가 출범하면서 종래의 통일방안보다 획기적인 새로운 「통일정책」이 제시됐는데 이 통일방안이 바로 「三段階 三基調統一政策」이다. 이 방안의 골격은 지난번 서울에서 열렸던 太平洋經濟協議會總會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신정부의 「통일방안」으로 ①和解와 協力의 단계 ②南北聯合의 단계 ③一民族 一國家에로 통일을 이루하겠다는 「통일방안」인 것이다.

「三段階 統一方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일방안의 골자는 우선 남북은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敵對와 不信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가며,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나가며, 「南北聯合」단계에서는 交流·協力を 더욱 촉진, 평화를 제도적으로 더욱 보장하며, 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民族同質性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 「統一國家」 단계에서는 1민족1국가의 통일을 완수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南北韓은 民族國家를 일치시키는 政治統合을 이루한다는 것이다.

신정부의 「三段階統一方案」은 「南北基本合意

書」(1992. 2) 합의된 화해·협력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신정부는 이같은 「統一方案」을 달성하기 위해 「統一政策推進 三大基調」를 확정한 것이 종전까지 「통일방안」보다 특징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곧 ①民主的 國民合意 ②民族福利 ③共存共榮으로 구체화 돼 있다. 첫째, 신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지지로 탄생된 民主政府이기 때문에 國民合意를 바탕으로 統一政策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둘째, 신정부는 北韓을 孤立·封鎖시키지 않고 平和共存과 共同繁榮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셋째, 신정부도 「一民族一國家」라는 統一體制를 세우기 위해 特定理念과 體制보다는 民族福利를 우선시킨다는 정책이다.

北韓側의 統一方案

그리면 北韓이 제기하고 있는 「高麗聯邦制 統一方案」은 무엇인가? 그 글자를 요약하면 ①남과 북에 現存하는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두고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三原則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②남과 북은 같은수의 代表를 뽑고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最高民族聯邦會議」를 구성하고, 이 연방회의가 聯邦政府격인 「聯邦常設委員會」를 조직하여 이 「常設委員會」가 남과 북의 地域自治政府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軍事權과 外交權을 비롯하여 그밖의 “民族全般的 인 利益에 관계되는 事業”을 관할토록 한다. ③연방이 성립되면 남북간 각 분야에서 交流·協力의 증대, 民族聯合軍의 創設등 「十大施政方針」을 우선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側은 이러한 연방제 실현에 앞서 ①“南朝鮮에서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파쇼적 惡法을 폐지하고 모든 暴壓統治機構를 없애야 한다”, ②“모든 政黨·社會團體들을 合法化하고”, “모든 人士들의 자유로운 政治活動을 保障해야 하며”, ③南韓의 現存하는 政權을 “광범한 人民大衆의 의사와 利益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

주의적 政權으로 교체해야 한다”, ④美國은 분열 주의적인 “두개朝鮮”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駐韓美軍을 철수시켜야 한다, ⑤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등의 先決條件을 제시해 놓고 있다.

南北高位級 會議의 經過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에는 통일은 금방 올 것 같아 느껴 질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내놓고 있는 「통일방안」은 선결조건들을 달고있어 대화의 여지조차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남측의 끈질긴 대화제의와 대북 한 설득으로 지난 90년 9월에 남북한은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함으로 장기간 단절 됐던 남북회담을 남북한의 總理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부차원의 회담으로 격상시키고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회담을 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도 제4차회담(평양)까지는 아무런 合意事項도 도출하지 못했었다. 그렇다가 91년 12월 제5차회담(서울)에서 南北和解·南北不可侵·南北交流協力등 3개 合意書에 남북총리가 극적서명을 함으로써 통일의 분위기를 들뜨게 했다. 이어 92년 12월 제6차회담(평양)회담에서는 전기 3개合意書와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政治·軍事·交流協동 3個分科委員會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發效시켰던 것이다.

이어 92년 5월 제7차회담(서울)을 열고 남북은 「離散家族老父母訪問團交換事業」을 合意하고 판문점에 「남북공동면회소설치」 문제에까지 접근했으나 북한은 돌연 「非核化共同宣言」에 합의하고도 남북공동 핵사찰에 불응하는 한편 「방문단교환사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李仁模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를 북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트집을 걸어 7차회담은 합의내용마저 파기하고 말았다.

논단

그후 92년9월 평양에서 제8차회담이 열려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등 3개합의서에 대한 附屬合意書에 대한 서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남북고위급회담은 계속 중단되고 있다.

맺 는 말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봄으로서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요점들과 회담의 경과 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에는 결림들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로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도 현실문제는 합의서서명 이전의 상태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이 남북당국에 의해 보장되면 그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 이외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도 「통일방안」에 대한 선결조건을 남측에만 요구하지 말고 북한도 1946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글자 한자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조선노동당강령(대남통일정책부문)을 시대에 상황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우리만이 통일의 신드름에 들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설악산(9)



박 의 훈

약 력

- 전직 교육자
- 현 속초시 노인학교장
- 속초도서관 주부교실
한문교양 강사
- 속초시 문화상 교육상
수상
- 서훈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수상
- 저서 「5분교양」

복원(復元)되는 성국사(城國寺).

城國寺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것은 6·25 이 후부터이다. 1968년 4월 10일자로 발행된 양양군 향토지 사찰(寺刹)조 성국사지항(城國寺址項)에 “성국사지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약수터 근처에 있으며 1,500년 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절터인데 언제 어떻게 망실(亡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옛 주춧들이 소롯이 남아있고 파괴된 당시의 동서탑(東西塔), 석탑(石塔), 석사자(石獅子)가 부근일대에 산재(散在)되고 있어 그 옛날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신도가 소암자(小庵子)를 짓고 불공을 드리고 있다.”로 되어 있고, 1976년 9월 25일자로 발행된 증보판(增補版)에는 좀 자세하게 “사기(史記)에 이 절은 五色石寺(오색석사)라 칭하고 無染國師(무염국사)와 법성대사(法性大師)가 머리를 깎고 도를 닦던 사찰이다. 西塔은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그런가하면 1990년 11월 30일자로 발행된 양주지(襄州誌)에는 五色石寺址라하여 내용은 양양향토지(襄陽鄉土誌)增補版과 같다.

五色石寺란 이름은 충남 보령군 성주사지(忠南 保寧郡聖住寺址)에 있는 無染國師의 비명(碑銘)에 쓰여져 있다. 이 碑銘은 신라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先生이 왕명(王命)에 의해 지은 글로서 본문(本文)이

5,022자 주문(註文)이 98字 도합 5,120자로 되어 있는 대장문(大長文)이고, 글씨는 無染國師의 종제(從弟…사촌아우)인 최인곤(崔仁滾)이 王命을 받들어 썼는데 서체(書體)는 중국 구양순(歐陽詢)書体이다.

五色石寺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無染國師는 속성(俗姓)은 金氏이고, 신라 무열왕이(新羅 武烈王…金春秋) 8대조이며 祖父는 주천(周川) 벼슬은 대아찬(大阿贊…五品), 高祖와 曾祖가 다 장상급(將相級…出入皆將相)이었으며 골품(骨品)은 王族진골(王族真骨…父는 王族 母는 貴族出身)이었다. 아버지는 범청(範清)인데 眞骨에서 귀족(貴族)으로 한등급 내려가고 말았다.(父範清 族降眞骨一等) 어머니는 화씨(華氏)인데 어느날 하늘에서 큰손(手)이 내려와 연꽃을 주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13개월 만에 출산(出產)했다. 無染은 어릴 때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합장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놀 때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모래성을 만들 때도 부처나 탑을 만들었다.

(華氏觀脩臂天 垂授般花 因有娠 幾踰時申夢… 充胎教 過芽而誕 大師阿孩時 行坐必掌合趺對 至與群兒戲 畫墁聚沙 必模樣像塔)

9살 때 글을 배웠는데 한번 보면 반드시 외



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신동이라 불렀다. (九歲始鼓篋 目所覽口必誦 人稱曰 海東神童)

12살 되던 해에 불자가 될 뜻을 굳히고 먼저 어머니에게 여주니 어머니는 꿈일을 생각하고 올면서 승락했고 다음에 아버지에게 여주니 아버지는 늦었지만 착하다며 기뻐했다. (跨一星終 先白母 母念前夢 泣曰誇 後謁文文悔已晚悟 喜曰蕭)

無染은 더디어 12살 때 설악산 五色石寺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遂雛染 雪山五色石寺)

五色石寺는 곧 설악산 남쪽기슭 양양군 오색동에 있는데 오색골짜기에는 오색들이 많아 절 이름도 오색석사라 했다.(即雪岳南麓襄陽郡 五色洞所在 洞多五色石 故稱之)

그러니까 五色이란 이름은 한나무에 五色꽃이 핀다해서 五色이 아니고 五色돌이 많다해서 五色이라는 것이다.

無染은 五色石寺에서 수년 동안 법성선사(法性禪師)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浮石寺)에서 석등대덕(釋燈大德)으로부터 화엄경(華嚴經)을 공부하다가 벚길로 당(唐)으로 가는 도중 해상(海上)에서 풍랑(風浪)을 만나 표류(漂流)하다가 검산도(劍山島…黑山島)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겨우 살아났다.

헌덕왕(憲德王) 13년(821년)에 唐으로 가는 왕자흔(王子昕)의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 지상사(至相寺)에서 華嚴을 배웠고, 마곡사(麻谷寺)에서 선(禪)을 인가(印可…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음) 받아 문성왕(文聖王 7년(845))에 귀국하여 응천주(熊川州…現公州) 오합사(烏合寺…뒤에 聖主寺) 주지로 있었는데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그때 國師가 되었으며 진성왕(眞聖王) 2년(888)에 89세(法臘65)에 입적(入寂)했다.(原文省略)

현곡사(玄谷寺)는 양양군 향토지增補版에 “襄陽에서 西方六十餘里 五色嶺南쪽에 있었다.”



귀빈들이 많이 오고갔는데 영동으로 오자면 이곳을 지나야 했다.

이절 승려(僧侶)들은 절 뒤에 암굴(岩窟)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전(私錢)을 주조(鑄造)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임금님 一行에게 발각되어 폐사(廢寺)되었다.

그래서 그사찰 뒷산 봉우리를 주전봉이라 불렀다. 이 사지내(寺址內)에 타이 있었는데 1936년에 불행하게도 도적이 와서 파괴하였고 그뒤 송정무진(崇禎戊辰…明의 年號)에 간성원암(杆城元岩)으로 이전하였다. 元岩이란 지금의 고성군 土城面 元岩里다.”

이 기록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1936년은 익정때이고 崇禎戊辰은 1628년(仁祖6년)이다. 타이 파괴 되었는데 元岩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처(出處)와 현물이 없고 아는 사람조차 없으니 막연하기만 하다. 襄州誌에는 “임금一行”이 “관찰사一行”으로 바뀌었을뿐 그외에는 향토지 증보판과 같다.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은 1910년 9월이후 발행으로 보이는 “峴山誌 全” 사찰조 20에 “현곡사는 양양부로부터 서쪽 70리 오색령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사가 되었다. 광해군(光海君) 13년을 전후해서 공무로 다니는 많은 관원들이 이곳을 지날때면 역원(驛院…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관)이 없으니 반드시 玄谷寺에서 자고 갔다. 이절에는 타이 있었

다.”

(玄谷寺 在府西七十里 五色嶺南 今廢 在於天啓戊辰以後基前 大川使賓 必館於此寺 有塔)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 산천조 미시파령 항(新增東國輿地勝覽 杆城郡 山川條 彌矢坡嶺項)에 成宗24년(1493) 五色驛이 元岩으로 옮겨졌다 했으니 숙박시설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을 넘어 다녔고, 공무로 다니는 관원들은 부득이 玄谷寺를 이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료(史料)나 지형적(地形的)으로 보아 五色石寺나, 玄谷寺나, 城國寺 모두가 다 같은 절임을 알수있다.

城國寺란 “중향성 불국토(衆香城 佛國土)”의 城字와 國字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 이름은 동국대불교대인도철학교수 이종익(東國大佛教大印度哲學教授 李鍾益)이 지은 이름이다.

이 교수는 城國寺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서 한해에 몇번씩 이절을 찾았는데 애석하게도 수년전 81세의 나이로 타계(他界)하였다 한다.(黃鶴樓(50) 스님의 증언)

우리 친산회 회원일동(親山會 會員一同 會長 金用文前職教授)이 1993년 7월21일 이곳을 찾았는데 황학루(黃鶴樓)스님이 10년동안 심혈(心血)을 기울여 모은 불전 4억원으로 복원공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스님은 음식솜씨가 좋아 맛이 유별한데다가 절을 찾는분들에게 공양까지 한다하니 그야말로 근래에 보기드문 제도중생(濟度衆生)하는 산 보살이라 해야 옳을지 거룩하기만 하다. 스님은 절 이름을 五色石寺로 환원 시키고 절을 창건한 사람은 無染國師라 하나 그전에 이미 절이 있었음을 잊지 말았으면하고 이절이 復元되면 천년의 문화가 다시 꽂피어 못보면 한되는 오색이 더욱 빛날 것으로 믿어진다.

동 우 전 문 대 학

동우전문대학은 1981년에 개교했다. 2년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14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3,900여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노학동 산24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암관 영북관 노학관 청초관 등 네 동의 校舍와 기숙사 유치원 등의 부속시설을 가지고 있다.

가. 설립이념

동우전문대학의 설립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며, 국가발전과 민족증홍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 직업인 양성과,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고등교육과, 상위 고등교육에의 계속 교육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교육 이념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며, 학교 교육뿐 아니라 사회 교육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산학협동체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

나. 연 혁

동우전문대학은 80년1월 법인 설립총회를 갖고, 같은해 2월 교육부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 1월에 법인설립과 전문대학 개교 본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81년3월에 東草 經商專門大學으로 개교하였다가 그해 10월에 속초전문대학으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 이를 다시 83년9월에 현재와 같은 동우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다.

자세한 연표는 다음과 같다.

1980. 1.11 학교법인 동성학원 창립총회 개최

- 1980. 2.20 학교법인 동성학원 및 속초경상 전문대학 설립인가 신청
(위치: 속초시 노학동 산244)
- 1980.11. 3 학교법인 동성학원 설립인가 및 속초경상전문대학 예비인가
(초대 이사장 전재욱 박사)
- 1980.11.11 교사 영북관 기공
- 1980.12.11 속초 경상전문대학 설립인가
경영과, 무역과, 관광과, 유아교육
과, 세무회계과, 행정과, 식품영양
과(이상 7개과 1,000명)
- 1981. 2. 1 초대학장 한상갑 박사 취임
- 1981. 2.15 교가 제정, 교포, 교기 도안
- 1981. 3.25 영북관(3,344m²) 완공
- 1981. 3.28 개교식 및 1981학년도 입학식
- 1981. 7. 8 교사 노학관 기공
- 1981.10.16 속초 천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학과 신설: 법률실무과, 의상과
“속대학보” 정기 간행물 등록
(마 94-6)
- 1981.12.30 교사 노학관(5,500m²) 완공
- 1982. 3.10 1982학년도 입학식
- 1982. 5.22 속초 노인대학 제1기 개강
- 1982. 5.26 속초 주부 시민대학 제1기 개강
- 1982. 5.28 의상과 의상 전시회 개최
- 1982. 7.16 관광과 일본 해외연수
- 1982.10.23 주부대학 졸업식
- 1983. 2.23 제1회 졸업식
- 1983. 3. 8 1983학년도 졸업식
- 1983. 8. 8 한상갑 학장 고희기념 서예전
- 1983. 9.16 교명변경: 동우전문대학
간호과, 치기공과, 전자계산과

증설 확정	1992. 3. 5 1992학년도 입학식
1983.11.30 교수 논문집 발간	1992. 8.14 '94학년도 개교 예정인 4년제
1984. 2.10 제1회 의상과 졸업작품 전시회 (장소 : 유스호스텔)	동우공과대학 설립인가
1984. 2.25 제2회 졸업식	1992.10. 6 수산개발과 및 전자계산기과 신설
1984. 3.16 1984학년도 입학식	1993. 2.26 제11회 졸업식
1984. 8.24 여학생 기숙사 기공식	1993. 3. 4 1993학년도 입학식
1984.11. 2 간호과 제1회 가관식	
1984.11.12 학칙변경 및 치위생과 신설	
1985. 2.23 제3회 졸업식	
1985. 3. 1 2대학장 이상직 교수 취임	
1985. 3. 6 1985학년도 입학식	
1986. 2. 1 제4회 졸업식	
1986. 3. 5 1986학년도 입학식	
1986. 4.13 제1차 총동문회 발기 위원회 구성	
1986. 5.15 제1회 치위생과 가관식	
1986. 7. 9 동우전문대학 부속 유치원 설립인가	
1986. 9.12 동우전문대학 부속 유치원 개원식	
1986.11. 3 학칙변경인가 및 양식과 신설	
1987. 1.15 교지 '동우' 창간호 발간	
1987. 2.28 제5회 졸업식	
1987. 3.15 1987학년도 입학식	
1987. 9.10 우암관 기공	
1987. 9.24 제1회 나이팅게일의 밤	
1987.10.19 학칙변경 인가 및 여성교양과 신설	
1988. 1.30 제6회 졸업식	
1988. 3.12 1988학년도 입학식	
1988.11. 8 학칙변경 인가 및 사진영상과 신설	
1989. 1.28 제7회 졸업식	
1989. 2.15 제2대 김종환 이사장 취임	
1989. 3. 1 제3대 학장 전재욱 박사 취임	
1989. 3. 8 1989학년도 입학식	
1989. 6.13 우암관 준공	
1990. 1.30 제8회 졸업식	
1990. 3. 6 1990학년도 입학식	
1990. 3.15 운동장 조성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착공	
1991. 2.28 제9회 졸업식	
1991. 3. 5 1991학년도 입학식	
1992. 2.28 제10회 졸업식	

다. 개설학과

1) 經營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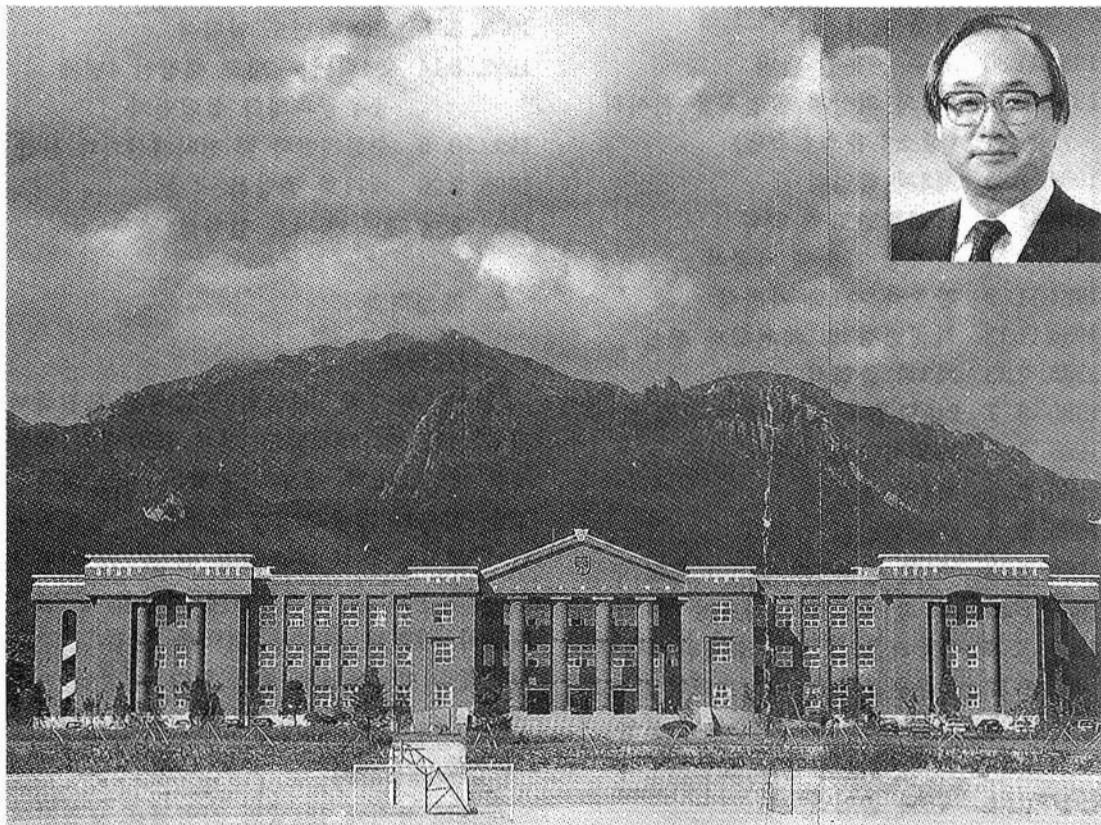
개교와 동시에 184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10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판단력을 배양시켜 기업경영, 행정관리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인격과 능력을 겸비한 중견 간부를 양성함을 학과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집, 박준승, 박유식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稅務會計科

개교와 동시에 184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78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회계에 관한 기초이론과 세무 전반의 내용을 이해시키며, 회계및 세무정보의 분석과 처리 능력을 함양시켜 미래의 유능한 중견 회계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권, 김남근, 최임규, 장기용 등이 전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 行政科

개교와 동시에 13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88학년에 야간 행정과도 개설되었다. 93년도 현재 88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국가 사회 발전과 변동의 예비 수임 관리자로서 公·私分野에서 점증하는 행정관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 현명한 행정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김종식, 심재빈, 문영규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우전문대 우암관

• 設立者 法學博士 全載旭
• 東宇專門大學長

4)觀光科

개교와 동시에 13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1,4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관광업무에 관한 실무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을 배양시켜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민간 외교관 및 국내 관광 사업 육성에 기여하는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원재, 김덕형, 위정주, 이병연, 김상욱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5)食品營養科

개교와 동시에 13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7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식품 및 영양에 관한 전문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중견 관리자로서 능력을 함양시켜 국민 식생활 개선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임덕수, 오현근, 이정실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6)幼兒教育科

개교와 동시에 184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1,7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기를 체득시켜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풍부한 인성과 지식을 함양시켜 유능한 유아교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조태성, 박홍자, 이진우, 한은숙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7) 女性教養科

88학년도에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4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돋고,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전문능력을 함양시켜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여성 인재로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남미, 유관순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8) 電子計算科

84학년도에 9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7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컴퓨터 기술습득을 통해 산업사회의 유능한 중견 기술인을 양성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손명철, 공휘식, 최철재, 이영식, 유수현, 고응남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9) 電子計算機科

93학년도에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현대 고도 첨단 기술산업 사회의 주요 사용 기기인 전자계산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에 관련된 구성 이론과 활용 및 설계기술을 익혀 산업사회에 종사할 수 있는 중견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노환, 주석홍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0) 寫眞科

89학년도에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1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영상 정보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사진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인, 박영철, 김홍수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1) 水產開發科

87학년도에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나, 93학년도 수산개발과로 학과를 변경하여 현재 80명의 입학생을 모집하였다. 수산 양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장래 수산 양식 분야에 종사할 중견 기술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우영배, 최유길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2) 齒技工科

84학년도에 9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으며, 93학년도 현재 5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치과기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치과 의료 분야에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과 치과 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견 치과 기공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윤봉기, 노재경, 이도경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3) 齒衛生科

85학년도에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다. 93학년도 현재 6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구강 질환 예방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시켜 치위생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을 학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미, 김영희, 강재경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4) 看護科

84학년도에 9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개설되었다. 3년제이며 93학년도 현재 1,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인도주의 및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주는 전인 간호를 실천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인경선, 정운숙, 민혜숙, 김명숙, 김혜령, 손정남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라. 부속기구**1) 도서실**

81년3월 개교와 동시에 설립되었다. 처음엔 영북관 4층에서 개판되어 운영되다 곧 노학관 5층으로 이전하였으며, 89년도에는 우암관

학교순례

3층에 227평 규모로 360석의 열람실과 서고 실을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 39,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2) 학생지도 연구소

학생 생활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 및 직업 보도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해 개설되었다. 82년도 취업지도 위원회가 효시로,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이 있었다.

3) 진로 정보 센터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공사 기업체의 취업정보, 진학 및 해외 유학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지역 사회 연구소

89년3월에 편성되었다. 영북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발전, 지역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이에관한 제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5) 학보사

학보발간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학장이 발행인이다. 매년 4~6회 4면으로 발행하고 있다. 81년6월에 개설되었으며, 처음엔 '속대학보'라 칭하다 교명이 바뀜과 동시에 현재와 같이 '동우대학보'로 바뀌었다.

6) 교육방송국

개교와 함께 방송반이란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5분뉴스, 안내캠페인, 보도기획, 노학의 메아리, 차한잔을 나누며, 동우인과 함께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7) 양덕원

개교와 동시에 현 부속유치원 자리에 세워진 여학생 기숙사이다. 85년9월에 현재의 3층 건물로 옮겼다. 현재 수용인원은 382명이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오락실, 피아노실, 세탁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8) 양호실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9년9월에 설치되었다.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건강관리, 건강상담 및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 지도도 겸하고 있다.

9) 부속유치원

86년9월에 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다. 90년 현재엔 6학급에 총 원아 240명에 이르고 있다. 교실 여섯개, 유희실, 시청각실, 자료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장 시설도 갖추고 있다.

마. 특별교육기구

1) 부설 노인대학

현대 생활에서의 노인의 사명과 역할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82년도에 처음 개설하였다. 첫 해에 110명의 입학생으로 개강하여 그 다음해 78명을 수료시켰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업시간은 50~80시간이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교양과목, 건강관리, 취미 오락 음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 부설 주부대학

82년도에 속초 관내 주부 30여명을 제1기 수강생으로 하여 개설하였다. 주1회씩 5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주부로서의 교양과목을 이수하였는데, 제2기부터는 3개월씩으로 그 과정이 늘었다. 속초뿐 아니라 고성 양양의 주부들도 수강할 수 있다. 제7기부터는 이수 과정을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86년도 제8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5년간 총 416시간의 교과과정을 통해 총 478명이 입학, 327명이 수료하였다.

바. 임직원 명단

1)法人任員

성명	임원변경전		임원변경후		현직
	직위	재임기간	직위	재임기간	
全載旭	이사장	'80.11.3~'88.11.5	이사	'88.11.6~'92.11.5	설립자 겸 학장
金宗煥	감사	'82.8.17~'89.2.15	이사장	'89.2.14~'92.11.7	한국센트랄제약(주) 사장
宋一鎬	이사	'80.11.3~'89.2.28			법인 상임이사
吳根學	이사	'80.11.3~'86.2.12			(故人)
金鐘大	이사	'80.11.3~'81.8.20			강릉상고 교사
李相夏	이사	'80.11.3~'89.2.28			아주대학교 교무과장
趙炳世	이사	'81.9.1~'88.11.5			동우여고 교장
金龍棟	이사	'81.9.1~'86.1.31			(故人)
朴英熙	이사	'82.2.4~'86.2.12	이사		중앙 유아원장
高順子			이사	'83.1.7~'91.1.6	한국과학체육대학 교무처장
嚴周井			이사	'86.2.12~'92.11.5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洪性冕			이사	'86.2.12~'94.2.20	제주은행회장
金鳳鶴			이사	'89.3.15~'93.3.14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南像瑀			감사	'89.3.15~'93.3.14	동성관광(주) 감사
張基齊				'80.11.3~'90.11.6	동우전문대학 교수
李相集	감사	'80.11.3~'81.8.31	감사	'88.11.8~'90.11.7	한국도자기(주) 대표이사
金恩洙					

2)歷代學長名單

구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비고
순위				
1	대	학장	韓相甲	'81.3.1~'85.2.28
2	대	학장	李相稷	'85.3.1~'89.2.28
3	대	학장	全載旭	'89.3.1~'93.2.28

3)教授名單

성명	전공과목	보직	비고
전재우	법학	학장	
이원재	경영학	부학장	
이상집	영학	교학처장	
이상권	학	교무과장	
박준승	경영학	경영과 학과장	
박유식	행정학		
김남근	영학	세무회계과 학과장	
최임규	국어학	교육방송국 지도교수	
장기용	제학		
김종식	법률학	행정과 학과장	
심재빈	행정학		
문영규	행정학		
위정주	관광영학	관광과 학과장	
이병연	관광영학	학생과장	
김덕형	영문학	어학교육실장	
김상옥	일어학		
오현근	식품공학	식품영양과장	

학교순례

4) 職員名單

성명	소속	비고	성명	소속	비고
위영일	서무과	서무과장	김진	학생과	서기
서진원	학생과	학생주임겸 과장대리	전장수	학생과	서기
윤기순	교무과	교무주임	전재란	학생과	부서기
강성근	교무과	교학주임	최채영	부속실	기능직
전영철	서무과	서무주임	현정란	기숙사	기능직
진규재	도서관	서기	김윤숙	기숙사	기능직
김병렬	교무과	서기	김용기	관리과	기능직
윤여길	교무과	서기	김희열	관리과	기능직
정병철	교무과	서기	김효원	관리과	기능직
지정희	교무과	부서기	전태근	관리과	기능직
엄기만	서무과	서기	김갑수	전자계산과	조교
노승용	서무과	서기	한정희	간호과	조교
신진영	서무과	기능직	강종희	사진과	조교
최은심	서무과	기능직	김영남	치위생과	조교
강순덕	서무과	기능직	이선희	치기공과	조교

사. 卒業生 現況

학과연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계
경영과	122	62	74	72	100	123	115	113	89	105	122	1,097
세무회계과	125	51	43	51	51	42	76	94	86	80	83	782
무역과	107	28	21									156
행정과	87	58	44	56	70	68	62	101	98	118	120	882
관광과	94	79	107	127	121	144	138	159	140	142	157	1,408
식품영양과	102	33	58	60	59	68	68	57	59	77	110	751
유아교육과	160	131	160	151	162	167	175	155	154	160	155	1,730
법률실무과		18										18
의상과		32	29	24	29							114
일어과			27			44	54	101	111	102	103	116
전자계산과								102	103	116	131	762
치기공과						59	64	74	76	64	67	72
치위생과							83	167	171	169	151	149
간호과							78	80	89	80	78	81
양식과								35	21	24	35	27
여성교양과									69	107	115	119
사진과										20	55	46
계	797	492	563	644	871	1,034	1,116	1,184	1,176	1,305	1,404	10,586
누계	797	1,289	1,852	2,496	3,367	4,401	5,517	6,701	7,877	9,182	10,586	

학교순례

아. 입학정원

(1993학년도 현재)

학 과	입 학 정 원	학 과	입 학 정 원
경 영 과	120명	여 성 교 양 과	120명
경 영 과 (야)	80명	전 자 계 산 과	160명
세 무 회 계 과	120명	전 자 계 산 과 (야)	120명
행 정 과	120명	전 자 계 산 기 과	80명
행 정 과 (야)	80명	사 진 과	120명
관 광 과	200명	수 산 개 발 과	80명
관 광 과 (야)	80명	치 기 공 과	80명
식 품 영 양 과	120명	치 위 생 과	120명
유 아 교 육 과	160명	간 호 과	160명
계 14 개 과	2,120명		

'94학년도 동우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주요사항

학과별 입학(모집)인원

계열별	학과별	모 집 인 원					전 형 방 법 및 비 율			복 수 지망범위	1지망 합격율	
		일반 %	우선 %	특별 %	계	일반 (%)	우 선 (%)	특별 (%)				
공 업	전자계산과	주 120	60	20	10	60	30	20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전 체 학과	100
		야 36	30	12	10	72	6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2지망까지	100
	전자계산기과	48	60	8	10	24	3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허용	100
농업	식 품 영 양 과	72	60	12	10	36	3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4개과)	100
수해	수 산 개 발 과	48	60	8	10	24	3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보 건	치 기 공 과	72	90	8	1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시 회	치 위 생 과	108	90	12	1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경 영 과	주 72	60	12	10	36	3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야 24	30	8	10	48	6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관 광 과	주 180	90	20	10			20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야 24	30	8	10	48	6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세 무 회 계 과	72	60	12	10	36	3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여 성 교 양 과	108	90	12	1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유 아 교 육 과	144	90	16	10			16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행 정 과	주 108	90	12	1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야 24	30	8	10	48	60	8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예능	사 진 과	72	60	12	10	36	30	12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내80+면20 내90(1~5등급)+면10		100
		1,476		216		468		2,160				

내신성적 : 내 면접고사 : 면

속고인의 혼(魂)으로 웅비(雄飛)의 나래를 펴고

“영북의 명문고” 속초고등학교

세계의 수많은 인종 중에, 민족의 우수성이 라는 측면에서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유태인의 힘든 역사 속에는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전해주는 교훈이 수없이 많다.

기원전 70년경 유태인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에, 침략하는 로마대군에게 함락되기 직전, 유태인의 스승인 랍비가 야음을 틈타서 성을 빠져 나와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 성안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 하나를 온전하게 보존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바로 학교였다. 로마 장군의 약속을 받은 랍비는 성으로 돌아와 대중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은 망하더라도 유태인의 교육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묵상에 잠기었다.

이 일화는 비록 다른 민족의 이야기일지도라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한 지역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뛰어난 인재 육성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그 인재를 가꾸어 내는 교육 현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현장은 지역사회와 미래상 정립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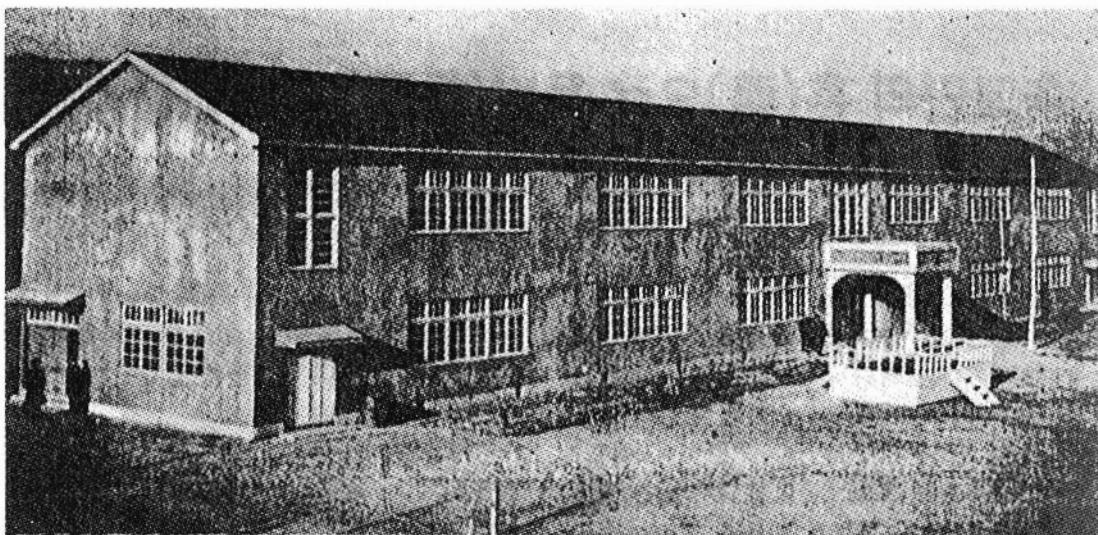
특히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역주민 전체가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그로인해 괄목한 성과를 얻었을 때는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속초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토착민이 아닌 실향민이 차지하고 있기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두고 온 북녘의 고향을 그리며,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발전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를 않았고, 설사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여건으로, 교육시설의 조성과 개선에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도 6·25사변으로 인한 포연이 채 가셔지지도 않은 1952년 6월 2일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정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비록 교실, 교무실 각 한 칸씩 모두 두 칸의 목조 건물이었지만 남녀 60여명의 신입생을 받을 수 있었다.

40여년전 갈라진 판자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하늘을 바라보며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던 속고인들, 빼겨내는 책걸상이 불편





1955. 6. 7 속초1구 신축교사 이전(현 영랑동)

한 줄도 모르고 생업과 학업을 병행했던 그들이 어쩌면 속초고등학교의 탄생을 지켜 본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속초고등학교의 짧지 않는 역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화협, 강건을 교훈으로 삼고 지금까지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52년6월2일 지금의 속초국민학교 서편에 교실 두 칸으로 문을 연 속초고등학교는 초대 교장인 서창하 선생님과 교감, 교사 3인과 신입생 60여명(남·여)으로 출발하여 1955년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55년6월 현 영랑동 양우APT 자리에 신축교사(2층, 12교실)로 이전하여 조금은 나아진 교육환경에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빈가슴을 채웠다. 사실 신축교사라 해야 목조건물로 보잘 것 없는 시설이었다.

1961년9월 제2대 김창성 교장이,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제3대 정치규 교장이 부임하여

개교 10주년을 맞았다.

특히 초기의 속초고등학교는 운동에도 남다른 열의를 가져 그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배구, 탁구 등이 각종대회를 휩쓸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였다.

1965년12월 현 설악중학교 본관자리로 이전, 세번째 교사(校舍)로 이전하였고, 1966년 12월 병설로 설악중학교 설립인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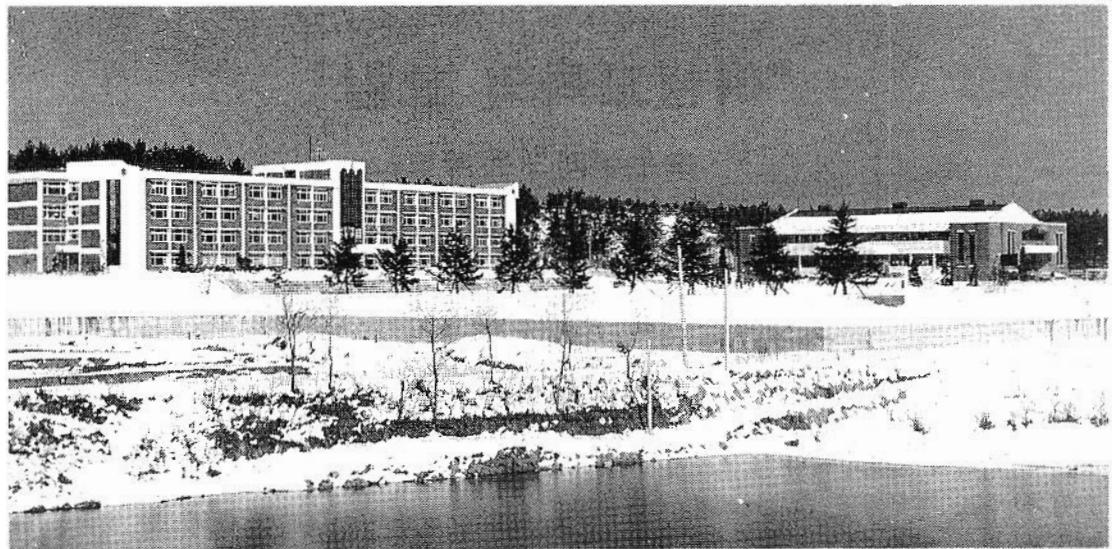
1968년3월 제4대 유형설 교장이 부임하여 현 속초중학교 본관자리에 신축교사를 착공하였다.

1970년2월 제5대 권혁춘 교장이 부임하였고, 그해 3월에 신축교사로 이전하였다.

1971년9월에 설악중학교와 분리인가를 받았고, 8월에 제6대 이원복 교장이 부임하였다.

1972년7월에 개교 20주년에 행사와 함께 12월에 20개 교실이 완공되었다.

1973년5월 제7대 유형설 교장이 다시 부임, 속초고등학교의 발전과 시설확충에 온 정열을 쏟았다. 1979년3월 제8대 김원걸 교장이 부임하여 1982년6월에 개교 3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육성종목인 배구부



는 도내는 물론 전국의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82년9월에 제9대 이승근 교장이 부임하여 많은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력제고에 힘써 명문대에 학생을 진학시켜 명문고교로서의 토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1985년9월에 부임한 제10대 최지곤 교장은 한층 높아가는 학습 열기 속에서 학력제고에 힘썼으며, 88년11월에는 장사동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훌륭한 교육환경과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로 영북지방의 명문고교로서 영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잘 조직된 동창회의 막강한 힘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에게 조성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종 학교시설의 보수와 확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993년2월, 제39대 졸업생을 기점으로 총 9,639명의 졸업생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이력과 숫자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더욱이 그들이 각 지역에서 동문회를 결성하여 돈독한 우의

와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여 모교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무릇 한 지역의 고등학교가 명문고교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동문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교심으로 가득한 재학생의 정열이 있어야만 한다.

다섯 번의 교사(校舍)이전, 낙후된 시설들,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어려웠던 생활도 속고 인임을 잊지않는 초로의 동문과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교사의 열의가 있는한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고교 속초고등학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끊임없이 발전해 갈 것이다.

영랑호의 투명한 수면에 신비한 설악의 모습이 아로 새겨진 조화로움 속에서 오늘도 속초고등학교는 모교를 사랑했던 동문들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새기기 위해, 속고인의 혼이 담긴 속고인의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성교육의 요람”

속초여자고등학교

一. 建學理念

東草女子高等學校는 6·25이후 各處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급성장한 東草地域 여건상 他都市에 비하여 愛鄉心이나 女性教育에 대한熱意가 다소 不足했던 嶺北地域의 女性教育擴大를 위해 당시 男女共學이었던 東草高等學校에서 分離하여 1963년에 開校하였다. 本校가 속한 東草市는 漁業과 觀光이 주업이었던 관계로 學父母들의 생활이 비교적 불안정하였으나 차츰 經濟的 安定을 기하면서 女性教育에 대한 認識이 높아지고 학생수도 급격히 增加하였다.

이에 本校는 이 地域을 이끌어 나갈 女性人材를 教育, 輩出하기 위하여 勤儉 節約하고 맑은 바 責任을 다하는 부지런한 女性, 創意의이고 健全한 生活習慣을 지닌 誠實한 女性의 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本校의 敎訓인 勤勉과 誠實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勤勉과 誠實은 女性이 갖추어야 할 많은 德目중 이 地域社會가 要求하는 가장 現實的인 德目이라 하겠다. 勤勉은 우리 地域社會가 要求하는 生活習慣의 德目이요, 誠實은 女性이 갖추어야 할 心性의 德目이다. 즉 本校의 敎訓인 勤勉과 誠實은 女性의 行動과 心性의 德目을 規定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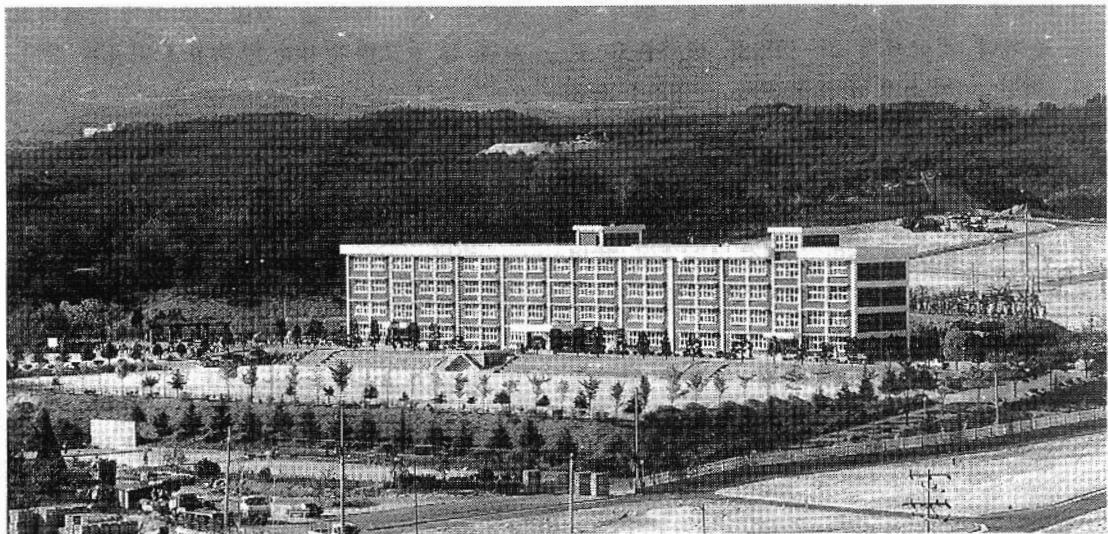
二. 本校의 象徵

本校의 배지(badge)는 꽃잎 모양을 한 白色 바탕에 초록색 꽃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白色圓을 바탕으로 “고”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다. 基本形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본뜬 것이다. 그 꽃의 색깔이 초록으로 된 것은 늘 푸르름과 清純함을 象徵하고 있으며 白色 바탕은 純潔과 素朴을 象徵한다. 白色圓은 東海의 솟아오르는 아침의 해와 圓滿하고 和合하는 氣品을 象徵하는 同時에 模範의 婦德을 象徵하고 있다. 또한 이 圓形은 分斷된 祖國의統一을 念願하는 뜻도 包含하고 있다.

本校의 敎化는 石榴이다. 石榴는 석류나무科에 속하는 활엽 교목으로 초여름 짙은 주홍색의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담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石榴는 꽃의 모양은 별로 볼





품이 없으나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藥材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石榴는 꽃보다 열매를 보기위해 기르는 나무이다. 이는 人生에 있어 삶의 結果가 매우 아름다우며 그 삶이 後代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藥과 같은 模範的인 것이어야 한다는 教訓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本校의 校木은 향나무이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 庭園樹로 이용된다. 향나무는 곱게 다듬지 않으면 그 韻致를 자아낼 수 없다. 또한 한겨울에도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다. 女人도 향나무와 같이 곱게 다듬어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逆境 속에서도 節概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향나무는 가장 女性的인 나무다. 또한 이 나무는 香氣를 가진 나무로 그 用途가 多樣하다. 女人도 이 나무와 같이 그 나름의 香氣를 가지고 多樣한役割을 한다는 점에서도 一致한다.

三. 東草女高의 어제

修復 後 東草市의 發展과 人口 增加에 따

라 女子高等學校의 設立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副應하기 위하여 1963년2월22일 東草女子中學校 併設로 3학급規模의 東草女子高等學校의 設立이 認可되고 서병로, 홍맹식 교사가 발령되었다. 그해 3월 20일 開校式을 거행하고 12월에 金甲 東草女中校長이 高等學校長을 兼任하면서 東草女子高等學校는 그 體裁를 整備하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3학급에서 6학급으로 增設되면서 신현철 속초여중 교감이 고등학교 교감직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1969년에는 최호덕 교감의 赴任으로 高等學校는 中學校와 行政的業務를 分離하였고, 1970년에는 中學校併設에서 완전히 分離되어 제3대 김명섭교장의 赴任과 함께 高等學校 단독 運營 體系를 갖추었다.

1972년 地域社會의 要求에 따라 實業課程을 運營하기 위하여 學校名을 東草女子綜合高等學校로 變更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學則을 改訂하여 東草女子高等學校로 還元하고 就業을 위한 商科를 운영하였다.

1978년12월 學則을 變更하여 24학급(각학

학교순례

년 8학급, 인문 6, 상과 2)으로 學生數가 대폭 늘어나 지금까지 그 骨格을 維持하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 女性教育에 消極的이었던 地域社會 주민들이 비로소 女性education에 대한重要性을 認識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

1993년 本校는 開校 30週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월에는 제28회 卒業生 410명을 輩出하여 卒業生 總數가 8,358명에 이르게 되었다. 93學年度가 시작되는 3월에는 제8대 김택 인교장선생님의 赴任과 함께 學校의 雾圍氣를 一新하여 學生과 教職員이 一心同體가 되어 嶺北 제1의 女性education 본산으로 그 位相을 굳건히 하고 있다.

四. 本校 教育의 特色

束草가 觀光, 漁業 都市인 관계로 教育 都市로의 發展에는 다른 都市에 비해 좋은 與件은 아니나 市民들의 教育現場에 대한 期待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勘案하여

本校에서는 多樣한 方法으로 이에 對處하고 있다. 그 주요한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努力重點

1)基礎 學力의 提高

- 教師는 學校 教科授業을 密度있게 進行한다.
- 學生은 家庭에서 自律的으로 學習할 수 있는 態度를 定着시킨다.

2)修學能力考查 對備

- 教育 放送을 錄畫하여 다음날 自律學習時間에 再放映한다.
- 週1회 읽기 資料를 作成하여 配付하고 結果를 點檢한다.
- 教育情報들를 迅速히入手 分析하여 學習方向을 提示한다.

3)情緒및 道德性 涵養 教育

- 月例朝會를 實施하여 適切한 訓話 教育을 實施한다.



- 6대 德目을 揭示 活用한다.

五. 現况

4) 實驗·實習 教育의 強化

- 實驗·實習 時間을 教科課程에 따라 徹底하게 履行한다.
- 科學班 運營을 통한 科學 英材 教育을 實施한다.

2. 特色 教育

1) 登下校時 學生 짐 덜어주기

- 各 學級에 個人 私物函을 設置하여 活用한다.

2) 特別活動 運營의 全日制

- 可能한 多은 活動 部署를 運營하도록 한다.
- 校內의 施設은 물론 地域 社會의 各種 施設을 利用한다.

3) 情緒 및 思考力 伸張

- 校校 藝術節와 校誌의 發刊을 隔年制로 實施한다.
- 「2년 통신」誌를 月 1回 發刊한다.

4) 資源 節約

- 우유팩 모으기와 廢品 菁集을 통한 節約 精神을涵養한다.

1. 教職員 現況

(1993년 3월 현재)

區分	教員				一般職				總計
	校長	校監	主任教師	教師小計	6級	8級	技能職	雜給職小計	
男	1	1	8	27	37	1	1	3	5 40
女			3	18	21			3	3 26
計	1	1	11	45	58	1	1	3	8 66

2. 學生 現況

(1993년 3월 현재)

學年	1	2		3		總計	
	課程	人文社	自然	小計	人間社	自然	
區分	共通	會課程	課程	小計	會課程	課程	小計
學級數	8	4	4	8	5	3	8 24
學生數	385	191	186	377	247	152	399 1,161

3. 進學 現況

(最近 3年間)

區 分	卒業 生數	進學者 數					進學者 總數	全體 進學率	
		4年制 大學		專門大學					
		前期	後期	小計	進學率	人員	進學率		
91學年度	438	92	67	159	36%	193	44%	352 80%	
92學年度	424	94	61	155	36%	201	47%	356 83%	
93學年度	410	80	56	136	33%	225	54%	361 88%	

상업 교육의 전당

속초상업고등학교

시외곽에서 속초로 들어서자면 설악산을 뒤로 한 청대산 푸른 자락에 고즈넉히 자리한 몇 등의 흰 건물이 있으니 이곳이 속초상고요, 우리는 그 지명을 따서 자신들을 청봉인이라 부르고 있다. 산기슭에 총총이 자리하여 각동의 높은 층에서는 시가지와 항구가 한눈에 굽어 보이니, 청초호를 아득히 감싸며 먼바다로 향하는 항도의 정경에서 평화로움과 부두의 생동감을 함께 느낀다.

설악에 뿌리박고 동해와 더불어 호흡하는 청봉인의 태동을 되돌아보자. 1968년 11월 22일 속초실고 9개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9년 첫 청봉인이 입학했으며, 이후 1976년 3월 1일 속초상고로 교명을 개칭한 이후 몇번의 학급 증설을 거쳐, 현재는 매학년 상업과 7학급, 정보처리과 2학급 등 총 27개학급, 82명의 교직원을 거느리는 영북지구 최대 규모의 학교로 성장, 발전을 했으니, 이는 순수상업계고교로서의 전문성과 기능인 특유의 현실적 자긍심이 어우러져 20여년 성장동안 가꾸어온 결실이리라.

청봉인의 아침 등교는 원로교사 민복기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청봉가족의 노의 장께서는 365일 교문앞 등교 지도로 예절 교육과 면학의 아침을 자임하신다. 청봉인의 아침 역시 바쁘고 분주하나 그 속에서도 여유와 생기가 있으니 이점 다급히 돌아가는 여타교과의 차이일 것이다.

청봉학사는 “배우자, 일하자, 질살자”라는 교훈아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상업 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실업계 고교의 특색교육에 전력하고 있다. 청봉인의 대다수는 각자

의 적성과 장래성을 숙고하여 청봉가족으로 합류했으며,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맞쳐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꿈은 조기 취업 및 사회 진출로 실현될 것이다. 이점 역시 적성과 능력을 도와시하고 대학진학의 외길로 치닫다가 사회생활의 준비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재수와 무직의 상태로 몰리게 되는 인문고 출신자와 대별되는 점일 것이다.

능력있는 상공기능인 내지 정보처리기능사를 꿈꾸는 청봉의 신세대가 쉼없이 뛰고 있다. 1인1기능이상의 특기 가지기를 목표로 전교생 기능자격취득 및 한급수 더 올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연일 전산 실습에 매달려 언어 및 문서편집 기능을 연마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학교는 취업설명회 및 취업희망자 조사, 취업 상담, 업체 방문을 통한 학교 홍보 및 취업정보수집, 사회진출 선배조언 및 현장 실습, 직장예절, 윤리교육 등으로 청봉인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은 졸업이전에 이미 새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등 매년 희망자 대부분의 취업이 달성되고 있다.





청봉인의 또 다른 자랑은 전전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성격 형성을 위하여 각종 씨클 및 수련활동, 축제등의 학내행사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삼아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활하며, 학보 및 문집 발간, 전일제 도서관 개방 및 도서대출, 강당 개관,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의 전개로 한층 애교심을 드높인 것이다. 다만 전면의 넓은 건물이 다소 불편스럽기는 하나 차후년도 개축대상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다.

청봉가족의 빠질 수 없는 일원이 있으니 주경야독으로 만학의 열정을 토해내는 방송통신고 학우들이다. 본교 부설 방송통신고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으로 상당수의 대학 진학자를 배출했으며, 전국 유일의 방통고예술제 개최, 문집 “속새풀”을 발간하는등 학교 속의 또 다른 학교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민을 위하여 평

생교육의 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자. 이 지역 교육의 산 중인이신 김술갑 교장 선생님께서는 명년의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교직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으며, 새학기 교장 임용을 목전에 두신 김경석 교감선생님께서는 강원도 교육청 상업과 장학사로 다년간 역임하신 실업계 교육의 베품목으로서 청봉인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또한, 본교의 전산실은 전산교육계의 홀륭한 분들로 팀웍을 이루고 있으니 각종 학사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및 정보의 전산처리, 교사, 학생의 전산교육으로 밤을 지새고 있으며 그외의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청봉기술이 실업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후로도 자기연마속에 성장하는 청봉인의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중한 뭇을 담당하며, 각계의 요처에서 중용되는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속초상업고등학교현황

1. 연혁

- 1969. 11. 22 속초실업고등학교 설립인가
- 1976. 3. 1 속초상업고등학교 개칭
- 1986. 12. 30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87. 9. 21 17학급 증설인가
- 1993. 2. 10 제21회 졸업식(졸업생 422명) 총 6,214명

2. 교직원 현황

구분	직	교 원				일 반 직					총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사무관	주 사	주사보	기능직	잡금직		
현 원		1	1	68	70	1	1	1	4	3	10	80

3. 재학생 현황

학년	상업과	정보처리과	계
1	333	94	427
2	302(1)	72	374(1)
3	312(1)	86	398(1)
합계	947(2)	252	1199(2)

('93. 10. 14 현재)

4. 교육목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상업 경영인의 육성

5. 기능급수 현황

학년	종목 급수	주 산			부 기			한글타자			영문타자			W/P	
		3	2	1	4	3	2	3	2	1	4	3	2	3	2
1		116	19	3	114	126	4	52	40	2	0	3	2	4	0
2		104	129	10	8	116	132	95	80	1	0	64	7	17	2
3		33	227	36	46	50	213	72	114	1	0	101	7	37	4
계		253	375	49	168	292	349	219	234	4	0	168	16	58	6

('93. 10. 14 현재)

6. 취업현황(92년)

재 적	취업희망자	금융기관	증권·보험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계	취업률
422	362	22	40	65	228	355	98.07

7. 진학현황(92년)

재 적	진학희망자	4년제	전 문 대 학	계
422	60	1	43	44
재 수 생		1	73	74

8. 학교명 본교지원 현황(92년 모집인원 : 432명)

종 학 교	속 중	속여중	설 중	설여중	강현중	양여중	현복중	동광중	고성중	기 타	계
지원자수	53	139	62	136	19	9	4	20	7	7	456

■ 창작시

가을에 핀 진달래

아직 넌 떠나지 않았구나
넋을 나꿔채듯
아지랑이 속
황홀한 축제를
끝내 사양하고

스쳤던 소매깃에
덜 아문 가슴은

멸시를 이겨내고
통곡을 삼키더니

욕망을 다 버린
빈 몸짓으로 돌아앉아

한자락 남은 가을 햇살에
서툴게 살아온 세월의 빛깔은

한잎 마침표로

침묵의 뒷을 놓는
너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구나



송 현 정

《약 력》

- 경기도 포천 출생
- '92, '93 사임당 백일장 입상
-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 창작시

달 팽 이

오늘도 가야지
비 개인 아침
떠오르는 햇살을 그리며
항상 꿈을 키워야지

나의 세계는
동판 위에 얹혀진
나선형의 껍질 속
하늘이며 땅이며 어머니 손길

지구의 땅덩어리
모두 돌아보고 싶어도
메말라가는 세상
가녀린 몸뚱이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지붕을
운반하기 힘들어 비좁은 굴 속에
웅크리고 앓아 빗장을 걸면
문 밖으로 흐르는 시간이 멈춘다

그래도 가야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마음은 언제나 꽃으로 피워야지

곡선일 수 밖에 없는 길
꿈은 늘 푸르다.



김 승 기

《약 력》

- 속초 출생
- 90년 「교육정론」에 권두시
「물」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 현남중학교 근무
- 물소리 詩낭송회 총무

■ 창작시

바 느 질

병아리 솜털같은 한나절

지난밤 벌어졌던
그와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
온빛 자성의 바늘을 듣다

벌어진 틈만큼
키 늘인 미움
팽팽한 실오리에
줄타기를 해대고
도리짓하는
씨줄과 날줄 속에
조금씩 맞물려가는
사랑의 실체

갈라진 감정은
매듭 위에 멈춰서고

행여나 풀어질까
확인하는 손끝에
속없이 피어나는
이 춘삼원 꽃 부스럼은



최명선

《약력》

- '92사임당백일장 시부문 입상
- '93사임당백일장 시부문 차상
-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 창작시

송지호 연가

오봉산 자락을 휘어감는
단아한 미소는
하늘이 고여있는 바다입니다

천년의 침묵으로 긴 시름 거두는
청아한 가슴은
그리움 가득한 천상의 연못입니다

비상한 철새의 빈 자리엔
투명한 들꽃이 아득히 피어나고
마일간 빙어가 하늘로 헤엄치는 것을

적동에서 언뜻 불어온 솔향기에
쇠잔한 송호정은
다정한 옛님이 그리워
하늘과 하나되어 고요합니다.



이 선 국

《약력》

- 고성 출생
-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 강원도 공무원문학회 회원
- 현재 고성군 죽왕면사무소 근무

■ 창작시

아버지의 짊음

아버지라는 이름속에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한사발 들어있다

아버지를 부르면
저 가슴밑 바다부터
밀려오는 파도소리
—무겁다

유난히도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짊음
그 술에 진저리를 쳤던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

아버지의 발걸음은 언제나
붉은 노을에 젖어 있었고
매일밤 우리들에게 쏟아놓는
아버지의 언어는 바람처럼
흔들려 마당 한가득히
넘쳐 흐르곤 했다

그럴수록 깊어만 지던
어머니의 한숨소리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마셨던 그 독주를
지금은 우리들이 마신다
아버지의 술잔은 절대
받지 않겠다던 아들녀석까지도

술을 드시고
잠든 우리들을 내려다 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거대한 장승이었다

허나 그 술은
전쟁을 살고
보리고개를 넘어오신
아버지의 아픈 역사였다

지금 아버지는
그 배고픈 술맛을
흙속에 묻으셨다
그리고 무상했던 짊음을
땅을 갈며
주름고랑의 깊이로 보상하신다

시간은 흘러흘러
모든것이 과거속에 묻혔지만
가끔씩 아버지의 짊음이
그리울 때가 있다
—슬픈 그리움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발걸음에
묻어오던 그 붉은 노을이
오늘은 서편 하늘가에서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네요
아 · 벼 · 지



김 영 남

《약 력》

- 양양 출생
- 동우전문대 치위생과 졸업
- 현 동우전문대 치위생과 조교
-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문예창작 동우회원

■ 창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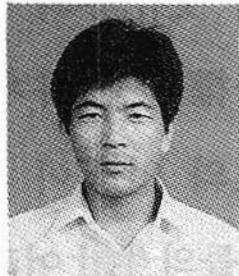
20세기를 보내며

하늘이 와장창 부서지는 날엔
하늘 닿기 한 걸음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보아야지

백두산 솔 겹질로 도배한 손등은 넘어지고
그
우리들 부모네의 눈에는
동토의 굵은 마디가 망막을 가로 내달렸다

제 살을 부식하고
속을 들춰도
우쭐로 출렁이는 깃발은 깃봉에 훨씬 못 미치고
하늘은 자꾸 자꾸 내려오고 있는데

고조선의 먹물로 검게 자란 내 눈동자는
비상하다고만 알고픈 만족의 과瘤치
내가 울 수 있다면
검은 눈물이 봇 끝에 흠뻑토록 울 수 있다면
淸天에 칼이라도 찍 그어
멀구어진 한 편 조각마다엔
부모네 팔뚝같은 글로 채워 보아야지.



이 용 구

《약 력》

- 속초 출생
- 성남 거주
- 「조은기획」 대표
-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故 池一權문화원장 영전에

故 池一權
문화원장

지역 文化界의 큰별

池一權원장 타계

故人의 업적이 찬란

유족들의 生計 어려움이



89년3월24일 제7대 원장으로 부임한 故 池一權원장은 재임기간중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93년1월16일 오전7시 심장마비로 갑자기 운명해 문화가족들을 슬프게 했다. 故 池一權원장은 1972년4월5일 함경남도 이원군 군선면에서 출생, 함남중학교(함홍)를 졸업, 원산교원대 박물학과를 졸업, 6·25전쟁으로 남하, 강원도 경찰국(축구선수)에 근무, 54년에 한국일보 창간사원으로 입사, 원주, 춘천, 양구, 속초주재기자로 1984년까지 재직, 정년퇴임후 속초시에서 대청정화공사 대표, 89년3월 속초문화원장으로 부임하여 91년에 시민들의 숙원이던 속초시지 발간사업을 주관, 1년간의 각고끝에 1,344쪽 4.6배판의 속초시지를 만들어내 각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어 속초문화원 향토사 연구회원들의 집필로 속초지명 4.6배판에 269쪽의 속초의 향토민속(장릉대 張正龍교수 집필)을 발간하고 92년12월15일 속초문화회관 별관3층에 진평 56평 규모의 문화사랑방과 사무실을 신축, 1억원을 들여 영상음악시설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결장을 완비, 도내 최우수 시설을 갖춘 문화사랑방(40평)을 준공, 시민들에게 영화, 음악 감상, 강의받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업적을 쌓았다.

또 91년도엔 속초시문화상을 수상한바 있고 설악제 부위원장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사업 발전에 눈부신 활동을 벌인바 있었다. 故 池원장은 93년1월15일(토요일) 오후5시 연초순시차 속초에 온 지사가 주관한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후 귀가하여 취침중 심장마비증세가 발생, 중태에 빠진것을 1월16일 오전7시 맏아들이 도립 속초의료원에 긴급 후송했으나 아무 보람도 없이 다정한 벗들과 가족들의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다.

故 池一權원장은 문화원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져 고성군 토성면 인홍리 이원군 묘역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2녀를 두고 있다. 연락처는 33-5100번이다.

일산장학회를 찾아서



이사장 김종록

일산장학회

지구상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동물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중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사고능력과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창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실험정신이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을 꽂 꾀웠다면 이는 자연 다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50억 가까운 인간이 한결같이 그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차이에 따라 문명의 발달 정도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천년기계로는 나무를 심고, 백년기계로는 사람(인재)를 심으라…”라고 말씀하신 선현들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교육 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열의 결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의지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경제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여 방황하는 것을 볼때 본인은 일제 말엽 청소

년 시절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몸소 체험을 하고, 고학하였기에 평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가족과 숙의한 결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 결핍으로 낙오되는 청소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을 주어, 이 겨레와 민족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등의 평소의 생각을 합치하여 일차적으로 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일산(一山)장학회의 명칭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본 재단법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본인등은 이러한 출연의 뜻에 따른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본 지역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설하며, 품행이 방정한 젊은 학생으로서 가정의 빈곤으로 학자금의 조달이 곤란하여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속초시 거주 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육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西紀1991年10月28日 月曜日 江原日報



◇자신이 만든 一山장학재단에 시가 10억원의 땅을 출연한 金鍾祿씨(右)와 아들 一洙씨가 기부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人生 마감할때… 손 비워야죠”

10억땅 장학금 선뜻

前속초문화원장 金鍾祿씨 11만평 出捐

어려운 故鄉후배에 소금됐으면

○… 어렵게 고학을 하며 학업을
마친 金鍾祿씨(67·전 속초시 번영회
장동원장 53·1)가 자신이 설립한
一山장학재단에 땅 11만평을 내놓았
다.
속초시문화원장을 역임한 金씨
가 후진을 위해 一山장학재단을 설
립한 것은 지난해 11월.
金씨는 5천만원으로 장학 재단을
설립한 후 25일 양재근현북면도리
산30동 11필지 11여만평(시가 10억
원화가)을 또다시 출연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손을
차츰 비워야죠. 어렵게 학창시절을
보았기에 아쉬움이 많아 학문의 꿈
은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장학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金씨가 내놓은 11만평은 지난
년부터 조금씩 구입한 것으로 현재
는 잣나무가 자라고 있다.
한편 一山재단은 이미 출연한 5
천만원에서 6백여만원의 이자수익
을 얻어 25일 속초 지역 중학생 36
명과 고교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東草】

93東草文化院 중요사업 실적

전통문화계승발전 文化의 香氣 심어

93년도는 책의 해로 속초문화원은 활발한 문화사업을 펴기로 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차실히 추진하여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 했다. 1월중순에 있은 93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심의, 2월27일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1. 전통민속문화학교 개강

문화학교 개강은 속초문화원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가 성취된 뜻깊은 날이다.



문화학교 개강



대보름 민속경연대회(그네)에 참석 시민들

文化市民 궁지 안겨줘 文化운동의 生活化 이룩

이날 16개 과목으로 개강했는데 과목은 ①도의교실(朴益勳)②꽃꽂이교실(金英愛)③생활영어교실(吳允根·李仁鐵)④시와 창작교실(李聖善)⑤문학교실(朴明子)⑥건강교실(李基燮)⑦육아교실(鄭在媛)⑧노래교실(林秀喆)⑨역사의 기행(黃文星)⑩춤의세계(양숙희)⑪사물놀이교실(宋승경)⑫생활일어강좌(權德明)⑬취미생활(池經립)⑭가족계획상담(정운숙)⑮한국의 다도(최현식)⑯전통예절(김영숙)등이다.

첫개강은 수강생 확보대책이 미비하여 당초 예상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제2차 이사회를 열어 과목조정과 강의시간을 대폭 수정, 포스터와 전단 3천여매를 뿐려가면서 수강생 확보와 홍보에 나섰다. 그런데 1월16일 예기치 않았던 池一權원장의 운명으로 문화원장 준비사업등으로 문화학교 운영이 한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문화학교는 때아닌 폭설등으로 통행불편등 이유로 휴강하면서 구정을 넘긴 다음 다시 정비하여 개강하기로 했다. 시와 창작교실등 5개과목을 폐지하고 11개과목으로 1월27일 다시 개강했다. 그래도 여전히 수강생 출석률이 저조하여 집행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2월달의 공전을 거듭하다가 3월10일 朴媛赫씨의 꽃꽂이교실이 재개되면서 수강생이 처음으로 30명선을 넘어 강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해 문화원 임원들에게 새용기를 주었다. 4월부터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꽃꽂이교실등 8개과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5월초엔 영어, 일어시간 강의도 수강생 감소로 없애기로 하고 사물놀이, 꽃꽂이, 전통예절과 한국의 다도 시간등 6개과목으로 문화학교를 6월까지 운영했다.

2월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崔龍文원장

은 강릉문화원의 임영학교 운영모델을 도입, 서예교실을 신설했다. 7월1일 개강식을 갖고 문화원 임원들의 협조로 확보된 30명의 수강생으로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게 되어 문화학교 개강후 6개월간의 방황끝에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어 도내에서도 문화학교 운영 우수문화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제13회 대보름민속경연대회 개최

한때 중단되었던 대보름 민속 경연대회는 문화체육부의 권장과 속초시의 지원으로 2월 7일 대보름날에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옆 매립광장에서 시내 13개 동사무소의 후원으로 선수 80여명과 3백여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속초시장등 각급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대회를 빛내어 주었다.

이날 崔龍文대회장(문화원장)은 전통민속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속 보전하는 민족은 역사속에서도 응성했고 풍요를 누려왔다고 말하면서 조상의 슬기와 열을 계승하는 대보름 민속경연대회를 계속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대회 규정과 경기진행 방법을 집행부에서 낭독했다.

이날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방패연 ①김철휘(교동·국민은행 속초지점)②김민식(도문동)③김동표(설악동)



유네스코 사진전 개전준비에 나선 회원들

◇가오리연 ①맹승열(장사동)②정봉기(교동)③엄동용(장사동)

◇가오리연·학생부 ①임태권(동명동)②이상현(교동)

◇제기차기

▲놓고차기(일반부) ①이승수(교동)②정성수(교동)③김동억(교동)

▲들고차기(일반부) ①김홍권(동명동)②김창권(영랑)③김동억(교동)

▲놓고차기(학생부) ①김정근(속중)②박달인(속중)③김영술(속중)

▲들고차기(학생부) ①정창훈(대포국교)②박창덕(대포국교)③고종성(중앙국교)

3. 유네스코 사진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속초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동물과 인간관계를 소재로한 동물보호를 위한 사진전이 93년3월2일~7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 사진동호인을 비롯 문화가족과 시민등 1천여명이 관람했다. 이 전시회는 유네스코가 국내에서 포항, 대전등 4개시에서 개최한바 있었다.

4. 갯마당 사물놀이페 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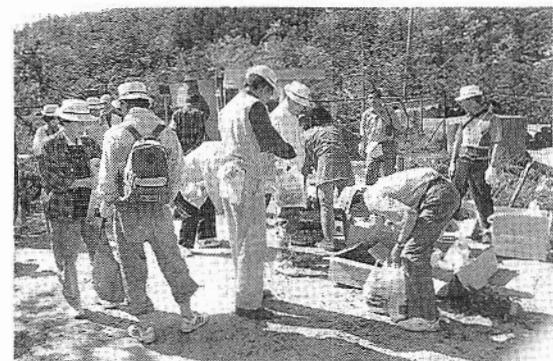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시민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1백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3년3월13일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崔龍文원장의 주재아래 千성필씨(설악프리자근무)등 12명으로 창단, 93년4월3일 시청 광장에서 金光容시장을 비롯 시청 실과장,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기념공연을 가져 많은 격려와 갈채를 받았다. 사물놀이페의 악기는 법고(法鼓)=북, 운판(雲板)=꽹과리, 목어(木魚)=장구, 대종(大鍾)=징동 4개의 악기이고 공연도 4개의 악기로 4명이 출연한다. 사물놀이는 조직적인 가락은 없어도 석기시대부터 시작된 토속음악인데 통일신라시대



지역문화 사랑방 좌담회



속초문화원이 창단한 갯마당 사물놀이페



계조암의 정토사원, 선정사의 선원 탐사에 나선 회원들

대중불교를 제창한 원효대사가 민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속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 이들의 한과 설음을 발산할 수 있는 놀이를 착안, 이를 놀이로 민중의 고통을 달래줄 음악으로 개발한 것이 사물놀이다. 불교에서 가락에 음악성과 세련미를 가해 발전시켰고 고려나 조선시대엔 외적의 침입이 있을때는 대중을 자극시키고 홍분시켜 애국심을 유발시키므로써 외적을 물리쳤고 수해나 한해가 심할때도 민중동원과 작업독려의 수단으로 활용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다. 최근에 와서는 문민정부가 수립되기전 군사정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사물놀이가 이바지한 공헌도는 지대해 그 당시는 운동권의 전용음악으로 오인받는 수모를 겪는 시대도 있었다. 요즘와서는 대중화되어 직장과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유도하는데 이바지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을 주고 있다.

5. 雪嶽山 계조암의 정토사원, 禪定寺의 선원의 탐방

속초문화원은 93년5월26일 1백만원의 탐방비로 67명의 회원들이 오전7시 속초문화원을 전세버스편으로 출발, 8시에 학사평에 도착하여 노학동 4/1 울산바위집 주인 朴鳳錄씨의 안내로 출발, 회원들은 문화원에서 제공한 도시락과 기념품을 갖고 탐방 등반하여 선정사의 선원에 도착했으나 토속 무속들이 원효대사등 고승들이 수도하던 선원을 불법 점거해 회원들을 실망시켰다. 현지 여전이 회원들의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별소득없이 이날 하산했지만 회원들에게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려는 의욕이 높아졌고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것이 큰수확이라고 보겠다.

6. 지역문화 사랑방

대한민국 예술원과 속초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지역문화 사랑방』이 7월1일 오후3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예술원 조승기 사무관의 사회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며 한국소설가협회 대표위원인 李浩哲선생(67)이 문민시대 향토문화중 소설에 관하여 좌담회 형식으로 문학강좌를 열었다. 이어 같은 예술원 회원이며 현대문학사와 문학정신사의 주간인 金潤成선생(67)이 문민시대 시의 세계와 창작요령, 문장구성, 창작자의 자세 등을 강연했다.

7. 전통민속 문화학교 서예반 1기생 입교

7월1일 오전11시 문화사랑방에서 崔龍文원장을 비롯, 문화원임원, 회원, 수강생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식을 가졌다. 전임강사는 설악서예학원장인 池應準선생이 담당하고 93년12월30일 수료하게 되는데 1기생 수료생은 30명이다. 서예반은 작품전시회를 갖는등 취미생활의 신장과 서예의 생활화에 힘을 쏟았다.



서예반

8. 해변 가족 노래잔치

속초문화원은 살기좋은 속초건설에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안하면서 시승격 30주년 경축행사의 하나이고 피크를 이룬 피서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싶은 피서지가 되기위해 8월1일 오후2시 반 속초해수욕장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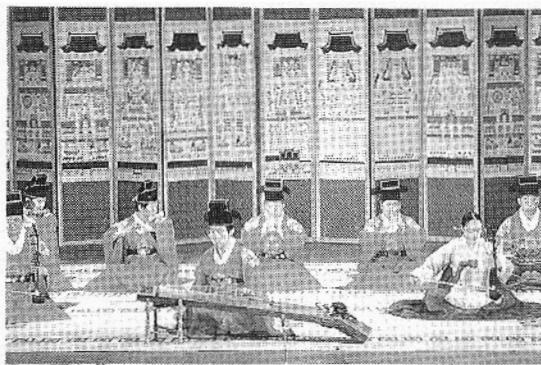
속초시와 KBS, MBC, 지방지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속초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속초예총, 연예협회회원들이 반주하는 가운데 16개팀이 출전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입장자는 ▲멋진으뜸상=김계림씨 가족 ▲으뜸상=전명철씨·김영준씨 ▲버금상=정세희, 신순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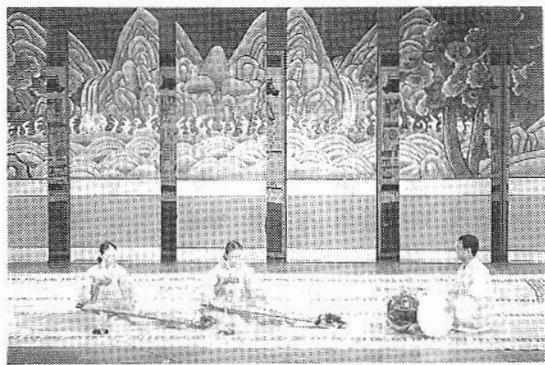
해변가족 노래잔치

9. 제28회 설악제 전야제 참석

설악대제가 봉행되는 10월1일 오후5시 수복탑광장에서 속초문화원 소속 갯마당 사물놀이패(20명)들이 대제가 끝난다음 불꽃놀이와 제등행렬이 시작되고 있을때 속초문화원 사물놀이팀은 대포국교 농악대와 같이 사물놀이의 진수를 시민들에게 선보여 격려와 갈채를 받았고 설악제 전야제 행사를 더욱 빛내는데 이바지했다.



궁중음악중 수제천을 연주하고 있다



가야금병창

10. 국립 국악원 초청공연

93전통문화 계승, 전수 보전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악원(단원 35명)단원을 초청, 10월6일 오후3시반, 7시반등 두차례 걸쳐 공연해 시민

들의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첫번째로 연주된 궁중음악은 수제천(壽齊天)인데 이는 궁중의 연향악(宴鄉樂)으로 임금의 동가(動架)에 위엄을 듣구기 위하여 쓰였고 또 궁중 무용 처용무(處容舞)의 반주음악으로 쓰여



경기민요를 부르고 있다



불가인 회심곡을 부르고 있다



궁중무용



민속음악 사물놀이

오늘날에 이르는 가위(可謂), 아악(雅樂)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명곡이다.

이곡은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는데 대금, 소금, 해금, 아쟁은 피리의 앞에서 혹은 뒤에서 돋는 형식으로 흡사 지존의 왕을 보좌하는 조정 대신들의 정경을 방불케하는 것이다. 매 장단 끝에서 다음 장단까지 피리가 쉬는 동안 나머지 악기의 연주가 이어지는데 이를 연음(連音)이라 한다. 특히 초장과 2장 사이, 3장 사이 그리고 3장과 4장 사이에는 거의 한장단에 비교되는 긴염으로 장과 장 사이를 연결하여 더 한층 연음의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악 속에서도 우뚝 솟은 대곡(大曲)이요, 그 정화(精華)이기도한 음악이다. 두번째로 경기민요는 이금미, 조경희씨의 노래로 「한오백년」「강원도 아리랑」「어랑타령」「궁초댕기」를 불렀고, 봉산탈춤은 이종호, 윤재호, 장민하씨가 춤을 맡았고 연주는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담당했다. 해금독주에서는 산조를 윤문숙씨, 장구는 장덕화씨, 가야금 병창은 강정숙, 정경옥, 강선례씨, 장구는 장덕화씨가 맡았다. 불가에서 회심곡은 이금미, 조경희씨가 서산대사(西山大師)가 지은 회심곡(回心曲)을 불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심으로 정년 아하아미이르다 아보호 용오—역조창생은 다 만민시주님네 말씀을 들어보소. 인간세상에 다 나은 은덕을 랑 남녀 노소가 잊지를 마소…』등인데 요약한 줄거리는 「부모의 공덕으로 이세상에 태어나 생전에 덕을 쌓으면 극락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불교의 교리를 이해시키고 믿게 하도록 쉬운 사설로 지은 노래다.」

마지막으로 민속음악에서 사물놀이가 남기문씨(장구), 조갑용씨(꽹가리), 최병삼씨(북), 백진석씨(징)가 열연했다.

11. 백제 문화권 탐방

속초문화원이 해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옛 문화권 탐방사업은 92년 신라권 문화유적지 탐방을 비롯 93년 신라권 문화유적지 탐방을 비롯 93백제 문화권 탐방, 94년엔 해상 제해권을 장악한 장보고의 빌자취와 숨결을 탐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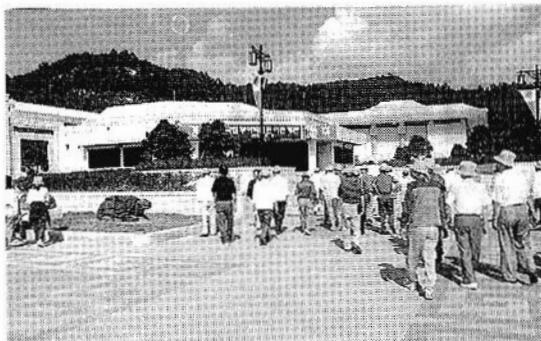
93년도 백제권 문화유적지 탐방은 탐방기가



봉산탈춤



백제문화권 탐방



부여국립박물관

제재되었으므로 내용소개를 접어두기로 하고 94년도 문화유적지 탐방은 최남단인 남서해 해안을 탐사하는 관계로 문화원이 예산의 100% 지원은 어렵고 회원들의 자체부담이 요망된다. 탐방구역은 전남 완도군의 청해진

을 중심으로 목포시까지 탐사하는데 3박4일을 예상하고 있다.

12. 東草文化 제9호 발간

속초문화 제9호는 특색있게 속초의 산과 바다, 온천, 호수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씨들을 간직한 고장이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는 맛과 멋을 갖춘 잡지라고 말하고 싶다. 東草文化는 이고장에 문화의 씨를 뿌려 이제 성년 東草의 제모습으로 국제화시대에 부상하는 관광도시로 도약의 발판을 굳히고 있다. 방황 하던 시대를 벗어나 확고한 뿌리와 자리를 잡고 시민들과 같이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방법을 밝히는 문화의 총아로서 사랑받는 잡지로 성장했다고 자부하는 마음들이 우세한 것 같다.

93定總에서 임원개선 院長 崔龍文 선출



93定總



崔龍文 원장

93정기총회.

본원의 92년도 결산과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그리고 임기만료에 따른 새임원진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2월27일 오전11시 문화원사랑방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 총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결산과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 되었으며 새원장에 崔龍文 전부원장이 선임되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원장 崔龍文

◇부원장 李仁鐵

◇이사 李泰亨 權德明 吳允根 金鵬海 全錫圭 金鐵燮 盧光福 洪成萬 金基明 姜哲勳 朴正基

◇감사 崔泓舜 金亨鎮

“北青사자놀음 기능보유자 金壽石옹(85) 문병” — 東草文化院長 일행이 —



北青사자놀음 기능보유 15호 金壽石옹 문병하고 있다

속초시 영랑동8통1반 金壽石옹은 이고장에서 北青사자놀음 기능보유(사자 머리부분)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사자탈 제작에서도 독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속초문화원은 항상 金옹의 건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연령에서 오는 노환으로 병석에 눕게 되어 6월7일 崔龍文원장, 李仁鐵부원장, 金喆燮이사 등이 문병, 금일봉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예총속초지부 93년 주요업무 소개

■ 예총속초지부 제4차 정기총회

93년2월3일 11:00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예총속초지부 제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 주요안건 :

- 92년도 주요업무 경과보고
- 92년도 결산 간사보고 및 결산(안)승인
- 9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승인
- 속초시 예술문화발전에 관한 토의등

■ 제3회 학생예술상 수여식

김영복 예총속초지부장은 2월10일~12일까지 92년 한해동안 문예부문에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별하여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 홍영진(속초여자고등학교)
- 이수현(설악중학교)
- 이선정(속초여자고등학교)
- 최 응(속초중학교)
- 정영철(속초고등학교)
- 함응배(설악중학교)
- 전지숙(속초상업고등학교)



예총속초지부 제4차 정기총회장면

■ 제3회 하늘소리초나들 라이브콘서트

93년3월27일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 주관으로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연 2회 공연으로 관람객은 500명이었다.

■ 제4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지부장 : 한기학) 주관으로 93년4월11일 12:00에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총 접수 93개팀이 신청하여 본심 17개팀 27명을 선발하였다.

■ 설악제위원장 감사패 수상

93년4월16일 11:00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연극협회지부장 장규호, 한기학 연예협회 지부장이 제27회 설악제를 승화시킨 기여로 이기섭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제4회 속초종합예술제

한국예총속초지부는(지부장 : 김영복) 93년 5월5일~6월19일에 거쳐서 5개협회지부(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협회지부)가 대 단결하여 작년에 이어 연극협회의 연극공연을



제4회 속초종합예술제,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장면

시작으로 제4회 속초종합예술제를 실시하였다. 협회 지부별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극공연(한만선)

93년5월5일 오후4시, 7시(연2회)에 오태석 작, 장규호연출, 작품명 한만선을 공연하였다. 주요 출연진은 안상노역의 김귀선, 아낙, 미스문역의 박영미, 선생역의 오영삼, 인부, 임우석역의 황현중, 처역의 지은미, 기사의 석경환, 간호원역의 이미경, 미술 박영근, 음향 남상진 등이 맡았으며, 이태주교수와 권오일 전한국협회 이사장등이 관람후 출연진에게 관람평가를 했으며, 총관람객 수는 400명이었다.

■ 제10회 강원연극제 출품

93년 5월12일~17일까지 강릉문화예술관에서 제10회 강원연극제가 열렸다. 도내 6개팀이 참가하여 속초연극협회(작품명 : 한만선)

는 원주 “치악무대”의 “님의침묵”에 이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를 미협 주관으로 93년5월14일 13 : 30분에 속초시 수복탑 놀이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영북지구 초·중·고교생 1,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크레파스, 수채화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수상자는 131명으로 선정되었다.

■ 제4회 청소년 백일장

제4회 청소년백일장이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주관으로 93년5월14일 13 : 30분에 속초시 수복탑 놀이광장에서 제4회 학생미술실기대회와 연계하여 거행되었다.

영북지구 초·중·고교생 1,027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86명이 수상자로 결성되었으며



제4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시상장면



제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경연대회 시상장면



속초시 승격 30주년기념 속초시민위안 노래자랑 장면



제28회 설악제기념 연극공연(공연작 : 보잉보잉)

예총속초지부 93년 주요업무 소개

동시(시) 및 산문으로 구분하여 열띤 기량을 발 표하였으며, 김광용 속초시장께서 참관하였다.

■ 제15회 청소년건전가요제

93년5월16일 오후2시에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5회 청소년건전가요제를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지난 4월11일 예심에서 선발된 17개팀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총 관람객 수는 800여명이었다.

■ 제4회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및 전시

문인협회와 미술협회가 연계하여 지난 14일 거행된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시상식이 5월20일 11:00에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거행되었으며, 5월20일~22일까지 217점의 입상 수상작이 관내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많은 관심속에 전시회를 가졌다.

■ 제1회 설악청소년 음악 콩쿠르

93년8월22일 오후3시에 제1회 설악 청소년 음악 콩쿠르를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홍)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관내 59명의 초·중학생들이 피아노와 성악, 관현악으로 구분하여 경연을 벌였으며 피아노는 문화회관 대극장, 성악은 문화 사랑방에서 개최하였다. 이들에게 과제곡(지정곡)이 주어졌으며 국교 성악—나뭇잎배, 고향 땅, 바닷가증 1곡택 중학부 성악—청산에 살리

라, 그네, 오라등이었으며 피아노 국교부는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2 1악장 중학부는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3 1악장등이 주어졌다. 심사위원은 이희주 관동대 음대교수, 이진우 동우전문대 교수등이 심사를 하였으며 지도교사를 비롯, 총 40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제17회 미협 속초지부전

미술협회(지부장: 이동명) 주관으로 93년5월26일~5월31일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17회 미협 속초지부전을 개최하였다. 5개분과(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공예) 22명의 회원이 43점을 출품하였다.

■ 시승격 30주년 기념 시민위안 노래자랑 예심

속초시 승격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위안 노래자랑 예심이 93년5월27일 오후2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8명을 본심 경연자로 선발하였다.

주관은 연예협회가 맡았다.

■ 시승격 30주년 시민위안 노래자랑 본심

속초시 승격 30주년 시민위안 노래자랑 본선대회가 93년5월30일 오후2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8명이 경연하여 7명이 입상자로 결정되었다. 관람객은 600여명이었다.



제4회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시상식장면



제1회 설악음악청소년 콩쿠르장면

■ 제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 경연대회

연극협회(지부장: 장규호)주관으로 제3회 강원도 청소년연극경연대회가 93년 6월 14일 ~ 18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심사위원은 권오일 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과 백성희 국립극단장이 맡았으며 1일 2회(4시, 7시) 공연을 하였다. 공연 일정은 아래와 같다.

6월 14일 : 속초고등학교 - (금수회의록) - 지도교사 : 신원하 : 출연진 6명

6월 15일 : 춘천성수여상 - (별빛속에서다) - : 강한원 : " 12명

6월 16일 : 원주여고 - (방황하는 별들) - : 김철호 : " 15명

6월 17일 : 춘천기계공고 - (") - : 우문호 : " 17명

6월 18일 : 양양여고 - (") - : 조수현 : " 12명

■ 제4회 백일장 수상자 명단(시·산문 구분없이)

◎국민학교

▲최우수상 : 최난희(속초 2/5) 박은혜(설악 3/1) 김소라(현북 6/1) 박민지(속초 6/2)

▲금 상 : 임유아(영랑 2/5) 박상철(현북 3/1) 임종기(영랑 6/1) 정예원(중앙 6/3) 박민정(설악 6/1)

▲동 상 : 박동호(설악 3/1) 최지영(중앙 2/4) 전선영(대포 3/1) 김슬이(중앙 3/2) 민승기(속초 2/3) 이지연(청호 6/1) 김정은(강현 6/1) 김혜경(청호 6/2) 최은미(회룡 6/1) 이두영(상평 4/1) 김정필(설악 6/1) 이은혜(중앙 5/2) 김선미(온정 6/1) 정연빈(영랑 3/3)

▲장려상 : 현미리(상평 3/1) 외 30명

◎중·고교생

▲최우수상 : 안명향(설악여중 3/5) 강승미(설악여중 2/6)

▲금 상 : 김미경(강현중학교 2/2) 신현익(강현중학교 2/1) 노우영(속초여고 2/7)

▲은 상 : 이주현(설악여중 1/7) 이영미(설악여중 3/5) 강은석(속초여고 2/1)

▲동 상 : 권혜정(설악여중 3/4) 김지숙(설악여중 2/2) 송영훈(설악중학교 1/2) 박화영(설악여중 1/7) 김아영(속초여고 2/1) 박정은(속초여고 2/8) 정정임(속초여고 1/3)

▲장려상 : 박소영(설악여중 2/1) 외 7명

■ 제4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수상자 명단

◎국민학교(초·중·고학년 구분없이)

▲금 상 : 오보식(현남 1/1) 강정희(영랑 3/2) 장유진(교동 5/5)

▲은 상 : 조보현(속초 2/2) 김남인(현북 1/1) 김미정(중앙 3/2) 강길태(중앙 4/5) 이현지(속초 4/1) 이희연(설악 3/1) 김향순(회룡 6/1) 마연실(회룡 6/1) 조혜란(속초 6/3)

▲동 상 : 김정섭(중앙 2/3) 이지현(속초 2/1) 배현욱(속초 1/2) 이송지(속초 1/1) 이준형(중앙 2/3) 이주창(중앙 4/1) 조남민(중앙 3/2) 김의태(중앙 4/3) 염대호(청호 5/2) 김지혜(영랑 4/3) 우진영(속초 6/3) 이재란(상평 5/1) 이성은(영랑 6/2) 박연실(상평 5/1) 김윤희(청호 6/1)

▲입 선 : 김보규(속초 4/1) 외 86명

◎중·고교생

▲금 상 : 장지선(설악여중 2/5) 강영신(속초여고 3/3)

▲은 상 : 장혜선(강현중학교 1/1) 박은영(설악여중 1/5) 박주영(속초여고 1/8) 방수영(속초여고 3/4)

▲동 상 : 박혜정(설악여중 2/6) 이양미(설악여중 2/5) 김보욱(설악중학교 2/2) 김혜영(속초여고 3/4) 김화정(속초여고 3/2) 조정화(속초여고 2/2)

▲입 선 : 유성민(설악중학교 2/5) 외 4명

■ 제3회 강원도청소년연극경연대회 수상 현황

◎연기상

- 속초고등학교—장찬희(10만원)트롯피
—연극협회 이사장상
- 춘천성수여상—박정혜(10만원)트롯피
—연극협회 이사장상
- 원주여고—전준옥(〃)트롯피
—연극협회 이사장상
- 춘천기계공고—서정태(〃)트롯피
—연극협회 이사장상
- 양양여고—최금숙(〃)트롯피
—연극협회 이사장상

◎무대미술상

- 속초고등학교—10만원(최용문 문화원장상)

◎장려상

- 속초고등학교—20만원(예총 지부장상)

◎우수상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30만원(속초시장)

◎지도교사상

- 양양여자고등학교—20만원 조수현교사

◎최우수상

- 양양여자고등학교—50만원(강원도지사상)

■ 제4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수상자 명단

- 대상—정경원 탁희원—속고(더늦기전에)—예총도지회장상(장학금 20만원)
- 금상—박형성—양고(지금은 알수없어)—예총지부장상(15만원)
- 은상—추교미—속상고(가려진시간사이로)—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동상—심진선—속여증(언젠가는)—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장려—박명순 편성옥—속여고(이젠사랑 할수없어요)—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가창—정세희 심이정—속여고(이별이야기)—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인기—하동원—속고(내일을 향해)—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노력—조유미—양여고(꿈에서본거리)—연예협회지부장상(10만원)

■ 속초 시민위안 노래자랑 시상내역

- 최우수상—신순애(그여자가가는곳은)
—동남아 3/4일 여행일체(속초시장)
- 우수상—최미애(흔적)—50만원상당 칼리텔레비전(예총지부장)
- 장려상—신소정(여러분)—30만원상당 더블데크(연예협회지부장)
- 장려상—이정이(나의노래)—30만원상당 더블데크(연예협회지부장)
- 가창상—백만억(사랑하기에)—15만원상당 카셋트(연예협회지부장)
- 가창상—김준희(만남)—15만원상당 카셋트(연예협회지부장)
- 인기상—송옥녀(서울탱고)—10만원상당 카셋트(연예협회지부장)

■ 제1회 설악음악콩쿠르 시상내역

(학교 및 분야 구분없이)

- 금상—유혜정(중앙국교6)—예총지부장상
오수정(속여중)—〃
조성혜(영랑국교5)—〃
- 은상—함지영(교동국교6)—음협지부장상
안주희(양여중)—〃
송윤미(속초국교5)—〃
김하령(교동국교6)—〃
신유미(설여중 1)—〃
조민석(속중2)—〃
- 동상—안정화(교동국교6)—〃
이건지(양여중)—〃
노은희(중앙국교6)—〃

- 장려—황하늬(교동국교6)—
- 정혜신(중앙국교6)— "
- 백윤미(속 여 중)— "
- 정진향(설 여 중)— "
- 장지영(중앙국교5)— "
- 임주영(오호국교4)— "

전통음악은 천년만세, 대금, 산조, 가야금, 사물놀이등 제2부 창작음악 발표는 한계령, 조각배 개구리소리등 다수의 곡이 발표되었다.

■ 제2회 해변 미인선발대회

제2회 해변미인선발대회가 전년 대천해수욕장에 이어 속초해수욕장에서 한국예총 속초지부 후원하에 93년8월4일 13:00 성대히 개최되었다.

■ 굴령쇠 공연

연극협회 속초지부산하 극단 굴령쇠의 8번째 공연으로 93년8월27일~9월3일까지 속초신용협동조합 강당에서 공연을 가졌다.

시몬느보빠르작 김귀선 연출의 위기의 여자는 지역및 특히 여성팬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속초연극사 20년동안 3일간 연장공연을 하는 초유의 기록도 갖게 되었다.

연 관람임원은 2,000여명이었으며 주요 출연진은 모니꼬역 임옥재, 모리스역 김귀선, 이자벨역의 지은미, 남상진, 박영근, 석경환 등의 스텝진과 기획은 설악신문사에서 맡았다.

■ 이효석 문화재 품바공연

연극협회 지부장(장규호)는 93년9월2일 강원도 평창 봉평면 예식장에서 이효석문화재 초청공연을 가졌다.

극협회원의 신오일이 고수를 맡았으며 꽁과리는 홍현이였다.

■ 김혜경 초청 스타 독주회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93년9월18일 오후7시 음악협회 주관으로 김혜경 초청 기타 독주회가 있었다.

■ 주부가요열창 예심

93년9월21일 12:00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예협회(지부장:한기학) 주관으로 제28회 설악제기념 주부가요열창 예심을 거행하여 13명을 본심 경합자로 선발하였다.

■ 93강원예술인 심포지움

한국예총속초지부(지부장: 김영복)는 지난 해 춘천지부가 개최한 강원예술인 심포지움을 93년6월27일 11:00 설악프라자 패밀리 타운에서 강원도지회 산하 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부 도내 4개지부 예술인 300여명이 참가했다.

연사는 배동욱(강원도예총회장)-향토문화 예술인의 권리(저작권은 곧 자존심이다)

이성선-(속초시 물소리 시낭송회 상임시인)-지역예술의 독자성

최종걸(강원미대교수)-강원미술발전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으며, 2부는 장기자랑도 겸했다.



93강원예술인 심포지움 장면

■ 새여름 실내악단 초청 연주회

93년7월30일 오후3시 7:30(2회공연)에 새여름 실내악단 초청연주회를 문화회관대극장에서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홍)의 초청으로 연주회를 가졌다.

■ 제28회 설악제 기념 영북지구 주부가요 열창 본선

93년 10월1일 오후2시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28회 설악제 기념 주부가요 열창 본선을 가졌다. 총 13명이 참가하여 대상 : 최평심(석류의 계절) 예총 속초지부장상 및 동남아 4박 5일을 비롯, 금상 : 최봉순(초우)이하 연예협회지부장상장 및 21인치 칼라TV, 은상 : 한지혜(물안개) 전자렌지, 동상 : 이정이(나의노래) 진공청소기, 장려상 : 조광녀(칠갑산) 카셋트, 인기상 : 정영숙(또만났네) 통기타 등이 수여되었으며 연 관람인원은 600명이었다.

■ 제5회 속초시민 문화상 수상(임수철)

93년 10월1일 11:00 제28회 설악제개막식 장인 속초공설운동장에서 음악협회 임수철(사무국장)은 제5회 속초시민문화상 학술 부문으로 수상하였다. 수상 공적으로는 독창적이고 무게있는 이론을 전개 속초시 음악예술을 대외에 전함은 물론 독주곡, 관현악곡등 수십 작품의 작곡등을 인정받아 학술부문으로 선정, 속초시장상 및 부상 100만원을 수여 받았다.



제5회 속초시민 문화상 수상(음악협회 : 임수철-학술부문)

■ 설악제 기념 연극 공연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설악제기념 연극공연으로 마르코까몰레티작 “보잉보

잉”을 93년 10월2~3일 오후4시, 7시40분(연 4회)공연을 하였다.

연출 : 장규호, 베르나르 : 석경환, 로베르 : 황현중, 자크린 : 박영미, 자넷 : 지은미, 에르타 : 임옥재, 쥬디스 : 이미경, 김선경이 출연하였으며, 연 관람인원은 2,000명이었다.

■ 제9회 회원서예전

93년 10월2일 ~6일(5일간) 제28회 설악제기념 속초시서예교육연구회(회장 : 최홍영) 제9회 회원서예전을 개최하였다. 28명의 참가자 중 38점의 서예작품을 선보였다.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는 속초시교육청 산하 교원동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30명이며 예총 속초지부(지부장 : 김영복)에서 후원하였다.

■ 제11회 강원종합예술제 주부가요제

93년 10월20일 14:00 춘천 종합문화회관에서 강원도 주부가요제 속초시 대표 : 김용원(곡명 : 비에젖은터미널)이 노래의 여왕상 강원도지사상(상장 및 부상 3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당 행사는의 밴드는 속초연예협회가 연주를 맡았다.

■ 제11회 강원종합예술제 청소년건전가요제

93년 10월31일 속초시문화회관대극장에서 제11회 강원종합예술제 일환으로 청소년건전가요제를 실시, 강원도내 대표 9개팀이 열띤 경합을 벌여 5개팀이 수상하였다. 주관단체는 연예협회가 맡았다.

최우수상 : 박현성 - 양양고등학교 - 강원도지사상(장학금 50만원)

우수상 : 추교미 - 속초상업고등학교 - 예총강원도지회장상(장학금 30만원)

장려상 : 심이정·정세희 - 속초여자고등학교 - 연예협회지부장상(장학금 10만원)

장려상 : 심진선 - 속초여자중학교 - 연예협회지부장상(장학금 10만원)

인기상 : 정경원·탁희원 - 속초고등학교 - 연예협회지부장상(장학금 10만원)

■ 연예협회 자선 위문 공연

93년 11월 8일 고성군 55연대 자선위문 공연을 속초시 주부가요열창 동우회와 연계하여 위문 공연을 가졌다. 회원 20여명이 본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연예협회(지부장 : 한기학)에서 대형TV 3대를 55연대에 기증하였다.

■ 제35회 강원도 문화상 수상(연극협회속초지부장 : 장규호)

93년 11월 6일 10:00 춘천시립문화회관에서 제35회 강원도문화상에 연극협회속초지부장상 장규호가 현대예술부문에 수상자로 결정되어 험종한 도지사로부터 상장 및 부상을 수여받았다.

역대 속초지역에서 강원문화상 수상자로는 69년도 최구현(예술부문) 88년도 이성선(문학부문) 92년도 박명자(문학부문)에 이어 4번째 수상자이기도 하다.

수상공적으로는 66년부터 연극예술에 입문 속초극예술 동우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극 예술 조직결성 및 25여년간 수십작품에 연기, 연출, 기획, 제작 등을 통하여 강원도 연극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연극협회 속초지부장으로써 청소년 연극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제9회 전국연극제에서 강원도를 대표



제35회 강원도문화상 수상장면
(장규호 : 연극협회속초지부장 - 현대예술부문)

하여 속초팀이 수상받는데 결정적인 수훈한 공적 등이 수상자로써 인정받았다.

■ 제17회 서울 연극제 최우수상작 속초시 초청 공연

예총 속초지부는 시승격 30주년 행사의 일원으로 제17회 서울연극제 최우수상 수상작(작품명 : 남사당의 하늘)을 93년 11월 24일 초청공연을 가졌다. 1일 2회공연(오후 4시, 7시)공연으로 연출 : 손진택 주요연출자 : 김성녀, 윤문식 등이며 스텝진을 포함 100여명이나 되는 속초시에서는 좀체 접하기 힘든 대작이었다.

■ 93송년 미협전

미협속초지부(지부장 : 이동명) 주관으로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93년 12월 1일 ~ 5일 까지 93송년 미협전이 개최되었다.

영동 북부지역 작가 23명이 본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4개 장르(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의 개성 있는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였다.

■ 93년 음협 송년 정기발표회

음협속초지부(지부장 : 심연홍)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93년 12월 4일 오후 7시에 음악협회 송년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음악인들의 연주 최대잔치로써 피아노, 독주, 기타독주, 합창, 2중창등 다양하고 격조높은 율조를 시민에게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 제1회 설악 아동 연극제

예총속초지부(지부장 : 김영복)와 속초 교육청은 93년 12월 13 ~ 17일(5일간) 지역 아동 연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회 설악 아동 연극제를 개최하였다.

관내 9개 국민학교 중 7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가졌다.

예총속초지부 93년 주요업무 소개

학교별 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일 시	작 품 명	지도교사
속초국교	'93년12월13일 11시	꾸러기 꼼동산	유순자
조양국교	13일 16시	백설공주	김종순
대포국교	14일 11시	콩쥐팥쥐	조현종
청호국교	14일 16시	선생님이 안오시던 날	이행섭
영랑국교	15일 15시	또또와 뼈째의 별난여행	노연숙
교동국교	16일 15시	엄마찾아 삼만리	김애란
중앙국교	17일 15시	벌거벗은 임금님	장연주

■ 갈뫼 23집 발간 및 문학축제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 주관으로 연중 문협 최대의 잔치인 갈뫼 23집 발간 기념 문학축제가 93년 12월 18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문협 회원은 물론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수의 독자들도 본 행사에 참관하였으며 시낭송회와 연사 강의회를 결들였다.

■ 송년 연극공연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 주관으로 속초신협에서 93년 12월 24~30일(1주일간)까지 송년 연극공연을 가졌다.

오태석 작(작품명 : 약장수) 장규호 연출로 3개월간의 긴 연습기간을 거친 후 무대에 올렸으며,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17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4회 청소년 백일장

93년5월14일 속초시 수복탑 놀이마당 광장에서 속초문인협회가 주관한 청소년 백일장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편집위원)

고등부 산문 금상

그리움

속초여자고등학교
2학년7반 노우영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는 지금. 등뒤로 따갑게 내리쬐는 오월의 햇살이 내 목을 감으며 안아주던 할머니를 그립게 한다.

할머니가 이 세상과 이별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암'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죽음으로 슬픔과 그리움만을 우리에게 남긴채 한줌의 재로 날아가버렸다. 할머니께서는 정이 많으신만큼이나 정신력도 강하셨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산다고 선고했는데 꼬박꼬박 약을 드시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1년이 넘게 사시는 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보여주려고 무척 애쓰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자신의 고통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프면 화장실에 가서 우셨고 우리 앞에서는 항상 정많고 따뜻하고 모든 어린양을 받아주시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할머니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짐도 혼자 지

고 가실만큼 건강하셨는데 아프시고 난후부터 눈에 보일만큼 살이 빠지고 표정도 점점 굳어갔다.

할머니께서는 바다냄새를 꽤나 좋아하셨다. 그리고 사람도… 어쩌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신들의 꿈을 심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바다보다 더 좋아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듈다. 돌아가시기 두달전에도 바다에 놀러 간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몸무게는 38kg정도였고 걷기도 불편하셨다.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 성게며 다시마등을 따서 할머니께 보여드리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안아 바닷물이 닿을듯 말듯 한 곳에 앉혀주셨다. 보는 즐거움보다 직접 만지고 싶으셨던지 할머니께서는 바다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시다가 넘어지셨다. 우리들은 모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안고 텐트 안으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다.

그후 2개월동안 병이 더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갔다. 병원에 계시길 끝내 거부하셨던 할머니께서

는 자신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어가고 있음을 느끼시면서 병원에 가시길 자청하셨다. 그러나 입원후 삼일후에 할머니의 삶은 막이 내려지고 할머니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식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보여주었던 행동, 모습, 표정등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죽음 후의 모든 절차는 너무나 빨리 진행되었다. 판에 옮겨지고 화장되어지고 한줌의 가루가 되어 우리의 곁에서 남아줄 아무것도

없어질때까지는… 그러나 기억속의 죽음이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냄새, 손길은 죽음을 인식하는데 큰 피로움을 주었고 끝없는 그리움만을 물고왔다. 너무나 오랫동안…

따스히 비춰오는 햇살만큼이나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던 할머니의 손길과 포근한 가슴이 오늘따라 굉장히 그리워진다. 어느 하늘의 빛이 되어있을지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답답했던 내 마음의 어둠을 모두 풀어놓고 마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얻고 싶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고등부 산문 은상

‘그리움… 그리운… 그리는 것’

속초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은석

그리움에게

그리움아! 너는 나에겐 웬지 모르게 잊을 수 없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인 것 같다.

생활이 바쁘단 핑계로 널 떠올리는 것이 뜯해서, 떠올리지 못하는 줄 알고 속상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움 너에겐 너 이상의 의미 때문에 난 널 잊을 수 없다. 오늘 너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하루 하루가 무의미없이 바쁘게만 지나가는 요즘에 한번쯤 떠올리고픈 그리움, 네가 있기 때문이다. 너를 떠올리면 난 기분이 좋아진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더욱 나에겐 의미가 남는 너이다.

난 이글을 쓰면서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다면 이 글을 다 읽은 후에 한번쯤 나의 그리움과 같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며 그때만이라도 여유를 갖음을, 단지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움아! 그때를 기억할 수 있니? 나의 어린시절 말이야. 난 ‘인제’에서 살았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그리고 강이 흐르고 정감이 흐르는 소위, 자연 그 자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친 과장일까? 아니야 그것이 과장이라해도 내 그리움속에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속에서 난 자랐으니까? 산으로 강으로 이러저리 빛이 부르트게 다니더라도 자연이 있어서 그것이 내 곁에 있어서 무척 좋았던 것 같아. 아주 순수하고 맑기

만하던 그때였었는데, 이렇게 커 버리다니. 놀랍지 않니?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웃었었던 것 같다. 무척이나 갑갑하던 것을 싫어해서 이리저리 헤매며 어리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못했던 기억역시 날 즐겁게 한다. 그리움, 너도 역시 그때를 기억할 수 있니? 발가벗고 강물에 들어가 지금은 허리도 안 차는 물이 제 키를 넘는다고,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소리치며 했지만 겨우 나오면 어렸지만 살았다는 느낌으로 환하게 웃던 모습 말이야. 또한, 엄마의 꾸중이 얼마나 어린 내 가슴을 두렵게 했는지 집에도 못들어 가고 초가집앞에서 울었었는데.

참, 내가 좋아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나보다 수십배 크고 한아름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었던 그런 큰 나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나무주위를 돌면서 소원이라며 바라는 말을 하곤 했었지. 기억나지? 나,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억이 회미하고 글 솜씨가 없어 나의 아름다운 그때를 다는 나열할 수 없음이 아쉽지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그리움아! 그때로 돌아갔으면 싶다. 가끔씩 온. 하지만, 과거도 좋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끔씩 지금처럼 떠올릴 수 있는 그때는 그때로 남겨두고, 난 오늘도 내일은 네가 될 그리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움아! 넌 나에겐 그리움, 그리운, 그리는 무언가로 남더라도 항상 하나의 그 이상의 의미로 남는다.

우리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만남을 아쉬운 미련과 함께 마치자.

그리움! 넌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중등부 산문 최우수

우 정

설악여자중학교
2학년6반 강승미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다. 예민하고 반항적인 면에서 더욱 고민이 많이 생긴다. 친구 사이에 생기는 갈등사이에는 아주 심각할 정도이다.

2학년에 올라와 처음으로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다. 예쁘게 생긴 아이도 아닌데 내가 그애에게 관심이 있는 까닭을 몰랐었다. 검은테 안경을 쓰고 컷트한 머리가 그 아이에게 썩 어울린다.

이름은 김신혜이다.

신혜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던 이유중 하

나는 1학년때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혜는 내가 가까이에서 잘 대해주고 다정히 얘기 하니까 나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었다.

근 한달동안 서로 붙어 다니다가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린 역시 수학여행에서도 짹이 되었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춤도 같이 추며 놀았다. 신혜도 나도 서로를 잘 알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이나 소지품에 실증

이 나듯이 친구도 그런 사이인 것인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신혜와 나는 가까워 질 수가 없었다.

나의 성격이 좀 멋대로고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신혜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무척 외로웠다.

나와 국민학교 때부터 쭉 붙어다니던 미경이가 신혜와 무척 재미있게 얘기하고 꽤 장난스럽게 노는 모습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자리배치가 있었다. 선생님께서 무척 신경써서 지어준 짹들이어서인지 모두 기뻐했다. 미경 신혜가 짹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공부시간에도 너무 행복해 하고 나 혼자 그 모습을 지켜보기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외로웠다.

쉬는 시간마다 같이 가던 화장실 교무실도 이젠 나 혼자 다닌다. 신혜는 나를 쳐다보는 것 조차 싫어하는 빛 같다.

나는 자연히 다른 친구들과 친해져서 어울리곤 한다. 내 성격탓에 서운한 면이 있어도 친구들이 많이 참아준다. 신혜도 그 전에는

그랬을 것이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날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다.

“승미야! 너 요즘 무슨 고민있니?”

난 사실대로 말하기가 쑥스럽고 싶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내 눈빛을 보시고 아셨는지

“난 중·고등학교 때 승미처럼 활발하지도 않았고 내 의견이나 주장을 뚜렷하게 나타내지도 못했단다. 난 그래서 승미의 그런 모습이 무척 좋단다. 하지만 누가 강요해서 꼭 고치려고 노력을 얹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너를 좀 숙여보고 낮춰서 생활해 봐라. 응?”

하셨다. 눈 속에서 눈물이 펑 돌았다. 고마웠다. 선생님 말씀대로 신혜에게 대하겠다. 그리고 신혜에게

“신혜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한번 더 기회를 주렴. 전처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도록….”

친구가 없으면 누구나 다 외롭다. 지금 자기가 그렇다면 문제점을 찾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곧 현명한 사람인니까.

중등부 산문 금상

엄마사진

강현중학교
2학년1반 신현의

나에게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다. 어제 문뜩 엄마 생각이 나서 앨범을 들쳐 보았다.

맨처음 한장을 폴는 순간 엄마사진이 날보고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날 두고 떠나신지

가 벌써 13년째이다. 내가 엄마 얼굴을 보려면 그 한장의 사잔밖에 없었다. 비록 작고 낡은 사진이지만 항상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 사진은 나의 생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의 얼굴을 볼 때는 지금의 사진 뿐이고 그전에도 또 지금에도 못 보았다. 어디론

지 가버리신 엄마가 원망될 뿐이었다. 그때부터 엄마의 사진은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다.

어느날 내가 엄마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매일 사진만 보고 왜 공부는 안하냐고 사진을 빼앗아 그자리에서 찢어버리셨다.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막을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도 그냥 울었다. 그새 잠이들었나 보다. 꿈에서 엄마가 이리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사진에서 본 엄마 얼굴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엄마하며 달려갔는데 가면없고 또가면 또없고 나중엔 사라지

셨다. 난 엄마하고 소리치며 일어났는데 내몸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난 일어나서 세수를하고 기분을 풀고 안방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사진한장을 주셨다. 난 뭔가하고 들여다 보니 엄마의 독사진이었다. 난 너무 기뻐서 할머니께 고맙다고 몇번 말하였다. 할머니가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하셨다. 그 조건은 엄마사진 때문에 공부에 소홀해지지 말라는 것이었다. 난 할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게 되었다. 할머니덕분에 엄마사진을 다시 얻게 되었고 또 이젠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등부 산문 은상

빛 바랜 사진 두 장

설악여자중학교
3학년5반 이영미

“학교 다녀왔습니다.”

난 집에만 오면 빈 산속에 혼자 묻혀있는 것 같아서 빈 집인줄 알면서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하곤 했다. 이것이 나의 열 세살 하루였다. 새벽에 밥상과 함께 하얀 종이에 바쁘지만 사랑이 담긴 따뜻한 엄마 손으로 쓴 메모가 있고 엄마의 일부자리까지 옮겨져 있으면 난 또 무서워져서 엄마 냄새가 나는 종이를 안고 울기도 했다. 이렇게 자란 내가 성격이 활발했을리는 없다. 더군다나 아빠는 작은 사고를 당하신 후로는 자주 일하러 않가셨다. 엄마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이셨다. 그럴수록 나는 혼자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접도많은 올보가 되었다.

얼마전 중학교 3학년이 된 나에게 진학 문

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오셨지만 유독 나만이 한분도 안오셔서 담임 선생님은 나를 부르셨다. 왜 부모님이 안오셨는지를 물으셨다. 난 내일, 내일하며 미루다가 일주일을 넘겼다. 성적도 많이 떨어진데다가 엄마는 분명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 분명했으므로 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재촉하셨지만 내가 계속 미루는 탓에 그 사이에 3학년이 되어 치르는 첫 시험을 보게 되었다. 난 좋은 성적을 만들어 엄마를 모셔올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적의 변동이 없었다. 실망했다. 아니 실망보다는 ‘이제는 어떡하나!’하는 생각에 집

으로 가는 발걸음이 짐을 끌고 가듯이 무거웠다. 할 수 없이 엄마에게 말씀드려야 했다.

학교에 가신 엄마는 학년초보다 성적이 떨어진걸 자세히 아시게 된다. 분명히 실망하실 테고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도 힘이 않나실 것이 분명했다. 순간 밀려드는 엄마에 대한 보고픔으로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긴듯 하였다. 끊어 넘치는 눈물은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였다.

“집에가면 절대로 말 않할꺼야.”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누가 왔는지 문이 열려 있었다. 조용히 들어가 보았다. 엄마였다. 순간 엄마한테 달려들어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조금후에 엄마가 저녁상을 들고 오셨다. 항상 혼자이던 저녁상에 엄마와 함께 하니 더없이 즐거웠다. 그날 밤은 엄마와 함께 잠들었다. 엄마 가슴이 그렇게 포근한지 왜 미쳐 몰랐을까?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여전히 밥상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제는 열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차조심 하라는 말일 것이다. 난 관심도 없이 열어 보았다. 그때 내 무릎으로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사진 두장이었다. 한장은 아빠 생신날 찍었던 우리식구의 모습이었다. 또 한장은 내가 장난감 말위에 앉아서 발이 당에 닿지 않아 바퀴위

에 발을 올리고 열심히 걸어보려는 나였다. 어렴풋이 기억이 살아났다. 아빠 생신날 우리식구는 저녁을 함께 했다. 미역국과 평소처럼 차린 상에 둘러앉아서 생신축하 노래를 불렀었다.

“이렇게 좋았는데….”

난 엄마의 메모를 들어올렸다.

—사랑하는 딸 영미에게—

엄마가 너에게 너무 부족했구나 어제는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네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칭찬이 크시구나.

이번 성적에 신경쓰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차조심하고 밥은 꼭 먹어라.

—엄마가—

“흑 흑 흑”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그날도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당부 이셨다. 그냥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사랑이 담긴 말씀이셨다.

빛바랜 사진속에서 열심히 말터던 그때 나처럼 단란한 가족의 모습처럼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거라고 그 두장의 사진에 다짐하여 학교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고 영미는 그렇게 또다른 한장의 사진에 주인공이 되었다.

국교저학년 산문 최우수

놀이터

설악국민학교

3학년1반 박은혜

“여러분 글짓기를 지어 오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의 입에선,
 “어휴, 지루해”하는 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집에오니 손님들이 와 계셨다.
 나는 우리 동네의 놀이터로 나왔다.
 ‘무엇으로 젓는담…’
 나는 그네에 앉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
 ‘놀이기구동산’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놀이기구 동산이라… 어떤곳인지 궁금해지는 걸?’
 나는 ‘놀이기구동산’으로 들어갔다. 여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애들아, 나와 같이 놀자.”
 내가 놀고있는 어린이들에게 말했다.
 “그래, 어서와. 애들아 새친구가 생겼어 이리와 봐.”
 한 어린이가 말했다.
 그러자 재미있게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내 둘레에 모여 들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고개를 땅에 멀구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였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애, 우리 친구하자.”
 하고 말하였다.
 나는 반가워서
 “그래.”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곳 친구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뛰어 놀았다.
 한참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는데,
 “애, 이제 돌아가 줘.”
 하고 한 친구가 말했다.
 “왜 내가 꼭 돌아가야 하니?”
 내가 놀라며 물어보았다.
 “응,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그시간에 친구를 돌려보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모두 쫓겨나게 돼. 그러면 우린 갈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거지가 돼고 말아.(시계를 보면) 어 큰일났어. 지금 돌아가야 될 시간이야. 잘가, 다음에 또 보자.”
 그 친구는 ‘잘가’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나도 마음속으로
 ‘안녕, 잘 있어 친구들아.’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동산’을 나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혜야 어서 일어나.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떻해.”
 어머니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셨다. 나는 눈을 번쩍떴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꿈이었어. 그래 언젠 간 우리는 꼭 만날거야 난 믿고있어’라고 생각하며 숙제를 시작했다.

국교저학년 산문 은상

어머니

중앙국민학교

3학년5반 한초림

어머니 어머니 우리어머니
“사랑의 매를 안겨 드릴까? 아니지 아니
지” 사랑의 마음을 안겨 드려야지.
언니와 나를 길러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
실까?
“100원만주세요” “뭐 하게” “사 먹게” “이
런 소리를 매일마다 들으시는 어머니의 마음
은 슬픈마음이겠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어머니
“준비물 사주시랴 뒷바라지 해주시랴 마음
고생이 정말 많으실꺼야.”
하며 언니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어머니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의 사랑스러
운 딸이 되어 드릴께요.”

국교저학년 산문 은상

우리동네

영랑국민학교

3학년3반 김하림

우리 동네는 교동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
겠다.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 건물이 많다. 하지만
도시처럼 복잡하고 공해가 많지 않다. 잘 정
리된 길가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 나는 그래
서 우리 동네가 좋다. 시설이 많은 도시하고
도 가깝고 인심좋다는 시골하고 가까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어쩌면 조금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동네를 못보
게 된다. 그럼 친구들도 못보게 되는데 말이

다. 제발 서울로 이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친구들도 깨끗한 환경도 모두 모두
다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깐 난 마음
이 환해졌다. 우리 동네에 언제나 살고 싶다. 그
때까지 우리 동네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동네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무성하던 나무는 없어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쓰레기 하나 없던 길가가 쓰레기로 가득 차
고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도 무심해지고… 정
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하지? 그럼 살 수 없
게 되겠지.

안돼 그렇게 되면 안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레기를 치워야해. 많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꼭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나는 그것을 꼭 지키겠다.

참!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은 망가뜨리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고 보기 좋은 마을이 된다. 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시설 망가뜨리지 말기, 고운말 쓰기, 휴지 버리지 않기 아휴 많기도 하구나. 그래 나혼자 할 수는 없다. 우리 동네 사람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아무데나 낙서를 해서는 안된다. 바닥에도 벽에도 낙서를 하면 안된다. 그래야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디도 밟지 말아야 하고 꽃이나 나무가지를 꺾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이 되겠지.

아! 드디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됐구나. 글을 쓰다보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구나. 이제 부터라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국교고학년 산문 금상

편지

설악국민학교
6학년1반 박민경

어느날 은진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머, 은진이한테….”

천천히 봉투를 뜯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눈에 익은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경아 난 너랑 친해지고 싶었다. 그동안 너에게 잘못 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사실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거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우정의 표시로 알고 받아줄래?”

어쩐지 봉투가 크더라 했더니 작은 샤프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며 생긋 웃었다.

‘은진이는 참 고마운 친구야 내가 그동안 은진이를 잘못알고 있었어 은진아 정말로 고맙다.’

그래, 언젠가는 이런일도 있었지.

체육시간에 뛴들을 하였는데 은진이와 나는 같은 조가 되었다. 내가 조장이 되어 뛴틀 앞구르기 보조자를 하게 되었다. 은진이가 구를 차례가 되자 난 ‘은진이니까 더 잘해주어

야지.’

하고 매트를 바로 놓으려는 순간 은진이가 뛴 것이다. 결국 은진이는 내보조도 없이 구르게 되어 엉뚱하게 강당 마루로 내동댕이쳐졌다. 은진이는 이리저리 구르며 괴로워 하였다.

“어머!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난 어쩔줄을 몰라 당황했다. 그러나 은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괜찮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뭘 아아!”

허리를 조금 다친 모양이었다. 다행히 금방 가라앉아 움직일 수 있었다. 난 어쩔줄을 몰라 그저

“은진아 정말 미안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하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니야 내가 바보 같지 뭐. 네가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뭔 내가 잘못인걸 나한테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샤프와 편지는 들도

없는 정말 소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되었다. 6학년이 되어 다른 반이 되었을 때에도….

하지만 이제는 은진이를 영영 만날 수 없다. 은진이는 이번 여름방학때 리비아에 계시는 아빠를 만나려 그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나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은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전혀 실감 나지가 않았다.

꼭 돌아와 나에게 웃어줄 것만 같았다. 그 때처럼….

다른 아이들은 은진이가 그냥 죽었다고 말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절대로 그럴수 없었다.

비행기가 떨어져 불이 불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을 은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수가 없다. 은진이가 나에게 준 편지 한장과 샤프 한 자루. 이 세상에 없는 은진이가 마음의 선물로 준 편지 한 장과 샤프 한 자루.

앞으로 또다시 무엇이 생길테지만 지금은 편지 한 장과 샤프 한 자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니 제일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교고학년 산문 은상

바 다

영랑국민학교
6학년6반 장 미

오빠, 엄마, 외가친척들과 함께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낚싯대를 바닷가에 대놓고 오빠와 친??(남자들)은 모두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나 보다.

여자들은 밑반찬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나는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 남자들은 고기잡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조그만 고기였지만 왜그리도 귀여웠는지….

밥이 다 되어서 오붓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빨리먹고 바다 구경을 하려 바다의 옆 돌위에 걸터 앉았다. 아무뜻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바다가 한없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문득 바다에 아빠얼굴이 보였다. 아빠의 웃는 모습이….

나를 떠나고 먼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궁금증도 있고 아빠의 보고 싶음에 뛰어갔다.

하지만, 아빠의 모습은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만 가는 것 같았다.

난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내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바다 그 출렁이는 바다도 원망스러웠다. 바다만 아니었으면 빨리 뛰어가서 아빠를 만나볼 수 있는데….

난 읊먹한 표정으로 내자리로 돌아갔다. 돌아오면서도 생각했다.

“아빠! 보고싶지만 참을께요! 꼭 공부 잘하고 상냥한 숙녀가 될께요. 지켜보세요”하고 말이다.

난 도착하자마자 다시 친척들이 고기잡는 모습을 보았다.

그 이유는 다시 웃는 아빠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니까!

국교고학년 산문 은상

편지소동

상평국민학교
6학년2반 이경란

5학년때 이사간 김윤미라는 아이는 '작 김윤미'라는 별명을 갖고 다녔던 아이이다. 학교에는 김윤미라는 아이가 두명 이어서 키가 큰 아이를 큰 김윤미, 키가 작은 아이를 작 김윤미라고 부르면서 다녔다.

3학년때 일이었다.

윤미와 나는 짖궂은 장난을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였다.

"무슨 재미나는 일 없을까?"

내가 물었다. 그러자 윤미는 고개를 이리저리 굴리며 골똘히 생각하다

"좋은 생각이 있어. 자 가까이와 봐. 자 소곤소곤...."

"야, 그거 재미있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

"야, 조용히 해, 비밀이다."

우리가 꾸민일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꾸민일은 보내는 사람을 안쓰고 받는 사람을 우리반에서 가장 짖궂은 명호에게 보냈다. 아주 나쁜말만 써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편지가 도착할 무렵이었다. 갑자기 명호가 들어오더니

"야, 너희들중에 장난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야."

그러는 것이었다. 윤미와 나는 겁이 덜컥 났지만 안그런 척하고 있었다. 이소리가 얼마나 커졌던지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거야." 하시며 물으셨다. 그러자 명호는

"선생님 누가 우리집에 이런 걸 보냈어요. 보시겠어요?"

하며 우리가 쓴 편지를 꺼내들고선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윤미와 나를 친구들 몰래 교무실로 부르셨다.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교무실에 들어갔다.

"얘들아, 난 너희들이 솔직한 걸 바라고 있단다. 나에게 사실대로 얘길 해주지 않겠니?"

선생님께서는 진심어린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셨다.

"저... 선생님, 사실은 우리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이 사과 받을 일은 아니야. 사실은 그날 나도 일이 있어서 편지부치려가는 도중에 너희들을 본거야. 이 일은 명호에게 사과를 해야지 하지만 이번 장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을거야. 그 하나의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친것인지를 이제부터 짖궂은 장난은 하지 말아라."

하시며 우리를 잘 타일러 주셨다. 그뒤 우리는 명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 명호는 뜻밖에 웬찮다고 하며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었다.

"아 장난은 정말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난 생각했다. 이제부터 장난은 하지 않겠다고 편지장난은 하지않겠다고....

사실 난 우리를 용서해 준 명호보다 우리의 잘못을 타일러 주신 선생님의 고마움을 편지 소동에서 느꼈다.

중등부 시 금상

금상(金賞)
등 대

강현중학교

2학년2반 김미경

파도소리 출렁이는
검푸른 밤바다

그 한가운데엔
높다란 돌담위에
작은빛 내어주는
등대하나 솟아있다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어디에선가 올 그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빛을 내어준다

찬란한 태양보단
영롱한 달빛보단
작고 보잘 것 없는
빛이지만

지나가는 배들의
눈이 되어주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파도속에
부서진다

중등부 시 은상

제작: 김민경
제작: 김민경

우도정

설악여자중학교
1학년7반 이주현

비가 온 뒤의 하늘은
소박한 기쁨에
더욱 싱그러워 보입니다

이런 좋은 날
서울에 있는 친구가 생각나
투명한 그리움이
내 손에 내 발에
내 가슴에 스며들어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혼자있기가
팬시리 미안해집니다

높은 곳에서 기쁨이 하늘하늘
저 하얀것들에
몸을 맡기고 하늘하늘
이런 좋은 날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민들레씨앗에 몸을 맡기고
하얗게 되어
한가롭게 두둥실
떠다니고 싶습니다

그 친구와
가까이 있지못해
가슴시리기도 하지만
그와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저 하늘같아집니다

국교고학년 시 최우수

한국어로 쓰는
한국어로 쓰는

우리고장

현복국민학교
6학년1반 김 소 라

싱그러운 햇살비취
아침을 깨우면
덜컹덜컹 쟁기소리
음매음매 소울음소리
분주한 하루의 시작

싱그러운 햇살이
하늘에 오르면
바빠지는 일손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곡식들

휘영청 밤하늘에
반짝반짝 별빛나면
소박한

고장의 꿈
여물어간다.

국교고학년 시 최우수

편지

영랑국민학교
6학년2반 임종기

버스를 타고
하루를 시작하는
서울 친구에게
향긋한 꽃내음을
보낸다

아파트에서만 살고
아스팔트 위를 걷는
서울 친구에게
참새노래를 띄운다

흙냄새 잊지 말고
싱그러운 풀냄새로
또박 또박
쓴편지

오늘도
감나무 그늘에서
서울 사는 친구에게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낸다.

국교고학년 시 최우수

2019학년도 1학기 국교고학년 시 최우수
국교고학년 시 최우수

바 다

제 10주차 예습
제 10주차 학습내용

중앙국민학교
6학년3반 정예원

바다 저 멀리
동이 틀때도
파도는
쉴 새없이 친다

새벽 노을이 너무나도
어여쁘게 지는데
갈매기는 아랑곳없이
날기만 한다

어느새
낚시꾼이
찾아오면
바다는
그 넓은 마음으로
맞아준다

모래사장을
뛰노는 아이들은
넓디 넓은
바다에 마음을
꽉 꽉
채워준다

이제는
낚시꾼도
아이들도 모두 돌아가고
빠알간 저녁 놀은
하늘 높이 진다

바다는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며
넓은 마음을 채워간다.

국교고학년 시 은상

국교고학년 시 은상

엄마같은 바다

대포국민학교
6학년2반 오희원

찰싹 찰싹 밀려오는 바다는
'수수수수'통지표 받을때
칭찬해 주는 엄마 얼굴같애

울렁울렁 일어나는
하얀 물결은 날로만 늘어가는
엄마의 주름살 같애

"쏴, 쏴" 노래부르는
새파란 바다는 노래를 잘 부르는
우리 엄마 목소리 같애

뭉게 구름 피어나는
희망찬 바다는 무서우면서 인자하신
우리 엄마의 고운 마음씨같애.

국교고학년 시 은상

국교고학년 시 은상
2019년 1학기

바다는

2019년 1학기
5학년 1반 이화영

청호국민학교
5학년1반 이화영

바다는 바다는 복잡한 도시
고기들과 배들로 봄빈다

통통통 배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러나 올상짓는 고기들의 침묵
나는 알지 고기들의 슬픔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의 손에 잡히어
앙상한 뼈만 남고
마구마구 밀려오는 쓰레기 오물에
몸이 병이들고

벳고동 소리가 크게 울릴수록
더욱더 커만가는 고기들의 아픔
즐거움과 아픔이 서로 어울려
오늘도 울고 있는 바다의 모습.

국교고학년 시 은상

편지

속초국민학교
6학년4반 박경희

서울가신 우리아빠
뵙고싶구나

식구들은
식은땀 줄줄…
걱정하시는데

서울가신 아빠는
소식조차 없으시고

밥낮가리지 않고
기다리는 엄마정성

“편지 왔어요”하는
집배원 아저씨의 목소리

우리가족 모두 반가워했고

“난 잘있소”하는
편지내용에
우리엄마 눈가에
눈물이 고이네.

국교저학년 시 최우수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놀이터

한국어로
한국어로

속초국민학교
2학년5반 김난희

나비처럼 날아보자
그네를 타고

떡방아를 짹어보자
시소를 타고

뱅뱅이를 뱅뱅 돌리고나면
눈앞에는 별이 반짝반짝

미끄럼을 신나게 타고나면
엉덩이는 파랗게 맴이 들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국교저학년 시 금상

어 머 니

영랑국민학교
2학년5반 임유아

어머니는 나의 해결사이지요
친구와 싸웠을 때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요리사이지요
이것저것
못만드시는게 없지요
내가 먹는것만 보아도
흐뭇하시네요

어머니는 척척박사
요리 해결사 못하시는게 없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도
어머니가 척척박사이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의사이지요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
주시는 어머니
훌륭한 의사이지요.

국교저학년 시 은상

어 머 니

교동국민학교

3학년6반 이 해 나

우리 엄마 손은
부드러운 꽃잎과 같아요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하시지만
손은 언제나 고와요

우리 엄마 품은
따뜻한 텔옷과 같아요
차가운 곳에 앉아 계시지만
몸은 언제나 따뜻해요

우리 엄마 얼굴은
한 송이 장미꽃과 같아요
힘든 일과 별 고생 다 겪으시지만
뺨은 언제나 장미빛이에요.

국교저학년 시 은상

놀이터

청호국민학교

3학년1반 김아람

내가 즐겨 찾는 놀이터
하루에도 몇번씩 아이들이 매달려
힘들지 않을까?

우르르 아이들이 몰려오면
울상이 될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면
아이고 심심해

늙은 정글짐도
오빠 사다리도
모두 모두 정다운
우리들 친구

인자하신 할아버지같은
우리들의 친구

속초도서관의 발자취



김 경 해

- '76. 6. 10 강릉시 교육청
관리과장
- '87. 8. 1 속초시 교육청
관리과장
- '92. 1. 10 속초도서관장

도서관은 과거와 오늘이 숨쉬고 내일을 전망하는 곳이다. 고문서의 매개한 냄새가 역사를 말해주는가 하면, 최첨단 정보축적매체가 computer의 모니터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단면을 시사하여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인류는 도서관을 통해 수많은 지혜를 얻었으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오늘의 도서관 역시 정보화社会의 중심부에서 현대를 사는 인류에게 오늘과 내일을 위해 무한한 지혜를 공급한다.

우리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도서관이 있으나, 특히 공공도서관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회교육기관이요, 문화정보센터이며, 봉사기관으로써 다른 어느 도서관보다도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93년 책의 해인 올해로 개관 6년째를 맞는 속초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보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오고 있다.

속초도서관은 1987년 4월 29일에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를 공포하여, 동년 12월 4일 본관 600석, 분관 462석의 규모로 속초시 금호동에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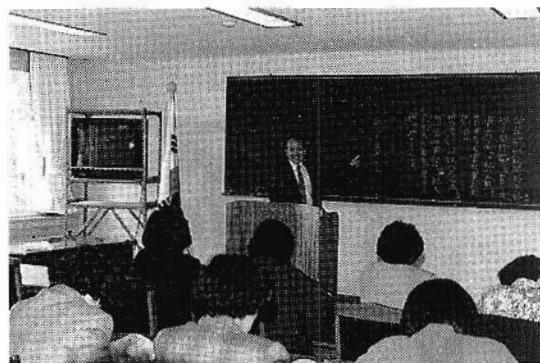
본관에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그리고 분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93년말 현재 관장 이하 전문직 사서 12명을 비롯한 3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본관 3층, 분관 2층으로 강원도내 도서관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지닌 속초도서관의 주요시설은 종합자료실, 모자열람실, 간행물실, 일반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장서수는 51,000여권으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희망도서를 우선취급, 연간 평균 6,000여권씩의 도서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

종합자료실은 일반인들 누구나가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면 자료나 도서를 내 서재와 같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개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간행물실은 주간, 월간지 100여종 및 일간지 15종의 정기 혹은 부정기 간

행물들과 논문, 향토자료 등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속보성과 시사성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모자열람실은 아동도서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정보자료와 주부를 위한 월간잡지 등도 마련하여 각종생활정보까지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너살밖에 안된 유아부터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도서관으로 읽을거리를 찾아오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흐뭇함과 믿음직스러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와같은 정보제공 뿐만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 유치에도 힘쓰고 있는데, 먼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교실>을 운영하여 고전읽기지도, 글쓰기지도, VTR방영, 동화구연 등의 지도를 한다. 또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바르게 책 읽는 법’ ‘독서선택법’ ‘독후감 쓰는법’ 등의 유익한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하여 조기독서지도를 통한 독서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회>도 매월2회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문화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중·고생들의 독서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바뀐 입시제도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력, 논리력을 찾아줄 수 있는 장으로 도서관이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반인을 위한 행사로는 <주부독서회>를 비롯하여 <한문교양강좌>, <서예교실>, <일본어강좌>, <꽃꽂이교실>, <시창작교실>, <생활예절강좌>, <수화교실>등 7개 강좌로 구성된 도서관 문화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문화학교는 도서관이 진정한 문화교육센터로써 자리를 굳히



문화학교(한문교양강좌)

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우리지역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 믿는다.

'93년 책의 해인 올해에는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임해문고>와 <임간문고>를 운영하였다. 지난 7월부터 8월에 걸쳐 41일간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에 15평 규모로 운영된 임해문고에는 1,500권의 장서와 간행물(신문, 잡지)을 비치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가제로 운영하였다. 임간문고는 10월부터 11월까지 52일간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운영하여 산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이 종래의 소극적인 봉사에서 벗어나 독자를 찾아가는 적극적 봉사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이용시켜 범국민적 독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운영된 봉사의 형태이다.

이밖에도 도서관주간 행사와 독서주간 행사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며, <이용자 간담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도서관 현장학습>, <권장도서목록배부>등을 통하여 더 나은 도서관 봉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속초도서관소식>은 독서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과 이용자들의 작



가두캠페인

품소개 등을 실어 유익함을 제공한다. 속초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도서관 분관은 이동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다.

분관의 이동도서관은 “찾아가는 도서관”의 역할로 고성, 양양지역을 포함한 29개지역을 순회하며 원거리의 주민들에게까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와 <다독자 및 모범이용자 표창>, <우수독서가족시상>등 새로운 서비스제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93년 도서관 이용자수는 작년 '92년에 비해 2만6천여명이 증가하여 1일 평균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도서는 1일 평균 720권이 넘고 있다.

문화부가 올해를 특별히 ‘책의 해’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뜨게하고, 긴 안목과 광활한 시야를 열어주며, 올바른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문화를 선도해야 할 입장인 속초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팜플렛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한 ‘1,2,3 독서운동’과 ‘도서관에 책 채우기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1,2,3 독서운동’은 한달에 성인 1권, 청소년 2권, 어린이 3권 이상의 책을 읽자는 운동이며,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책을 기증받는 ‘도서관에 책 채우기운동’과 더불어 책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이다.

책 한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얼마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겠는가? 본 도서관에서 매년 인근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담당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책 읽는 지역사회 나아가, 책읽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일 것이다. 도서담당교사와의 간담회는 도서관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좋은 독서지도와 적합한 독서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학교도서실 운영방법지도 등 학교도서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올해 속초도서관은 올타리 보수를 비롯하여 여러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향토관을 새롭게 신설하여, 책의 역사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책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함은, 인간이 책을 통해 얻어왔던 많은 지식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공공도서관은 인류의 사상과 지식을 기록한 기록물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표현한 표현물을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 도서관의 노력은 이와같은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기울이는 당연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고자 늘 연구하는 우리 도서관인들은 최근 HITEL서비스를 통한 각

종 생활정보제공과, 도서관 업무전산화를 통한 도서관 상호 협력망구축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함으로써 봉사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학교(서예교실)

본 속초도서관에서는 작년 HITEL단말기 2대를 설치하여 정보제공에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4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서관 전산화를 통한 최대봉사에 치중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도서관을 공부방의 역할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이 남아있고, 그로인해 우리의 공공도서관들의 발전이 저해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단순히 책을 빌

리기 위한 이용을 넘어서 참고자료를 입수하고, 연구활동을 하며, 전시회나 연주회, 강연을 듣기위해 도서관을 찾는 발길이 활발하다. 이용자는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도 공공도서관으로 적극 쏟아부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은 그때그때의 지역사회 요구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봉사활동으로 그 요구를 확실하게 충족시킴으로 지역사회에 긴요하고, 없으면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속초도서관의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드러났겠으나, 본 도서관의 운영 목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위해 첫째, 도서자료의 확충 및 이용의 극대화 둘째, 찾아가는 도서관의 봉사활동강화 셋째, 생활문화공간 및 독서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도서관은 이러한 운영목표 아래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서관으로 자라날 것이다. 속초지역민들을 위해 마련된 속초도서관, 이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만이 최고의 도서관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관건으로 남는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의 주체가 되어 도서관에서 습득한 지식과 문화정보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한 걸음 앞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근막 통증 증후군

▣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골격근은 인체의 장기중에서 가장 큰 단일 장기이며, 체 중의 40%를 차지하고 그 수는 400여개에 달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이 방대한 근육조직은 파손되고 상처 받기 쉽고, 이로 말미암아 심한 통증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기능의 상실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일상의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진료실에서 이런 근막통증 증후군을 가진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으나, 대개 환자 자신들은 뼈나 관절 또는 척추 디스크등을 염려 의심하고 이를 확인 치료 받고자 한다. 그래서 의사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리면 이를 쉽게 믿지 않으려한다. 이런 혼한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골격근이나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병변이 있으면 긴장과 경련이 생기고 딱딱한 명우리(방아쇠점)가 생기며 이를 누르면 먼 부위에 통증이 퍼져나간다(관련통) 나중에는 기능장애 온다.

미국의 모 병원의 발표에 의하면 자신에게 아무 병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남녀 200명을 검사한바 비활동성 방아쇠점을 가진 자가 남자는 45% 여자는 55%이었다 한다. 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걸려 있다는 뜻이다.

예방법은 골격근을 무리하게, 또는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치료원칙은 방아쇠점을 없애는 것으로서 분무와 스트래치, 약물요법, 운동요법과 마지막으로 방아쇠점주사요법이 있다.

《원인》

- 국소적 조건
 - ① 염좌·염전(근육과 인대)
 - ② 국소에 상처



鄭 榮 來

전 강원도립 속초 병원장
현 새한 가정 의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東草文化편집위원

- ③ 기계적 과부하
하지의 길이 부동(不同)으로 한쪽 다리로 서 있을때
- ④ 스포츠 활동(한쪽을 주로 사용하는 테니스, 골프)
- ⑤ 신경자극, 압박
- 전신적 조건
 - ① 내분비 질환(갑상선저하증, 애스트로겐 결핍증)
 - ② 감염성 질환(바이러스 질환)
 - ③ 영양장애(바이타민결핍)

■ 증상 및 임상소견

《증상》

임상적으로 방아쇠점은 골격근에 생긴 아픈점을 말하며 이곳에 압박을 가하면 급격한 통증(근막통증)이 일어난다. 이 통증은 심층에서 올라오는 듯하고 때로는 따갑거나 쏘는 듯한 감각을 수반한다. 방아쇠점은 촉진시에 딱딱하게 만져지고 깊은 맙박이나 촉진이 통증을 재현할 수 있다.

방아쇠점은 근육의 팽대부(膨大部)에 위치하거나 기시점이나 착점부위에 생길 수 있다.

이 방아쇠점은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때 생기는 통증을 관련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다. 통증외의 증세로는 마비, 가려움증, 정상자극에 과민반응, 경련, 연축, 근육쇠약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증세 때문에 근육에 일어나는 질병인 줄 모르고 크게 걱정하여 큰 병원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막통증증후군은 400여개의 근육중 어떤 근육이나 생길 수 있으나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자주 발병하고 팔과 다리에도 발생빈도가 적지 않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이 요추디스크로 알고 있으나 실제 그 원

인의 대부분은 바로 이 근막통증 증후군이다.

《임상 소견》

- ① 활동성 방아쇠점이 있는 근육을 신장(伸張)하면 아프다.
- ② 운동의 신장범위를 제한한다.
- ③ 고정한 저항 상태에서 이완된 근육을 수축하면 통증이 증가한다.
- ④ 근육의 최대 수축력이 저하된다.
- ⑤ 손가락으로 방아쇠점을 누르면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
- ⑥ 방아쇠점이 있는 피부(특히 등이나 허리부위)가 찌리찌리하고 긁으면 묘기증(긁는대로 빨간 표시가 그려짐)이 나타난다.
- ⑦ 방아쇠점근처에 촉진에 단단한 작은 것이 만져지는 데 이를 “단단한 띠”라고 한다.
- ⑧ 방아쇠점을 갑자기 두드리듯 만지면 “국소경련반응”이 나타난다.
- ⑨ 중등도로 지긋이 방아쇠점을 누르면 방아쇠점의 관련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이를 관련통증이라 한다.)

《검사 소견》

- ① 통증압력제
- ② 적외선 체열법

이상의 검사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과 증후가 진단에 가장 중요하므로 의사의 예민한 관찰과 정확한 검사가 더욱 요구된다.

《치료법》

1. 영속 요소의 제거

- ① 신체구조의 결함의 교정(짧은 다리, 작은 한쪽 골반, 짧은 상지)
- ② 스트레스 주는 자세(근육의 지속적인 수축과 고정, 맞지 않는 장신구, 옹크

린 자세, 취침시 어깨밑에 벼개넣기,
굽 높은 구두 등)

- ③ 자극을 주는 동작(빈번한 반복동작, 구부린 자세로 물건을 들어 몸을 들린다. 전화기를 어깨와 귀사이에 끼운다.)
- ④ 근육조이기(타이트한 칼라나 넥타이, 무거운 젓가슴을 가는 브래지어줄로 꽉 조이는 경우, 벨트를 꽉 조이게 했을 경우)
- ⑤ 관절 기능부전
- ⑥ 영양장애, 대사장애, 전해질 불균형, 빈혈,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염증, 아레르기, 수면장애 등의 전신적 영속 요소도 제거해주어야 한다.

2. 일반치료법

① 신장(伸張)과 분무제 사용법

근막통증증후를 가진 근육부위에 냉각되는 분무제를 뿌리고 난뒤에 이환된 근육을 서서히 신장시킨다. 이로써 가볍고 범위가 좁은 급성인 방아쇠점을 무력화 시켜서 치료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② 주사 및 신장 치료법

주사를 방아쇠점에 놓아 물리적으로 파괴

한다. 주사에 사용하는 약은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등이다. 주사맞은 후 치료받은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삼사일 동안 심한 운동이나 과로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치료에 통증이 말끔이 가시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여러번의 치료가 필요하다. 방아쇠 점의 치료법은 통증의 한계치가 아주 낮은 환자, 정서불안환자, 급성근육경련환자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운동요법

위의 여러 치료법 적용후 각부위에 적합한 운동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④ 기타 요법

약물 요법, 물리치료법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사 및 신장요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간단히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해 설명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에서 근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부로 근육을 혹사하지 말것이며 바쁜 운동과 작업자세를 습관화하고 근육의 통증이나 운동장애가 있을 때는 즉시 치료하여 활동성 방아쇠점이 잠복성 방아쇠점으로 변화되어 평생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百濟文化圈 探訪記

金 鎬 應

(東草文化院 事務局長)

93定期 總會에서 確定한 事業計劃에 따라 東草市校洞 그린旅行社 주선으로 1993年9月15日 ~17日까지(2박3일) 예정으로 百濟文化圈 探訪에 나섰다.

全會員中에서 先着順으로 45名 申請받아 44名이 첫날 오전7시 전세버스편으로 文化院 廣場에서 出發했다.

오전8시반에 麟蹄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扶餘로 떠났다. 오후1시께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박물관을 찾았다. 부여문화원의 金仁權사무국장이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金국장의 안내로 扶餘박물관을 찾은 회원들은 잘 정리된 문화유적에 감탄과 탄성이 연발하면서

찬란했던 옛문화의 정취에 도취되어 조상들의 슬기와 열에 매료되어 시간이 흐른줄도 잊고 관람했다. 이어 국보제9호인 定林寺址5층석탑(일명百濟탑)을 찾았을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羅唐연합군이 百濟를 멸망시킬때 칠저한 초토작전으로 百濟문화의 혼적을 없앤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복원이 안된 점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길 없었다. 이날은 몹시 날씨가 더워 일몰때 부소산성을 찾기로 하고 읍내에서 37km 떨어진 외산면 만수리 소재 보물 제356호인 無量寺를 찾았다.

百濟가 망한후에 창건된 사찰이기 때문에 그



국보 제9호인 定林寺址5층석탑에서 기념촬영한 東草文化院 문화가족



無量寺에서 기념촬영한 문화가족들

런대로 보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량사는 임진왜란때 불탄것을 仁祖때 재건, 仁祖14년(서기1636년)에 주조된 범종과 불화가 전해지고 金時習의 자화상도 간직되어 있다. 無量寺는 조선시대 목제 건축양식의 정교성과 독특한 기법, 응장함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극락보전에 봉안된 높이 18척, 가슴둘레 24척의 토불 3좌는 존엄성을 더해주고 있다. 극락전 앞에 자리잡은 보물제185호 무량사 5층석탑은 높이 7.5m의 예술품이다. 석탑앞에는 보물제233호 무량사 석등이 높이 2.92m 차태로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서기1455년 首陽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비관하여 중이되어 세상을 등진 金時習이 무량사에서 입적하여 사찰경내에 부도(유형문화재 25호)와 자화상(무형문화재 64호)이 보존되어 있다. 每月堂 金時習의 송죽같은 절개와 일편단심으로 이어

진 충성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되어 흐뭇했다.

이어 부소산성을 찾았으나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제공된 자료와 설명이 너무나 충실해 이를 근거로 찬란한 불교문화의 극치를 이룬 百濟문화를 더듬기로 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

百濟는 高句麗에서 갈라져 나와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한강유역에서 백제국을 세워 차츰 馬韓을 통합하면서 고이왕(古爾王 : AD234~286)대에 본격적인 고대국가로서 체제를 갖추었다. 樂浪郡멸망이후 百濟는 근초고왕(近肖古王 : AD346~374)대에 이르러 북으로는 평양과 남으로는 全南해안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지만 4세기 말경부터 고구려 廣開土王의 남진정책에 의한 영토의 축소와 개로



국립부여박물관 입구에서 기념촬영한 東草文化院 문화가족들

왕이 전사하게 되자 文周王은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겨 국가체제를 재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武寧王은 고구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으며 왕권과 귀족간의 세력균형을 확립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그후 成王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538년 사비로 수도를 옮겨 임시국로를 南扶餘로 바꾸어 국가중흥의 기틀을 삼고자 하였다. 이어서 中國 南朝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그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백제적인 고유문화의 기초를 세우고 日本으로도 선진문물을 전수하였다. 내부적으로는 16관등제와 5부·5방제를 확립하였으며 新羅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의 영토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新羅의 기습으로 한강유역을 잃게 되었다. 武王대에 왕권을 재정비하고 국력을 회복하였으나 義慈王 말기에 이르러 국정이 문란해지고 결국 羅唐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百濟의 문화는 도읍의 변천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漢城時代(B.C18~A.D475)는 현재의 서울에 있는 夢村土城이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풍납동토성과 석촌동, 방이동의 무덤들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석촌동에는 고구려식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토착적인 널무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방이동에서는 돌방무덤(石室墳)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소량의 철제품과 바리(鉢)모양토기, 단지, 세발토기 등이 대부분이며 중국 도자기와 고구려식 토기가 출토된 경우도 있어 지금까지의 조사가 불충분하지만 당시의 고구려,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알수 있다.

熊津時代(A.D475~538)에는 왕궁으로 공주시의 공산성이 중심지였으며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건물터와 연못등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이 대표적이며 특히 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5호분과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으로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되어 다양하고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買地卷에 기록된 내용에서 무덤의 주인공과 당시의 장례 제도 등을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 내용과 일치하여 삼국사기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남조 및 왜국과 문화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

사비시대(A.D538~660)는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기로 부소산 남쪽에 왕궁을 마련하고 부여의 외곽에 羅城을 쌓아 본격적인 도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불교문화가 융성하여 定林寺와 익산·미륵사와 같은 대표적인 사찰들이 세워졌다. 이러한 절터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은 세련된 도안의 기와와 벽돌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왕릉은 陵山里 고분군이며, 모두 돌방무덤이다. 이 중 동하총에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통이 남아 있는 四神圖가 그려져 있다.

유적 생활

(1) 궁궐터(王宮址)

백제후기 사비시대(성황~의자왕) 궁궐터는 부여 시가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소산의 남록일대가 유력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비시대의 도성계획과 규모를 밝히기 위하여 1982년부터 92년까지 이 일대에 대한 탐색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백제시대 연못, 도로유적, 건물터기단 및 석축시설이 발견되어 궁궐터로서의 가능성을 더해 주었다. 연못은 구 부여박물관 앞 광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켄들을 이용하여 호안을 정교하게 쌓았다. 그 규모는 남북 길이 약 6m이고 깊이는 1m이며, 동서길이는 지형관계상 7m 가량만 확인되었다. 연못내부

의 퇴적토는 대략 3개층으로 구분되며 최하층에서 금동제 귀걸이, 목간이 발견되었다.

중간층에서는 벼루, 등잔, 싸리나무로 엮어 만든 바구니, 흑색연질토기를 포함한 토기편, 연꽃무늬수막새를 포함한 다양한 기와들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최상층에서는 쇠창, 쇠살촉, 중국 당나라 동전인 개원통보(開元通寶: A.D621)가 출토되었다. 연못자리의 동쪽지역에서는 남북과 동서로 교차된 도로망 유적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남북도로는 너비 10.9m이고 동서도로는 너비가 3.9m이다. 도로의 양편에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잘 다듬어진 화강석재로 만든 암거시설이 있었는데, 너비 1.2m, 깊이 1.3m의 가공된 큰 판자들 3매를 남북방향으로 이어서 깔아 놓았으며 그 길이는 3.8m이다. 이곳에서는 연꽃무늬수막새, 토기, 다양한 암수기와가 발견되었다.

한편 건물기단과 석축시설은 구 부여박물관 동편에 인접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건물기단은 기와를 쌓아 만든 와적기단에 계단시설을 갖춘 것이었고 석축시설은 그 높이가 80cm에 이르는데 궁궐의 북쪽한계선을 밝혀주는 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완형토기를 위시한 각종 토기류, 사람얼굴무늬 토기편(人面文土器片), 연꽃무늬수막새, 동제 숟가락, 대형철제품, 쇠도끼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연못, 도로유적, 건물터 및 석축시설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칙성은 사비 백제시대의 도시계획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2) 扶蘇山城

百濟의 國都 사비의 중심거점을 이룬 산성으로 부여읍의 북쪽에 위치한 표고 106m의 扶蘇山에 축조되어 있다. 산성의 형식은 테뫼식(山頂式)과 包谷式이 결합된 百濟의 독특한 복합형의 산성이며 테뫼식산성은 두지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軍倉址·迎日樓를 중심

으로 위치하며 다른하나는 이에 접하여 반월루가 있는 곳까지 위치한다. 그리고 이 두 산성의 좌우에서 시작하여 북쪽에 있는 계곡을 둘러싼 보다 규모가 큰 성터가 포곡식의 산성이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돌과 흙을 섞어 다져 쌓은 토석혼축의 방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외벽 하단부에는 다듬은 돌을 5~8단으로 쌓았다. 산성에는 동서남북에 문자리가 남아 있으며 절터, 와적기단, 전물터, 웜집터, 군창터 등 유적이 있다.

① 추정 동문터

扶蘇山城의 동쪽 중심부에 위치하는 군창터와 영일루에서太子水와 宮女祠로 가는 순환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성벽이 10~12m정

도 절단된 곳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동문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백마강 상류, 동남쪽은 公州, 논산방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1989~1992년도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문자리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벽조사 및 주변조사에서 외곽도로 및 치(雉) 또는 敵臺시설이 발견되었다. 성내 외곽도로는 유사시 병력의 신속한 이동과 평상시 성곽관리를 위한 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정 동문터 북편으로 연장되는 성벽 외부에 돌출되어 설치된 치 또는 적대는 성에서 외부관측이 용이한 지역에 만들어져 적으로부터 방어와 경계를 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그위에 누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금동제 봉황장식, 금동 주조장식, 청동방울등 장식류, 쇠가지창(鐵製兩枝槍), 쇠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백제(百濟) 7세기
부여 현북리(扶餘 縣北里) 높이 13.0cm



금동삼존불광배편(金銅三尊佛光背片) 백제(百濟)
6세기 부여지방(扶餘地方) 높이 7.6cm

백제문화권탐방기

낫, 쇠살족, 갈고리등 무기류, 토기류 및 기와류가 발견되었다.

② 절터

扶蘇山의 서남쪽 기슭에 있는 百濟시대의 절터로서 발굴조사를 거친 뒤 정비되어 있다. 1980년도의 발굴조사에서는 중문, 탑, 금당이 화랑으로 둘러싸여 남북일직선상으로 놓인 一塔一金堂式의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③ 움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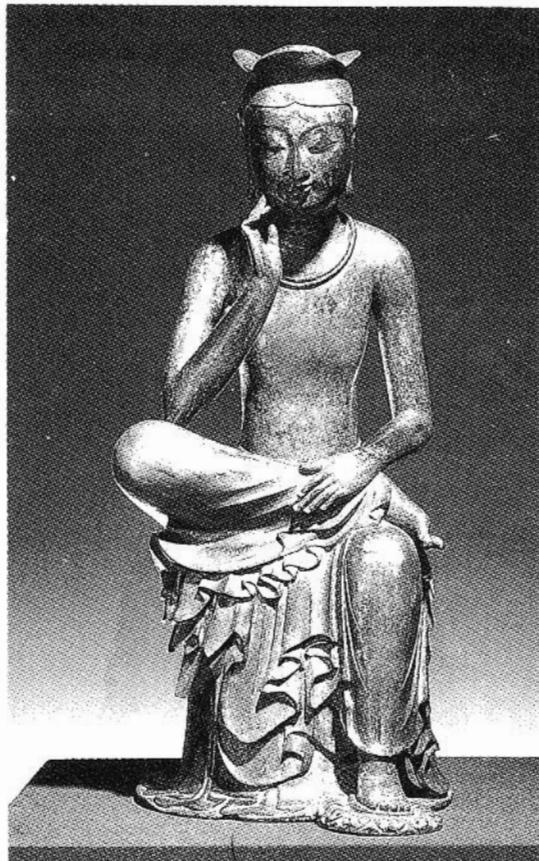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백제시대 움집터로 1983~1984년에 발굴조사되었다. 3기가 半月樓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현재 복원되고 있다.

(3) 百濟의 土器

백제토기는 선사시대의 민무늬토기(無文土

器)나 원삼국시대토기등의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바탕으로 새로이 樂浪과 고구려의 토기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금강이남지역에서는 伽耶토기의 영향도 보이며 5세기부터는 六朝시대 토기의 영향도 보인다.

따라서 백제토기는 시대의 변화와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특징을 띤다. 백제토기의 특색은 삿무늬의 보편적인 사용과 세발토기, 납작바닥토기의 성행, 특이한 형태의 그릇받침 등을 들 수 있다. 백제토기는 바탕흙과 빛깔로 보아 대체로 적갈색 연질토기, 검은색토기, 회청색토기의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적갈색 연질토기는 주로 한강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민무늬토기와 같이 바탕흙이 거칠고 질이 좋지 않으며 화분형그릇이 비교적 많다. 검은



금동삼산관반가사유상(국보83호) 金銅三山冠半跏思惟像(國寶 83號) 백제(百濟) 7세기 높이 93.5cm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 백제(百濟) 6세기 높이 9.0cm

색토기는 그릇의 표면을 잘 갈아 칠흑색으로 광택이 나는 것인데 최근 서울근처의 한강유역과 부여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다.

회청색토기는 구운온도의 차이에 따라 단단한 경질과 물을 잘 흡수하는 연질의 두 종류가 있다.

연질토기는 백제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오랫동안 만들어졌는데 대체로 삿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경질토기는 百濟토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교적 고운 바탕흙을 써서 신라의 경질토기와 같이 10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는데 말기에는 청록색 또는 황갈색의 유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기의 종류에는 항아리나 단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활용기인 바리, 대접, 자배기, 잔, 접시, 함, 시루, 병등 고루 갖추어져 있다. 굽다리접시, 뚜껑접시, 세발토기, 방울잔, 그릇받침 등의 의례용 토기도 있으며 벼류, 등잔, 변기등 특수용기도 있어 그

릇종류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토기는 초기에는 바닥이 둉근것이 만들어졌으나 중기이후부터는 납작바닥 그릇이 많이 쓰였다. 세발토기는 납작한 대접의 바닥에 세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토기이다. 또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뼈단지도 많이 만들어졌다.

百濟文化의 꽃을 장식한

찬란했던 佛教文化

금속공예와 石造미술 뛰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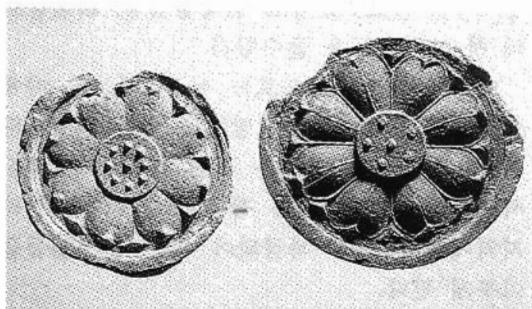
百濟의 佛教文化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4세기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원유적이나 유물들은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도읍기인 사비시대가 백제불교의 전성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百濟의 전형적인 가람배치방식은 中門, 塔, 金堂, 講堂을 남북일직선상에 배치한 一塔一金堂式이며 定林寺址, 金剛寺址, 軍守里寺址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東南里寺址의 경우처럼 탑이 없는 예도 있으며 扶蘇山寺址에는 강당이 배치되지 않아 왕실과 관련된 願刹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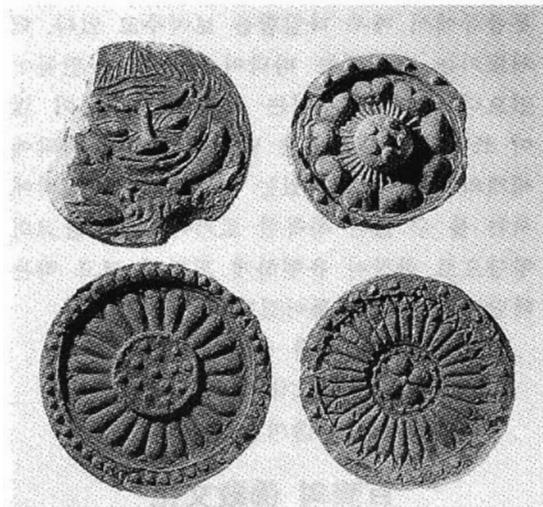
한편 彌勒寺址는 석탑2기와 목탑1기의 뒷편마다 金堂을 배치하고 이들을 각각 독립된 별도의 회랑으로 두른 三塔三院式의 독특한



금동관음보살입상(金銅觀音菩薩立像) 백제(百濟) 7세기 부여 규암면(扶餘 窺巖面) 높이 21.1cm



연꽃무늬수막새(蓮花文瓦當) 백제(百濟) 7세기
지름(오른쪽) 17.9cm



여러가지 수막새 各種瓦當 통일신라(統一新羅)
10세기 지름 13.0~16.0cm

형식도 확인되어 백제시대' 가람배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百濟의 불상조각은 부드러운 신체와 옷주름, 밝고 잔잔한 미소가 강조된 얼굴 등에서百濟的인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百濟의 비교적 이른시기의 예에서는 中國 北魏에서 東·西魏로 이어지는 北朝樣式도 반영하고 있지만 두손으로 보주를 맞잡은 捧持寶珠形 보살상과 같은 南朝불상양식의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같은 百濟의 대표적인 불상으로서는 軍守里출토의 납석제불좌상과 금동보살입상, 扶蘇山출토의 금동삼존불상과 납석제반가상, 서산 普願寺址출토 금동불입상, 新里출토의 불·보살상등을 들수있다.

이밖에도 석조상으로는 서산, 태안의 마애삼존불과 근래 새로이 발견된 예산 四面石佛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한국 마애불및 사면불의 호시가 되는 작품으로서 이후 신라 지역에까지 널리 파급되어 많은 造像활동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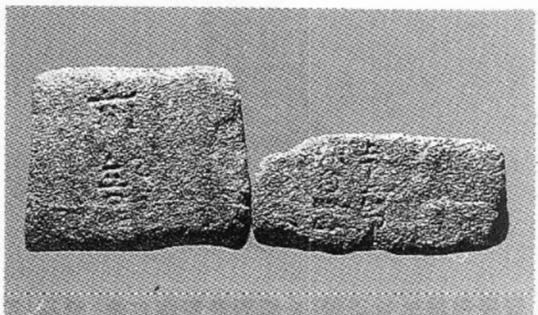
7세기에 이르러서는 公州 儀堂面출토의 금동보살입상과 부여군 규암면 출토의 금동보



금동제신장상(金銅製神將像) 고려(高麗) 10~11세기 높이 9.5cm

살입상, 예산 교촌면 출토 보살상 처럼 균형 잡힌 몸매에 표현된 미숙한 三曲자세와 天衣위에 복잡하게 걸쳐지는 영락장식 등에서 통일신라 조각으로의 이행을 시사해 준다.

탑에 있어서 초기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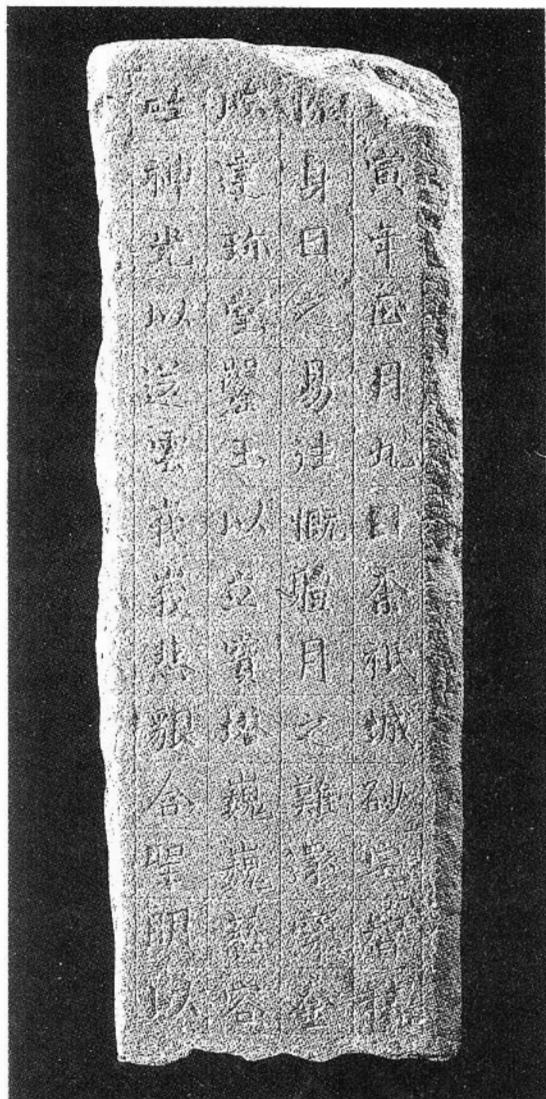
'전부'명비 '前部'銘碑 백제(百濟) 6~7세기

따른 益山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 최대의 작품이며 단아한 형태와 비례미를 갖춘 定林寺址五層石塔은 당연 三國시대 石塔의 백미로 꼽힌다.

이와같은 百濟의 석탑은 이후 統一新羅 석탑으로 완성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후대까지 백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백제계 석탑이 꾸준히 계승, 제작된

점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석조품으로는 百濟 古金石文의 귀중한 자료인 砂宅智積堂塔碑의 석조(石槽) 등을 들수있다. 사택지적비는 사태지적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무상함을 슬퍼하여 금당과 탑을 세운 내용을 시문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그 조성시기는 백제 의자왕 14년인 654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조는 부여읍 관북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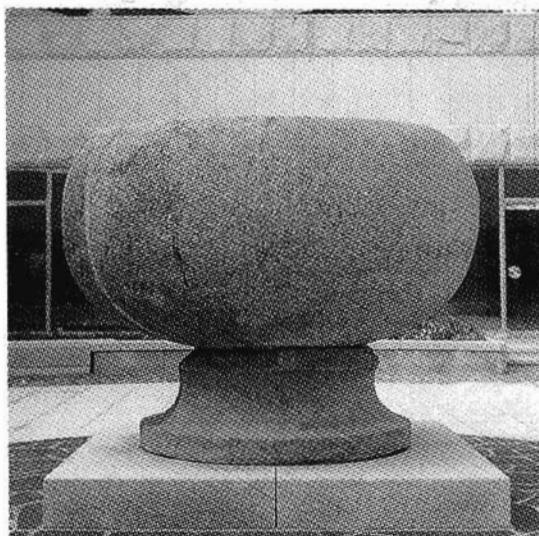
사택지적당탑비(砂宅智積堂塔碑) 백제(百濟)
7세기 부여지방(扶餘地方) 높이 109.0cm



금동삼존불입상 金銅三尊佛立像 백제(百濟)
6세기 부여 부소산 扶餘 扶蘇山 높이 8.5cm

추정 백제왕궁지에 있었던 것으로 구조가 장대하면서도 외형을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처럼 우아하게 표현한 백제 석조미술의 부드러움이 잘 나타나 있다.

백제의 瓦槽類는 백제의 사원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초기의 와전에서는 일부 고구려적인 영향도 보이지만 점차 中國 南朝의 양식을 가미하여 백제특유의 부드러움이 강조된 형태로 발전시켰다. 백제의 수막새는 고구려와 달리 그 색조에 있어서 연한 회색을 띤 것이 많으며 연꽃잎의 끝이 곡면을 이루면서 반전되어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닌다. 후기에 와서는 복판(複瓣)의 연판도 나타나고 연판 내부에 인동문이 첨가되거나 주연에 연주문이 장식되기도 하며 미륵사지 출토의 녹유와(綠釉瓦)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생겨나 통일신라 기와로 계승



석조 石槽 백제(百濟) 7세기 부여 관북리
扶餘 官北里 높이 146.5cm

된다. 특히 백제시대의 기와중에는 기와 표면에 문자를 도장으로 새겨 찍은 인각명와가 많으며 이곳에는 千支銘, 지명, 官舍銘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百濟의 佛教文化는 근본적으로 中國的인 요소나 고구려문화의 영향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우아한 백제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고 특히 사비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을 맞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百濟의 불교문화는 日本에 전파되어 아스카문화(飛鳥文化)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新羅및 통일신라 佛教文化의 근간을 이루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맺 는 말

東草文化院이 93사업으로 백제권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의 보람을 느낀다. 책과 강의에만 접하던 백제권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게 되어 조상들의 위대한 슬기와 찬란했던 문화유적을 피부로 느끼는 기분은 문화사랑의 길로 인도되는 감을 맛보게 되어 문화가족의 긍지를 새삼 인식하게 된다. 아직도 복원이 안된 문화유적들이 하루속히 복원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탐방을 적극 도와준 公州시와 부여군, 부여문화원에 감사드리고 소상한 자료를 제공해준 부여박물관에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東草 시의 그런여행사에도 흐뭇한 마음을 가진다.

금강산과 文學

李聖善<시인>

1. 그리운 금강산

누구의 주제련가 밝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 봉 말이 없어도
이제야 자유 만인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한상억, 「그리운 그강산」

우리에게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 금강산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조국통일이다.
분단 40년에 더더욱 사무치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떨어져 아직 생사조
차 알 길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마냥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의 만남이다.

누가 진정 우느냐, 소리 치는 사람은 많아도
부모를 북쪽에 두고 살아온, 자식을 남쪽에 둔
채 그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만 했던 그
소리 없는 깊은 울음을 누가 진정으로 알라.

그래도 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두고 온 가족
에 대하여 뜻뜻이 말할 수 있지만, 남쪽에 살며
그 가족 일부가 북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는
40년간 그것이 죄가 되어 어디다 그 슬픔을 터
놓고 말할 수조차 없었던, 또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속에 살아야 했던 그 비극을 누가 깊이 알
라. 특히 동해안 수복지구인 고성·속초·양양은
주민 대부분이 그런 피해자요, 이데올로기의 민
족전쟁이 남겨준 죄인들이었다. 함경도나 통천·
고성(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휴
전선 가까운 속초나 거진에 모여 살면서 기다
리듯이 이들 또한 북으로 들어가 고성(이북)이

나 통천의 금강산 기슭의 지금도 눈에 보이도록 가까이에 있을 가족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새해에는
숨이 차되
40년 묵은
묘향산 여우 울음소리
듣게 하시고
금강산 일만이천 봉
깎아지른 절벽 위를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가게 하소서.
숨길 것 하나 없이
드러내 놓고 허허로운 삶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할
권리를 위해
소스라쳐 떨게 하소서.

—김규동, 「아침의 시」

통일에 대한 열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떨어진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애타는 바람은 분단 이후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어 왔지만, 분단 당시 이십대의 청년이 오늘 육십대가 되고 그때 주역이었던 삼사십대가 칠팔십의 노령이 되어 이제 살아서 고향에 가보기는커녕 떨어져 사는 가족의 생사조차 아직 알 길 없는 엄청난 절망은, 세계 양대 전영의 정치적 해빙 무드와는 달리 이 나라의 경우 실제로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며 조급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길, 즉 통일과 만남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 살아 계시리라 믿기에
여든이 다 되셨지만
결코 타향에서는 눈감을 수 없어
두고 떠난 모친 얼굴과 처자 모습
한번 보기 전에는
눈을 감아선 안되기에
고향 흙을 쓰지 않고는
절대로 땅에 묻힐 수가 없어
아직 살아 계시리라 믿기에
헤어진지 36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가신 후로 할머니는
보름에 한번씩 나를 데리고
먼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엎드려
끌도 없이 울곧 하였습니다.
어린 나는 그런 할머니가 때론 싫었지만
과일꽃 피는 봄날이나
낙엽지는 가을에는 더욱 그러시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살아 계실까.
소식이나 한번 듣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던
한밤 이상한 소리에 깨어보면
이불을 쓰고 남몰래 혼자 호느끼시던
어머니마저 3년 전에 가셨어요
당신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호적에 엄연히 호주로 계시듯
가실 때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와
나 없이도 잘 캤군
하는 소리 한마디만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내 시집을 뒤적이며
대견하다는 듯 웃어주시고
그보다도 아아
과일꽃 피는 길 산국화 피는 길을
할머니를 따라가듯 당신을 따라가
할머니 무덤에 엎드린
지치고 쇠한 여든의 노구

일생 꾀_mac_hin 아픔의 그 흐느낌을
오십이 다 된 자식이 서서
지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꿈으로 오시어
손자 손을 끌고 마당의 사과나무를
만지시는 당신
—이성선,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이 시는 필자 자신이 금강산의 남쪽 마지막 봉우리로 일컬어지는 신선봉 아래 태어났고 필자의 부친이 지금 이북의 금강산 어디쯤 살아 계시리라 믿어 쓴 현장시다. 같은 금강산 기슭에 부모와 자식이 죄없이 헤어져 살며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도 어찌면 살아서 만날 수조차 없을 분단의 비극이 바로 여기 놓여 있다.

금강산의 시작은 이 신선봉부터다. 이 산 밑에 금강산 화암사라는 절의 현판이 붙어 있고, 고성의 삼일포, 통천의 충석정과 함께 관동팔경의 하나로 바다를 향해 날아갈 듯 앉아 있는 청간정,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시작된다.

2. 금강산 찾아가는 길

청간정에서 삼칠팔 킬로미터 북쪽으로 국도를 따라 들어가면 현 남한의 고성군 군청 소재지 간성이 나오고, 이 간성읍의 북쪽으로는 금강산의 남단 봉우리인 향로봉과 전봉산에서 동해로 흘러 내리는 북천이 있다. 이 북천을 건너는 다리가 북천교로, 이 다리는 지금 두 개가 놓여 있다.

동쪽에 새로 튼튼하고 크게 만들어진 다리 옆에 서쪽으로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사십년 가까이 남과 북을 연결했던 넓고 작은 다리가 비켜서 남아있다. 이 다리도 북천교라 하면서 일명 합축교(合築橋)로도 불린다. 폭 6미터, 길이 214미터, 교각 17개의 이 다리는 남과 북이 반씩 만들어 완성했기에 합축교라 하는데, 1948년 6월 북한이 공사를 시작하여 교각 17개 중 남쪽 9개만 만들다 만 것을 휴전후 남한에서 북쪽의

교각 8개를 마주 세워 12년만에 완성한 남북 합작의 다리다. 지금은 남한에 놓여 있지만 6·25전에는 이북 땅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만든 통일교이니, 이 다리를 건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은 유감에 젖게 한다.

이 다리에서 서서 바라보면 북에서 남으로 내려 뻗은 태백산맥의 금강산 하단 봉우리들이 줄기줄기 서쪽 하늘에 매달려 있고, 그중 서쪽 멀리로 비켜선 향로봉과 북쪽으로 가까이 우뚝 솟은 건봉산이 유난히 우리 눈길을 끈다. 이 두 봉우리는 휴전 직전에 그 어느 곳보다도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향로봉은 만 2년에 걸쳐 89회나 남북군이 서로 주인을 바꾸며 엎치락 뒤치락하다 결국 남쪽 국군의 손에 넘어간 것이고, 건봉산 역시 1951년부터 1953년 휴전 직전까지 2년간 16차례의 공방전 속에 남쪽이 쏘아댄 포탄수만도 무려 10여만 발, 주인이 바뀌기도 20여 차례였다.

이 건봉산 바로 아래(남쪽 기슭) 자리잡은 것이 조선 4대 거찰의 하나인 건봉사로, 합축교로부터 약 12킬로미터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 건봉사는 기록에 보면 신라 법흥왕 7년(서기520년) 아도화상이 고성현 금강산 남쪽에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고 그후 서봉사로 개칭했다가 고려 공민왕 7년에 현재의 이름을 가겨 오늘에 이른 절이다. 신라 시대 자장을사가 당에서 가져온 부처님 치아와 사리를 이곳에 봉안하여 이름 높기도 하다.

3,138칸이나 되었던 이 대사찰은 한때 산화로 타버리고 다시 중건된 뒤에도 97동 766칸에 말사 30개의 커다란 절이었지만 6·25의 포화 속에 지금은 연기로 모두 사라지고 한줌 재까지도 바람에 날려간 채 그 입구에 쓸쓸히 불이문(不二門)과 능파교만 남아 그 옛날의 웅장함을 허무로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이 절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때 쓰러져 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왕명에 따라 서산대사 휴정이 승병을 모아 사명대사 유정과

함께 훈련시키던 곳이니, 지금의 폐허 속에 서서 400년전 조국을 위해 일어서 분연히 합성 지르던 그때를 생각하니 그 소리 아직도 바람결에 들리는듯 가슴이 아프고 아프다. 이 청허 휴정의 「향로봉시」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만국의 도성들은 개매독이요
고금의 호걸들도 초파리라.
창에 비친 밝은 달, 손의 베개에
끝없는 솔바람이 그대로 풍류。
(萬國都城如蛭蟻 千家豪傑等醯鶴
— 窓明月清虛枕 無限宋風韻不齊)
— 휴정, 「향로봉시」

선조가 의주로 옮겼을 때 휴정이 나아가 뵈오니, “나라의 난리가 이러하니 그대 능히 구제하려느뇨.” 이에 휴정이 “나라 안 승려로서 늙고 약한 이는 절을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원하고 젊은 장정들은 신(臣)이 통솔하여 적을 물리치겠나이다”하고 팔도 십육종 도총섭으로 임명되어 5,000명의 승병을 모아 훈련한 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인 유점사와 이 건봉사다.

십년을 나라 위한 칼이 헛되어
한 몸만이 옥중에 갇혀 있을 뿐
기쁜 소식 오지 않고 벌레만 요란한데
몇 가락 흰 머리털에 또 가을바람 이네.
(十年報國劍全空 只許一身在獄中
撫使不來虫語急 數莖白髮又秋風)
— 만해 한용운, 「가을 회포」

민족의 수난사를 가슴에 깊이 묻어 품고 애국지사와 구국병정들을 길러낸 이 대가람 건봉사는 바로 금강산의 남쪽 대문이다. 이 절에 일제의 탄압과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요 민족지사 시인인 한용운이 설악산 백담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3년간 와서 공부했었다. 그는 이 절에 설치된 강원에서 공부하며 구국의 뜻을 깊이 새기고 갖가지 일화를 남겼다.

한편 금강산에 오래 묵으며 폐결핵 간병과 창작에 힘써 금강산에 대한 많은 시조를 남긴 춘원 이광수, 젊어서 조국을 위해 일하다가 일제 말기에는 변신하여 학병을 종용하는 등 갖가지 민족정신 말살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겨레를 분노케 하고 민족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던 그도 한때 향로봉을 넘어 이 절에 머물면서 이렇게 적었다.

바람이 물소리인가 물소리가 바람인가
석벽에 달린 노송 움츠리고 춤을 추니
백운이 허우적거려 창천에서 내리더라

청학봉 백로봉에 소나무 좋을시고
붉은 봄 푸른 잎에 대조차 골단말가
절벽에 인적이 끊였으니 못만짐이 서둬라.

—이광수, 「청학 향로봉에서」

이 역사적·민족적 혼이 깃든 대가람이 다른 민족도 아닌 우리 민족의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하여 재로 변하고 초토화되어, 이제 그 허무의 땅 위에 서고 보면 6·25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울분과 뉘우침을 갖게 된다. 민족이 나누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재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 초토 위에서 다시 읽는다.

이 건봉사에서 약 6킬로미터 정도 동북쪽 길을 따라 가면 거진읍이고 거진에서 북쪽으로 다시 7킬로미터 정도가면 남한의 최북단 마을 대진리에 이른다. 남한의 모든 정치·경제·행정이 여기와서 멎는다. 이 대진리의 남쪽에 바다를 끼고 맑고 눈빛 푸르며 송림 짙은 화진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고성·통천을 이어 원산의 명사십리로 이어지는 은빛의 모래별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이 모래의 흰빛과 푸른바다와 반짝이는 호수의 물빛은 송림의 그윽한 정취와 함께 황홀한 절경을 이룬다. 금강산의 치마폭에 감싸여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곳이다. 이 화진

포 남단에 바다로 내려 뻗은 암벽 중간쯤 김일성 별장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서쪽의 송림 속에는 이승만 별장이 숨어 있다. 남북의 두 상징적 인물들의 별장이 같은 곳에 나란히 주인을 잃고 남아 호수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이 대진리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13킬로미터가 통일로다. 이 사이 마차진까지는 민간인이 자유로이 갈 수 있지만 마차진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 민통선이 놓이고, 그 안은 명파리에 사는 마을 사람이나 마차진의 통일안보교육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금강산을 바라보는 통일전망대로 갈 수 있다.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갑자기 만감이 교차한다. 동해에서 서해까지 이어지는 155마일 휴전선의 남방 한계선 철조망이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고,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건너갈 그리운 해금강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도 우리는 거기서 발을 멈추어야 한다. 동해안을 따라 여기까지 같이 오던 옛길(옛날의 도로)이나 철로는 멈추어 선 우리를 비웃듯이 북쪽으로 거침없이 뻗어들어가 북쪽의 땅과 불 부비고 동포의 발을 만져주는 데, 누가 우리의 발만을 여기 불잡아 서게 하는가.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늘의 새들도 구름도 자유로이 날아 다니는데, 동쪽에 펼쳐진 바다는 더욱 넓고 평평히 열려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달리다 멈추고 주저앉아 그 높은 기적도 속으로만 올리며 녹슬어가는 휴전선의 철마처럼, 이 자리에 서서 꿈쩍 못하고 울어야 한다.

이 통일전망대로부터 불과 10킬로미터 앞에 해금강의 구선봉이 물 위에 솟은듯 마주 서 있고, 그 봉우리 바로 너머에 고성이 숨어 있다. 속초로부터 64킬로미터인 이 고성이,

지금 속초에서 처럼 이산가족이 모여 금강산을 바라보며 통일과 재회의 꿈을 그리고 있을 것이니, 그 한이 구선봉 위에 어려 하늘빛이 더욱 아프게 비친다. 불과 4,5킬로미터만 이어 놓으면 열리는 통일의 길, 이미 있으되 가지 못하는 이길, 36년 전만 해도 이 길을 통하여 양양에서 기차 타고 가면 하루에 얼른 금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이 길을 따라 통천·고저·원산에서 합경도 혹은 평안도를 거쳐 만주 등지로 두루 오입하고 유람 떠나던 길, 이 내 조국 내 땅을 누가 여기서 막는가. 여기 서서 바라보면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자체가 싫다.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 가슴의 깊은 바닥에서 뜨거운 흐름이 솟구친다.

이 전망대에서 북쪽으로 바로 보이는 것이 해금강, 다시 서북쪽으로(해금강에서 서쪽으로 약 12킬로미터) 희미하나 하늘을 찌를듯 기암괴석을 빛내고 서 있는 산이 외금강이다. 일출봉·채하봉·육선봉·집선봉·세존봉·옥녀봉 등이 비밀을 토하듯 신비롭게 서 있다.

그러나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산은 아직 전화의 원흔 속에 묻혀 있다. 멀리의 금강산을 받는 가까이의 산과 능선이 지금도 남북군이 대치한 철조망의 뒤엉김 속에 오히려 전보다 더 공고해져 숨도 못 쉬게 차갑고, 바로 앞에 금강산을 받쳐든 월비봉이나 351고지는 그런 차가움과 함께 무서운 전투의 원흔이 잡들지 못하고 헛빛 진달래만 해마다 피워놓고 노래 부르기 때문이다.

너로 해 강산이 열리고
너로 해 일월이 빛났다.
북녘 땅 끊어진 서른 해
수려 1만2천 봉이

오늘도 창파를 때리며
아 울겠구나 이 조국을

—정완영, 「금강 희곡」

3. 금강산은 어떤 산인가.

우리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채 40년간 숨어 우리의 그리움을 그토록 불러 일으켜 온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중국 사람은 옛부터 원생고려국 일견금강산(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이라해서 고려국에 나서 금강산 구경하는 것을 한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다. 또 1926년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구스타브 국왕도 금강산을 돌아본뒤, 하느님께서 천지창조를 할때 6일중 마지막 1일은 오직 금강산을 만드는데만 보냈으리라고 찬탄했었다.

『지봉유설(芝峯類說)』을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산은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마천·철령으로부터 시작해 남으로 금강·오대·태백이 되고 지리산에 이르러 그쳤다(我國諸山은 皆發源於白頭山하여 自摩天 鐵嶺으로 而南에 為金剛·五臺·太白하고 至智異而盡焉이니라)”고 적고 있다. 또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금강산은 일명 개골(皆骨)이요 열반(涅槃)이요 일명 풍악(楓巖)이요 일명 기달(倪怛)”이라 적혀 있다. 서울 장안에 풍류객으로 소문난 정수동(靜壽洞; 夏園 鄭芝潤)이 어느날 부인이 해산할 기미가 보이자 불수산(佛手散)을 지으려고 약국으로 가던 길에 종로 네거리에서 마침 금강산 구경 가는 친구들을 만나 불수산 짓는 것은 까맣게 잊고 그들을 따라 나서 꼬박 1년을 금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오니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그래 들어가 보니 떠날 당시 배안의 아기가 벌써 밖에 나와 첫돌을 지내고 있더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한 금강산.

이 산은 백두산에서 그 혼과 맥이 흘러내려 낭립산맥과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 국토 척추의 바로 가슴에 우뚝 솟은 동양의 다이아몬드다. 당나라 이백이 여산을 찬탄했고 맹호연도 여산의 경치가 하도 좋아서

‘尋陽晚泊望盧峰’이라는 시구를 적고는 나머지 글을 못 채웠다지만, 송강은 이백이 금강산을 보지 못했으니 여산이 천하의 절경이라고 떠들었지 만약 여기를 보았다면 이보다 낫단 말은 못했을 것이라고, 중국의 절승을 어찌 감히 금강에 비기겠느냐 하면서,

천심절벽을 반공에 서여두고
은하수 한구배를 촌초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터이서 배같이 걸러시니
도경 열두구배 내보매는 여려히라
이적선이 이제 있어 고쳐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말 못하려니

라고 절규하듯 비웃고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날거든 뛰디마나
뛰거든 날디마나
부용을 꼬잣난듯 백옥을 못건난듯
어와 너여이고 너같아니 또 있느가
개심대 고쳐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역력이 헤여하니
봉마다 매쳐있고 끝마다 서린기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이라 감탄을 연발했던 산. 고려시대 글 잘하기로 이름난 문신 탁광무가 여기 와서

상풍의 풍류가 불현듯 솟아
가을날 오늘에 금강에 왔소
비는 오지 않으나 구름이 들고
겨울이 아닌데 설광이 비치네
거연히 이몸이 구름 끝에 있으니
신선이 여기 내렸나 보오
중턱에는 두견화 아직 안 피었으니
봄별도 산에 들기 어렵겠구나.

라 읊었고 또 이황은

금강산 승경을 오래 전에 들었으나

20년 회포를 오늘에야 푸네
승경을 환상하려 찾아왔는데
가을날은 어찌도 그리 맑은가
계곡에는 국화 향기 흘러내리고
바위의 붉은 단풍 불타는 듯하네
산곡을 옮조리며 지나가느니
마음이 숙연함을 깨닫게 되네
(聞說金剛勝 空懷二十年 玩來清景地 況
復好秩天 溪菊香初動 岩楓紅慾燃 行吟岩
壑底 心慨覺蕭然)

라고 친탄하였다. 봉래 양사언도

산 위에 산이 있고 하늘 속에 땅이 있네.
물가에 물 흐르고 물 속에 하늘 있네
공허 속에 놓여 있는 창망한 이몸은
연하도 아니고 신선도 이 아닐세
(山上有山天出地 水巴流水水中天
蒼茫身在空虛裏 不是煙霞不是仙)

라 노래했다.

이 금강을 옛날에는 ‘사리매’ 곧 ‘서리뫼’라 하여 설봉(雪峰)의 뜻으로 불렸으나 고려시대부터 화엄경의 “동해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동해에 보살이 살만한 곳을 찾아보니 이곳의 산수가 속기를 벗어나 불교적 도장으로 일맞은 바로 화엄경 속의 금강산이라 이때부터 금강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금강산의 이름은 봄에는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개골산(皆骨山)이라 하며,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고성·통천의 동쪽은 외금강, 회양의 서쪽은 내금강, 바닷가를 해금강, 비로봉의 남쪽 기슭을 신금강이라 하고, 주봉은 해발 1,638미터의 비로봉이다. 고성군·통천군·회양군에 걸쳐 있으며 해금강을 제외한 전체 면적이 385평방 킬로미터, 남북으로 길게 60킬로미터, 동서로 좁게 40킬로

미터, 둘레가 80킬로미터이고 약 70%가 고성군에 해당한다.

옛 말에는 ‘금강산 일만이천 봉 팔만구천 암자’라 하지만 기록에는 절의 수가 108사(寺)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도 불교의 백팔번뇌에서 나온 말로, 아마 하도 많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리라.

그 절승에 대해서는 여기 다 말할 수가 없다. 다만 별유천지(別有天地)의 세계요 기암괴석의 기기묘묘함이 설부른 찬탄을 불허하는 비경으로, 오직 이곳에 와서는 신의 대관현악을 들으며 초속(超俗)과 선경(仙景)의 극락 절경, 대파노라마 속에 아 입 벌리고 서는 것이 당연할 뿐이다. 금강산은 시인 묵객들이 무수히 몰려와 자신의 글재주를 자랑하며 경치를 상찬한 곳이지만, 한편 민족혼의 기개를 기르고 마음을 닦으며 구국의 병사를 길러낸 조국수호의 터전이기도 한다. 또 경국의 비운을 한 몸에 짊어진 마의태자가 한을 묻기도 하고 정치 싸움에 쫓겨난 선비의 아픈 가슴을 물소리가 씻어주는가 하면, 한 여류시인의 쓰라린 가슴 또한 따스히 겪안아준 곳이기도 하다.

신라의 효소왕 3년 부예왕은 낭도들을 이끌고 금란(金蘭), 지금의 통천을 순례하였고, 신라 4선인 영랑·술랑·남랑·안상 또한 금강산에서 놀았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신홍 고려의 왕건과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려하자 태자가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이 지경에 이르니 공연히 백성만 괴롭힐 뿐이라는 부왕의 말에 태자는 망국의 비감을 안고 떠돌다가 이 금강산 단발령에 머리를 자르고 입산하여 마의·무언·초식으로 끝내 외로이 몸을 묻었다. 사랑하던 낙랑공주와의 비극적 재회도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

빛나는 천년사적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보위에 오를 몸이 초야속에 누웠는가
어즈버 홍망성쇠가 꿈이런가 하노라.

마의태자묘는 비로봉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용마석에 이르는 길 옆에 오십평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무덤의 자취는 보이지 않고 높이 넉자, 폭 한자 반의 풍운에 시달린 묘비만이 태자의 마음처럼 쓸쓸히 서 있다.

다섯 살때 이미 그 천재성을 인정받아 장차 크게 쓰이리라 선망받던 매월당 김시습. 그는 세조의 왕위 찬탈로 생육신의 몸이 되자 이 금강산을 찾아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물고 구름 보고 물고 나무를 보고 올었다.

사람은 다 산과 물이 좋아 즐기나
나는 산에 올라서 물고
물에 임해서도 운다.
(人皆樂山樂水 我獨登山而哭 臨水而哭)

—매월당 김시습의 시

이와 비슷한 시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단재 신채호가 암록강을 건너며 물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시를 쓰며 물었던 김스습은 금강산 속에서는 한 줄의 시도 쓰지 못하고 설악산 내설악의 한계천에 와서야

목메어 우는 한계의 냇물은
밤낮없이 빈 산 속을 흐르는구나.
꿈속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이내 심정 시름이 넘치네.
(鳴咽寒溪水 空山日夜水
夢魂歸來得 飄轉實堪愁)

—매월당 김시습의 시

라 물었으니, 그의 슬픔이 너무 속되어 금강산의 그 천의무봉으로는 셋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보면 일세의 미인이요 절출한 시인이며 뜻 남성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그런 힘으로, 일생 수도로 대성하려던 지족선사까지 파계케 했던 황진이 그녀도 말년에는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외롭고 슬프게 지낸다. 서울서 같이 도망 온 젊은 양반네가 무위도식에 빠지자 절을 찾아 두루 밥을 빌며 때로 몸도 팔아 견뎠다 하니 그녀의 아픈 마음 꽃으로 피어 오늘도 물 속에 얼굴 비치며 웃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온 몸에 비감을 싣고 차마 하늘을 우러를 수 없는 죄인으로 삿갓 하나 쓰고 방랑하다가 이곳에 와서 변뇌를 셋으며 지냈던 사람은 김병연이었다. 일명 김삿갓(金笠)인 그는 일생 떠돌이로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수신으로 수많은 풍자와 해학의 시를 뿐였지만, 그도 이 금강산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절묘한 예술적 경지의 작품을 남겨, 그의 시의 예술적 높이가 얼마만한가를 다시 증명하게 한다.

푸른 산길 더듬어 구름 속에 들어오니
다락이 좋아 시인의 발길 멈추네
용의 조화인가 폭포소리 요란한데
칼날 같은 산들이 하늘에 끗었구나
(綠青碧路人雲中 樓使能詩客住節
龍造化合飛雪瀑 劍精神削挿天峰)

혼자 쓴 시 외에도, 일년간이나 금강산 계곡을 같이 다니며 화답했던 공허스님의

아침에 입석봉에 오르니 구름이 발밑에
생겨나네(朝登立石雲生足)

에 대하여 읊은 김삿갓의

저녁에 황천담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
에 걸린다(暮飲黃泉月掛唇)

라는 시나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겼지만 웃은 젖지
않소(景浸綠水衣無濕)

의 공허 시에

꿈에 청산을 답사했지만 다리는 고달프
지 않네(夢踏青山脚不苦)

라 하는 화답은 그 물음이나 답이나 선미 번
뜩이는 일품의 시다. 여기선 김삿갓의 시도
좋지만 공허의 시가 더 놀랍다. 정비석의 『소
설 김삿갓』에 보면 이 공허스님이 지었다는 시

하늘 이불 땅 자리 산 베개하고
달 촛불 구름 병풍 바다로 술을 빚었네
거연히 크게 취해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는 곤륜산에 왜 이리 걸리는고.
(天衾地席山爲枕 月濁雪屏海作樽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가 있다. 선시로서, 아닐 시로서 최고의 경지
에 이른 작품이다. 가이 이를 따라갈 만한 작
품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시의 작자는 석지
현의 『선시』에 보면 진목일옥(震默一玉)으로
기록되고 있고 김달진 역 『장자』의 소요유편
서시로 놓일 정도로 높이 평가되는 바, 필자
가 보기로는 진목일옥의 시에 틀림없다. 김병
연이 조선 말 순조 때 사람이고 공허도 같은
데 비하여 진목일옥은 선조 때 스님으로 무
려 30년이나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각가지 괴
기한 행적을 남기고 곡차로도 유명한 진목일
옥이 유정을 찾아왔다가 쓴 것인지도 모른다.
분명 이 시는 금강산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산자체에 벼금가는 절묘한 시다. 이렇게 금강
산은 신의 창조 속에 다시 살아 있게 하는
영산 중의 영산이다.

4. 금강산과 문학작품

금강산을 읊은 시나 이곳을 무대로 한 문

학작품은 이 산의 봉우리 수만큼이나 많다. 또 이 많은 작품들중 어느 하나 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욕심 같아선 다 소개하고 싶다. 고려의 이제현·이색 등이 여기와서 노래하고 조선의 송시열·양사언·성임·이이·이황 등이 여기 와 읊었으며 만공선사나 효봉스님·정인보·최남선·정지용·박용철·이은상·박종화·주요한 등이 여기와서 썼다. 이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엄청나거니와 여기서는 다 다를 수가 없어 다른 지면에 미루기로 하고, 또 앞에서 주로 옛시를 취급했으므로 유정의 시 한 편만 더 소개한 뒤 현대시 쪽을 찾기로 한다.

유정은 금강산 유점사의 휴정을 찾으며 재미나는 일화를 남기고, 유점사에서 승병을 훈련하면서 만폭동에 들어가

여기가 바로 인간의 백옥경인가
유리동부에 중향성이다.
날아 흐르는 만폭은 천봉의 눈인데
긴 읊음 한소리에 천지가 다 놀란다
(此是人間白玉京 琉璃洞府衆香城
飛流萬瀑千峰雪 長嘯一聲天地驚)

—유정의 시

라 읊었다. 박용철도 여기 찾아와서

백만 소리 속에
너는 또 그 속에 고요를 지켜
털끝만한 움직임
웃어보임 없으나
영원한 멜로디로
너는 혼들리우고
그윽한 웃음
네 모습이 풍기어난다.
걸칠 것 없이

천연스런 너

빛깔도
너를 가리지 않아
안에서 스스로 트이고
시울다아 아니 넘는다

—박용철, 「만폭동」

라 읊었다. 만폭동은 내금강의 표훈사에서 마하연까지의 이십리 계곡으로, 주위경관이 이를데없이 다름답고, 굽이치고 돌아드는 물굽이가 색색의 무지개를 피워 올려 인간이 접할 수 없는 경관을 펼쳐놓는다. 이광수·이은상·정인보·고두동 같은 시인들이 이 계곡의 물소리에 담아 노래했다.

다시 비로봉에서 서쪽 신풍리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가면 구성동 계곡을 보게 되는데, 정지용이 여기 와서 명시를 썼다.

골작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노루가 소란히 싸히기도 하고,
꽃도
귀향 사는 곳

절터드랬는데
바람도 모하지 않고
산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구성동」

높고 깊은 이 구성동 골짜기에는 특별한 절승은 적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 깊고 더 조용하여 귀향(귀양)사는듯 유성만 묻혀 정지용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비로봉은 금강산의 주봉이다. 이 비로봉을 중심하여 대금강산의 기암절벽과 물굽이가

펼쳐지고, 영랑봉·일출봉·월출봉·집선봉·오봉·집지봉·채하봉·옥녀봉 등 수많은 봉의 군졸들이 집총한듯 늘어서 있다. 이 봉우리에 올라 서면 내외금강과 해금강의 푸른 물이 한 눈 안에 들어온다. 아니, 눈 안으로 소리내어 물려온다. 여기와서 정지용은 두 편의 시를 썼다.

백화수풀 앙당한 속에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육체없는 요적한 향안장
이마에 스며드는 향료로운 자양!

해발 오천피이트 권운총 우에
그잇는 성냥불!

동해는 푸른 삽화처럼 움직 않고
노루 알이 참벌처럼 옮겨간다.

연정은 그림자 마자 벗쟈
산드랗게 얼어라! 귀뜨람이처럼
—정지용, 「비로봉」

많은 시인들이 이 비로봉에 올라 많은 시를 읊었다. 문인치고 여기 올라 시를 짓지 않은 이 없을 정도다. 비로봉에서 다시 동해 방향의 외금강으로 내리면 8킬로미터 지점에 유명한 구룡연이 있다. 이 구룡연에 와서 이은상은 노래했다.

삼십리 장류곡이 돌아돌아 벼르더니
동천을 열어막고 무삼기적 보이시노
대지에 홍광이 날더불어 마주삼겨섰더라

구룡연 물꿩는 소리 천동의 아버지요
물기둥 구비치니 광풍의 어머니라
두 사이 날아뿌리나니 운우인가 하노라

뜬 채로 눈이 멀고 열린 채로 귀도 먹어
어던지 아는채로 어던지 모를러니
암반이 흔들거리어 발이 또한 멀리더라
—이은상, 「구룡연」

구룡연에서 옥류동으로 내려가서 정지용은 읊는다.

골짜기 하늘이
따로 트이고

폭포소리 하잔히
봄우뢰 울다.

날가지 겹겹히 모란꽃잎 포기이는 듯.
자위 돌아 사풋 절듯
위태로히 솟은 봉우리들.

풀이 속 속 접히어 들어
이내가 새포름 서그러거리는 숫도림.

꽃가루 묻힌양 날려올라
나래 떠는 해

—정지용, 「옥류동」

그 외 만물상이나 보덕굴·단발령·망군대 등을 읊은 시도 많지만 역시 다음 기회로 미룬다.

5. 금강산 개발과 우리의 바람

한때 나라 안은 ‘금강산 개발’로 들떠 있던 때가 있었다. 그로하여 우리의 발길이 금강산을 찾을 날도 머지않은 듯싶은 심정에 놓여 있으며 이 기대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런 들뜸과 기대는 그때 너무 갑작스레온 것 같았지만 설은 너무 늦었기에 이번만은 꼭 이루어지기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깊다. 기다려진다. 이 아름다운 산봉, 이 신비한 물굽이가 내 것임을 가서 확인하고 싶다. 그것이 내 땅 내 조국임을, 우리 국토임을 확인하고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고 싶다. 통일전망대에 서서 바라보는 지금이 아니라, 그대로 열린 길을 따라 새가 날듯 열린 마음으로 금강산을 찾고, 거기서 다시 고성·원산 등 북한 각지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만나 열싸안고 싶다. 의 길이 되기를 빈다.

남북이 힘을 합쳐 합죽교를 만들듯 남북이
손을 잡고 금강산을 개발하고 묘향산을 개발
하고 백두산을 개발하여 그 길이 바로 통일
옛친구를 만나 열싸안고 그런 마음으로 금
강산에 들어가 시도 쓰고 싶다.

너도 북에 가서 시인이 되었을까
누구보다 감성 예리하고 의리심 깊던
너도 가서 시인이 되었을까
설악산의 끝봉이자 금강산의 첫봉인
신선봉 아래
하늘밑 첫동네에서 함께 태어나
학교 갈 때 서로 불러주고
배고파 주먹밥 나누어 먹으며
서로 닮았다고 우물을 들여다보고
킬킬거리던 어린시절.
둘 다 풀잎 같이 약하지만
함께 있었기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너와 나
너는 부모 따라 북으로 피란 가고
나는 그대로 혼자 남아
외로움 많은 시인이 되었구나
내가 시인이 된 것은
짝 웠은 외톨박이로 컸던 까닭이다.
홀로 걸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설악산을 해매며 글을 쓰듯
너도 금강산을 해매며 시를 쓰겠지.
가까운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지켜보며
지척인 곳 못 오는 아픔 울며 적겠지.
통일이 오면 아아 통일이 오면
다시 고향에 나란히 집을 짓고
함께 시를 쓰며
합동시집이나 한 권 만들며 살자.
너의 영혼과 나의 숨소리로
나의 그리움과 너의 아픔으로
한 그루 나무를 키우며
남은 삶 새롭게 꽂피우고 살아보자.

-이성선, 「정선에서」

수탉알



권오진
소설가

<약력>

- 강원도 홍천출생
- '89년 「수필문학」 추천 완료
- '89년 「우리문학」 소설 신인추천으로 등단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한국 문인협회 수원지부 소설분과 위원장
- 현재 수원시 장안구청 민방위계장
- 주요작품으로 소설 「辨濟」「안개어둠」「縣賞手配者」「돌개바람」「彷徨의 끝」「틈」등 다수

내가 어렸을 때였다. 아버지는 소 여물을 끓이기 위해 첫닭의 허치는 소리와 함께 새벽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곤 했다. 우리 집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아버지의 근면한 새벽 기침(起癮)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마솥이 걸린 사랑채 아궁이에 풋장을 뚝뚝 분질러 불을 붙이고 그위에 장작을 올려 놓았다. 그리고 안채 부엌에도 불을 지폈다. 집 안팎은 금새 나무 타는 매캐한 연기 속에 갇혀 버렸고 밥솥의 물이 설설 끓을 때쯤해서 어머니는 아침을 지으려 부엌으로 나가셨다. 어머니의 품 속을 읊은 나는 잠을 뒤치다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눈을 부비며 아궁이 앞으로 다가가면 아버지는 어이구 귀여운 우리 새끼 하시며 닭이 병아리를 품듯 당신의 품속에 나를 한 아름 안아주시며 입맞춤을 해댔다.

그날 아버지는 달걀보다는 작고 새알보다는 큰 수탉알이란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주홍빛을 닦아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닭을 여러 수 치고 있었는데 그중 수탉이 알을 낳았다는 거였다. 아버지는 이걸 먹으면 장사(壯士)만큼 힘이 세진다며 여물솥에 넣어 삶았다. 나는 나를 늘 귀롭혀 온 건너 마을 삼수 놈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껌데기를 까 입에 넣어 주는 수탉알을 목이 메게 먹었다.

계유년(癸酉年) 정월 초하룻날 아침, 나는 차례상 앞에서 그때를 문득 떠올렸던 거였다.

올해가 계유년 닭띠의 해이다. 떠란 사람이 난 해를 지지(地支), 즉 60갑자의 아랫 단위를 이루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십이지(十二支)요소의 속성에 결부시켜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로써 유(酉)란 지지의 열째 자리, 달로는 음력 팔월, 방위로는 서쪽, 시각으로는 다섯 시에서 일곱 시 사이를 말한다.

주역(周易)에서 이르기를 장닭이 허를 길게 세 번 치고 꼬리를 흔들면 귀신과 호랑이가 민가에서 물러간다 했으니 호랑이띠와 닭띠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원진(怨隕)관계라 한다. 다시 말해 둘 사이는 마음이 맞지 않아 항상 충돌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호랑이는 닭의 울음소리를 싫어한다는 인유원진(寅酉怨隕), 쥐는 양의 배설물을 꺼린다는 자미원진(子未怨隕), 소는 말의 게으름을 싫어 한다는 축오원진(丑午怨隕), 토끼는 원숭이의 궁동이를 싫어 한다는 묘신원진(卯申怨隕), 그리고 용은 돼지 면상의 코를 싫어 한다는 진해원진(辰亥怨隕)과 뱀은 금속성의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허물을 벗다 죽는다는 사술원진(巳戌怨隕)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만나므로 해서 서로 돋고 이롭게 하여 좋은 성격은 드러나나 나쁜 성격은 억눌러지게 되며 하나의 노력으로 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만남이 있으니 이를 이합(二合) 또는 삼합(三合)이라 한다. 즉 돼지, 토끼, 양의 관계인 해묘미삼합(亥卯未三合), 호랑이, 말, 개의 관계인 인오술삼합(寅午戌三合), 뱀, 닭, 소의 관계인 사유축삼합(巳酉丑三合), 원숭이, 쥐, 용의 관계인 신자진삼합(申子辰三合)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닭은 하늘나라 지옥문의 사자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한 천국의 봉황이었는데 어쩌다 법칙을 어겨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한다. 그레 신령스런 동물로 여겨졌고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고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혼례를 치를 때 닭을 사용하며 불가(佛家)나 나라에서 높은 직위를 표시할 때 닭의 형상을 한 봉황의 무늬를 새기는 것이 때문이다.

닭은 새벽을 알린다. 하늘과 땅, 인간 세상에 하루의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여명의 전령사다. 백수(百獸)의 왕 호랑이와 잡귀를 물리치는 위력도 갖고 있다. 신계(神界)의 위계 질서에까지 파고드는 영묘(靈妙)함을 가지고 있다 한다.

닭의 신령스러움은 닭춤의 절묘함을 보더라도 그렇다. 깨끔질과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 춤으로 우주의 질서정연한 운행을 추어낸다.

그렇게 서둘지도 않고 그렇게 늦추지도 않으며 잘도 추어대는 닭춤. 그야말로 신바람과 신명이 절로 일어 신(神)굿이라 한다. 봉황마저 흥내를 낼 정도라 했다. 그러나 봉황의 춤에는 우아함은 있으나 결작한 멋은 없단다.

닭은 직선적이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두뇌형은 되지 못하나 자연 섭리의 파장을 시원스럽게 받아들여 섭섭할 정도로 빠르게 전달하여 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원 섭섭하다는 말은 바로 닭의 이런 생리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닭은 영혼의 세계와 통한다. 영혼파의 교류에서 어떤 위력을 갖게 되지만 그걸 과시하지 않으며 엉뚱한 생각도 갖지 않는다. 또 누굴 원망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뿐이다. 해서 사주(四柱)에 닭을 가진 사람은 조상의 업보를 지상에서 봉사하므로 죄를 용서 받아 인도환생한다고 한다.

“꼬끼오!”

고요한 정적을 활기차게 조개며 새벽을 알린다. 새벽 닭 울음 소리에는 근면성이 있다. 밤의 긴 휴식에서 깨어나 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남을 위해 새벽을 외치는 봉사정신이며 철저한 시간 관념도 있다. 아니 오기같은 끈기도 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도 있다. 이렇듯 신령스런 닭의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겐 새로운 마음의 각오도 필요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지난날의 냉철한 각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수탉알. 그것은 아버지의 가이없는 사랑이었다. 편식이 남달리 심했던 내게 뭐든 먹이고 싶어 수탉알이란 기상천외의 묘안까지 짜내야 했던 아버지.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내 모든 것이 묻혀 망각되어 가고 있지만 수탉알의 추억만은 잊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93년 수필문학 1월호에서 전재)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文化院에서는 문화은행에 보존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옛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 32-1231)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 ◎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 등에 관한 기록등
- ◎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옛구조물 등을 찍은 사진
- ◎ 음향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주요인사의 육성을 담은 녹음등

2. 수집기간 : 제한없이 받음

- 알 림 -

우리 문화가족(회원)이 되면 회원증 제시로 시내 각극장과 설악산 케이블카는 요금의 50%를 할인 받습니다.

표지화



정 광 섭(鄭珖燮)

- 1956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남
- 황지고등학교, 제주대학미술교육과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옴
- 제주도전 최고상과 특·입선, 강원도전 특 입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에 출품을 하였고 향방전등의 몇몇기획전, 단체전 초대전등에 참가 하였음
- 지금은 속초여자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재직중임
- 주 소 :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 2차아파트 101동 1008호 ☎ 217-060
- 전 화 : (0392)32-5298

편집위원

주	간	이	기	을
위	원	박	의	훈
		이	성	선
		지	응	준
		김	광	수
		오	세	하
		최	나	민
		정	영	래
		최	현	식
		윤	의	구
		주	상	훈
간사				음

東草文化 제9호(비매품)

인쇄 : 1993. 12. 1

발생 : 1993. 12. 20

발행인 : 崔 龍 文
발행처 : 東 草 文 化 院
인쇄처 : 江原日報社出版局

이 책은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의 도움을
받아 발행하였습니다.

我說：「我沒有說錯，我說的是『我』，不是『我們』。」
他說：「我以為你說的是『我們』，因為你說的是『我們的問題』。」
我說：「我說的是『我』，因為我說的是『我的問題』。」
他說：「我以為你說的是『我』，因為你說的是『我的問題』。」

我說：「我沒有說錯，我說的是『我』，不是『我們』。」
他說：「我以為你說的是『我們』，因為你說的是『我們的問題』。」
我說：「我說的是『我』，因為我說的是『我的問題』。」
他說：「我以為你說的是『我』，因為你說的是『我的問題』。」

安寧하십니까?

영북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운전면허출장시험장 개설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학원

❖ 문의및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 33-3333
속초자동차학원 ☎ 635-3366, 3377, 3388, 3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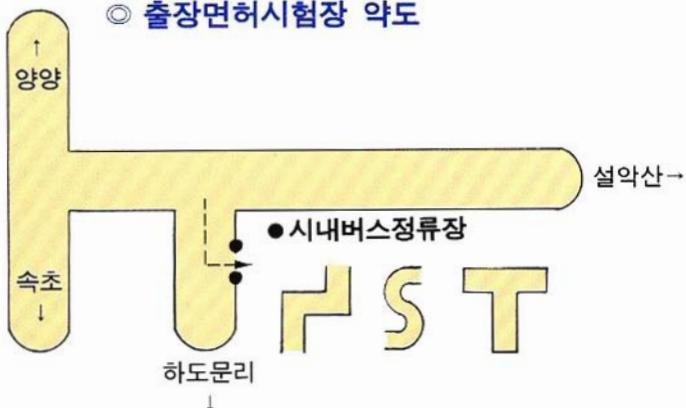


속초자동차학원 강의실



속초자동차학원 시험장

◎ 출장면허시험장 약도



속초자동차학원

학원장 金光洙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新興寺



新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
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년(1644)에 灵瑞, 惠元, 蓮玉 세스님
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
락보전(指定文化財 14號), 경판(指定
文化財 15號), 보제루(지정문화재 104

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寶物
第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등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존좌상외 9점

◎수행하는 도량 ◎포교하는 도량 ◎청정한 도량

신흥사

주지 송지홍 외 대중일동